

광복 80주년 기념



시민이 만들어가는
제주 역사와 문화의 기록창고
제주학 아카이브



제5기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기초과정

탐라의 역사·문화·삶을 기록할
'시민 아키비스트'
기초과정 교재



교육 기간

2025. 5. 27. ~ 6. 26.

(총 10회, 화·목 19:00 ~ 21:00, 현장 1회)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와 제주인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따뜻한 제주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278
Tel. 064)726-5623 Fax. 064)900-1840
www.jst.re.kr



제5기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기초과정

탐라의 역사·문화·삶을 기록할
'시민 아키비스트'
기초과정 교재

광복 80주년 기념 

시민이 만들어가는
제주 역사와 문화의 기록창고
제주학 아카이브



제5기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기초과정



탐라의 역사·문화·삶을 기록할
'시민 아키비스트'
기초과정 교재



교육 기간

2025. 5. 27. ~ 6. 26.

(총 10회, 화·목 19:00 ~ 21:00, 현장 1회)

01	5. 27. 화	광복 80주년, 지역 공동체의 역사·문화 기록화와 아카이브 구축	김재순 전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장
02	5. 29. 목	자연과 생태로 본 제주의 특성과 지속가능성	김완병 제주학연구센터장
03	6. 3. 화	제주사회 문화변동의 흐름과 생활사 기록화 방법	고광민 제주섬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04	6. 10. 화	제주어 구술채록으로 제주인의 삶 기록하기	김미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05	6. 12. 목	문학예술로 기록하는 제주의 역사와 제주인의 삶	김동현 제주민예총 이사장
06	6. 17. 화	사진으로 기록하는 제주의 역사와 문화	강정호 사진작가
07	6. 19. 목	영상으로 기록하고 소통하는 제주인의 삶	안현미 스토리AHN 대표
08	6. 21. 토 14시~18시	현장 실습	현장 강의 및 답사
09	6. 24. 화	마을 문서 발굴·번역·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제주역사 다시 읽고 쓰기	홍기표 전 제주역사문화진흥원장
10	6. 26. 목	기록 아이템 선정과 디지털 기반 현장 기록화 방법 / 수료식	조정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 수료증 발급: 총 10회 중 8회 이상 수강 시 수료증 배부 및 심화과정 수강
- 제주도민대학 강좌 100학점 이상 이수시 명예학사 수여

지역 공동체의 역사·문화 기록화와 아카이브 구축	10
김재순 전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장	
자연과 생태로 본 제주의 특성과 지속가능성	50
김완병 제주학연구센터장	
제주사회 문화변동의 흐름과 생활사 기록화 방법	68
고광민 제주섬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제주어 구술채록으로 제주인의 삶 기록하기	94
김미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문학예술로 기록하는 제주의 역사와 제주인의 삶	110
김동현 제주민예총 이사장	
사진으로 기록하는 제주의 역사와 문화	218
강정호 사진작가	
영상으로 기록하고 소통하는 제주인의 삶	246
안현미 스토리AHN 대표	
마을 문서 발굴·번역·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제주역사 다시 읽고 쓰기	280
홍기표 전 제주역사문화진흥원장	
기록 아이템 선정과 디지털 기반 현장 기록화 방법	332
조정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지역 공동체의 역사·문화 기록화와 아카이브 구축

김재순

전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장

지역 공동체의 역사·문화 기록화와 아카이브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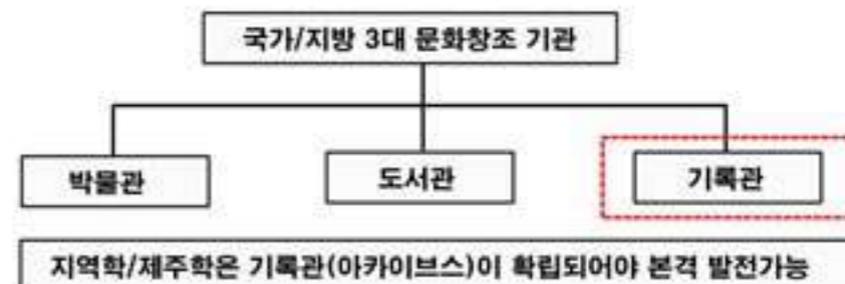
2025. 5. 27 전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장 김재순

- 목 차 -

- I. 기록유산(Archives)의 중요성
- II. 근대 기록관리 역사개관
- III. 한국의 기록문화 전통
- IV. 공공기록물법 제정과 기록유산 분담체계
- V. 중앙 및 지자체 아카이브 현황
- VI. 제주도 아카이브 구축 기본방향
- VII. 아카이브 표준모델과 주요기능
- VIII. 제주도 기록유산 디지털컬렉션 제력방안
- IX. 추진대책

I. 기록유산(Archives) 중요성

중앙·지방정부는 박물관/도서관/기록관 3대 문화창조기관을 설치해야 함
 한국은 1999년 기록물법 제정으로 지자체도 기록관(아카이브) 설치 의무화
 제주도에서는 26년이 경과한 현재도 미설치



II. 근대 기록관리 역사개관

서구는 프랑스 시민혁명기에 근대 기록관리 시작
 한국은 1980년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법제정, 현대 기록관리 시작



프랑스 혁명과 근대 기록관리 시작

1789년 6월 20일 국민의회 결성(회의록 등 기록보존/공개 기록관리 시작)
 8월 14일 초대 기록관리책임자 임명(아르망 가스통 까뮈: 국민의회 의장)
 1808년 왕족 대저택을 최초 근대 아카이브스 건물로 수용하여 개관(나폴레옹)



Armand Gaston Camus
 (1740-18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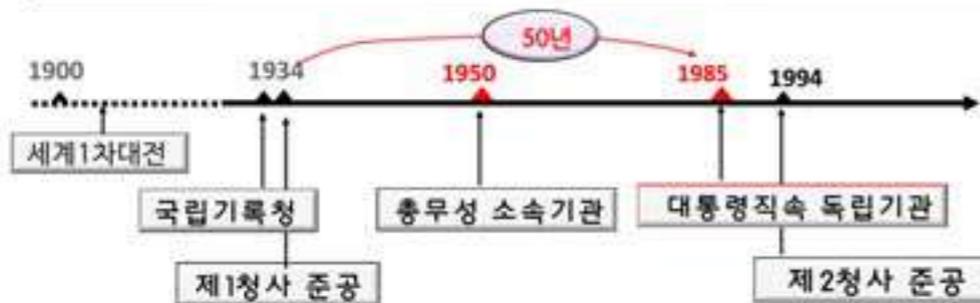
미국 기록관 제1청사(1935)

1934년 기록관리청 설립, 1935년 아카이브스 건물 준공
 -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을 모델로 미국의 국가적 상징건물로 설계(독립선언서 등 전시)



미국 선진사례 소개

- 1934년 국립기록청 설치, 1950년 총무성 흡수, 1985년 독립
- 2024년 현재 입법 사법 행정부 등 국가전반 기록관리



1985. 4. 1
 대통령직속
 차관급 독립기관
 (입법/사법/행정부)

미국 국립기록청법

제2102조(설치) 합중국 행정부에 독립기관으로서 국립기록관리청을 둔다.

제2103조(직원) ①청장은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청장은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양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로버트 와너(Robert M. Warner)

- 1980~1985년 미국 6대 기관장
(지미 카터 임명)
- 기록청내 독립운동 그룹조직
- 정치인, 언론인, 학계 등 협력체계 구축
- 1984. 10.19 로널드 레이건 서명
- 1985. 4. 1 법률시행

미국 기록관 제2청사(1994)



입법·사법·행정부(CIA 포함) 국가전체 기록물의 종합적 보존 및 학술자료 제공
 ⇒ 세계 학술문화 창조역의 산실(※ 6.25 전쟁 중 북한지역 노획문서 등 보존)

미국 대통령기록관 연혁과 문제점

- 1935년 국립기록청 건물 개관했으나 제2차 세계대전으로 기록물 폭발적 증가
 루스벨트대통령(3선) 기록물의 수용공간 부족
- 대통령개인부담으로 건물신축(1941) 후 국가헌납하여 유지관리
- 이후 대통령퇴임 후 개별기록관 설치 및 헌납관행 고착화(2022년현재 15개)

정부기록물과 분리, 대통령별 분산 등 비효율성
 자화자찬식 역사평가, 국가자원 인력/예산 부담 등

미국 전직청장 자문의견

미국의 대통령별 기록관
제도는 단점이 많음

대통령 - 정부기록물은
통합관리
대통령별 박물관,
전시관은 자율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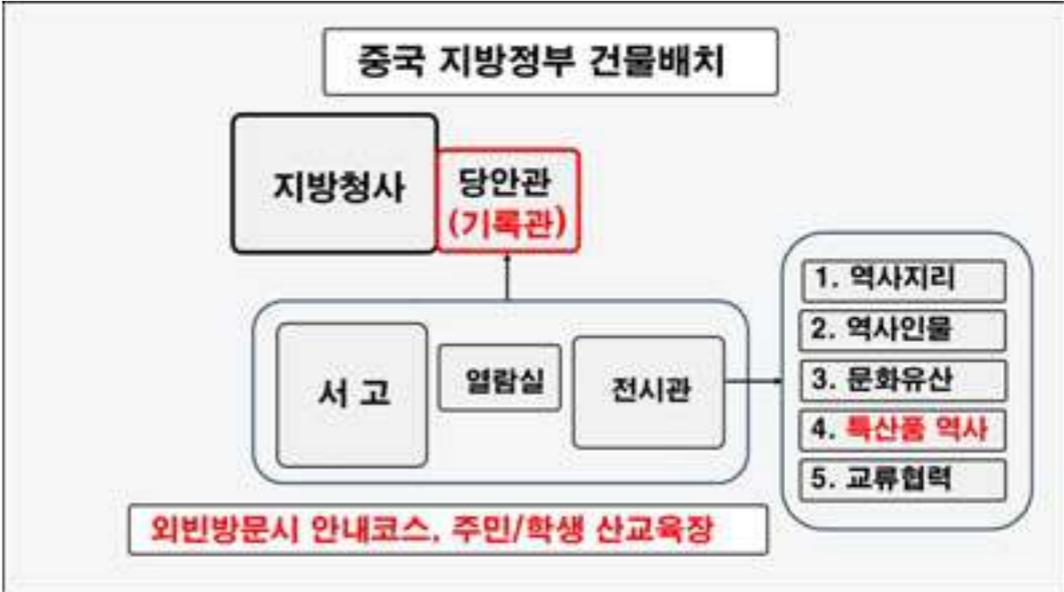
중국 지방정부 : 전국 성/시/현 아카이브스 설치

미국은 현재에도 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 등 문제점 노정

트럼프 "기밀문건 반출 의혹에 '날조' 강력 반발



트럼프 대통령이 기밀문서를 파기, 화장실
변기에 버린 증거사진





국제 아카이브스 선언

2010년 ICA 오슬로 총회에서 채택
2011년 유네스코에서 승인

선언 주요내용

1. 아카이브스(기록유산) 개념정의
2. 기록관리 종사자들의 인식사항
3. 기록관리 공공 실천과제

To this effect, we recognize

- the unique quality of archives as authentic evidence of administrative, cultural and societal activities and as a reflection of the evolution of societies;
- the vital necessity of archives for supporting business, efficiency,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for protecting citizens' rights, for establishing individual and collective memory, for understanding the past, and for documenting the present to guide future actions;
- the diversity of archives in recording every area of human activity;
- the multiplicity of formats in which archives are created, including paper, electronic, audio-visual and other types;
- the role of archivists as trained professionals with moral and continuing education, serving their societies by supporting the creation of records and by selecting, maintaining and making these records available for use;
- the collective responsibility of all – citizens, public administrators and decision-makers, owners or holders of public or private archives, and archivists and other information specialists – in the management of archives.

2. 기록관리자가 인식해야 할 사항

1. 기록물 고유속성
2. 기록물 보존 필요성
3. 기록물의 다양한 증거능력
4. 기록매체의 다양성
5. 기록관리자 역할(업무)
6. 기록관리 공동 책무

1. 아카이브스(기록유산) 정의

Archives record decisions, actions and memories. Archives are a unique and irreplaceable heritage passed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Archives are managed from creation to preserve their value and meaning. They are authoritative sources of information underpinning accountable and transparent administrative actions. They play an essenti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societies by safeguarding and contributing to individual and community memory. Open access to archives enriches our knowledge of human society, promotes democracy, protects citizens' rights and enhances the quality of life.

영구기록은 의사결정, 활동, 기억을 증거한다.

세대를 걸쳐 전승되는 대체불가능한 고유한 기록유산이다.
가치와 의미를 보존하기 위하여 생산단계부터 통제되어야 한다.
권위를 갖는 정보자원이며, 책임성과 투명성을 보장한다.
개인과 사회의 기억을 보호하고 증거하는 기본역할을 수행한다.
열람제공은 인류의 지식을 풍부하게 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며,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We therefore undertake to work together in order that

- appropriate national archival policies and laws are adopted and enforced;
- the management of archives is valued and carried out competently by all bodies, private or public, which create and use archives in the course of conducting their business;
- adequate resources are allocated to support the proper management of archives, including the employment of trained professionals;
- archives are managed and preserved in ways that ensure their authenticity, reliability, integrity and usability;
- archives are made accessible to everyone, while respecting the pertinent laws and the rights of individuals, creators, owners and users;
- archives are used to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responsible citizenship.

3. 기록관리 공공 실천사항

1. 기록관리 정책수립, 법령도입
2. 기록관리업무 평가, 개선
3. 기록관리자원 지원, 인력배치
4. 기록유산 공공 접근성 보장
5. 기록유산의 공공 기여

Ⅲ. 한국의 기록문화전통

사관과 사초작성, 실록, 의궤, 일기 등 편찬, 4대·5대
사고 중복보존 등은 세계수준 독창적 기록문화

그러나 근대 기록관리로 발전하지 못하고 단절

1999년 법률제정으로 현대적 계승·복원
제주도 : 강화도 사고전통 계승해야...

사관과 사초(史草) 정신

영조실록 40권, 영조11(1735)년 2월 13일

군상(君上)의 언동과 시정(時政)의 득실과 인물의 선악을
모두 사책(史冊)에 써서 후세에 전하는 까닭에(중략)
임금이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가 없다. (중략)

사관의 목은 자를 수 있어도 붓은 자를 수 없다.
(史者 有頭可斷 筆不可斷).



사고(史庫) 구성



실록각 내부 실록함



IV. 공공기록물법 제정과 기록유산 분담체제

법제정 배경

구미 - 프랑스 혁명에서 근대 기록관리 시작
한국 - 광주 5.18 민주항쟁 → 국민주권 인식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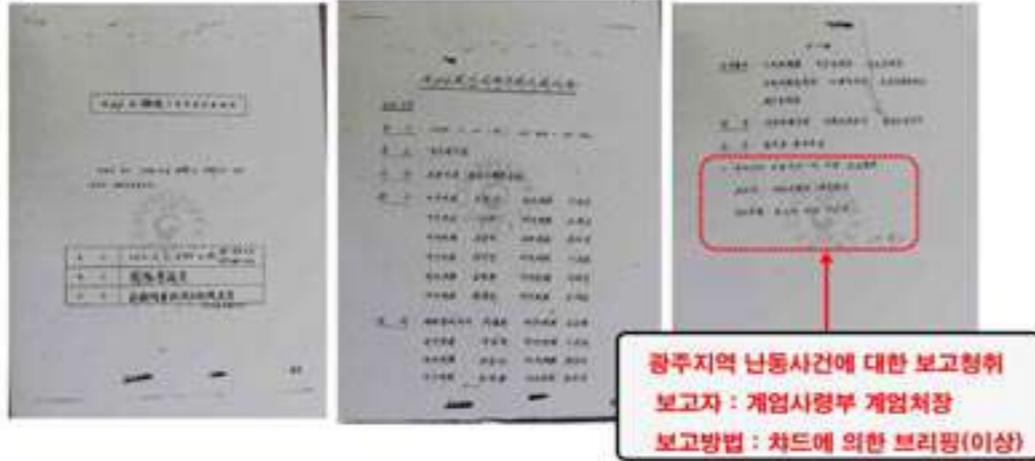
세계기록유산 등재(1997년) : 1대 태조~25대 철종 - 472년



1989년 5공청문회 : 전두환 등 역사진실 외면에 국민분노
→ 대통령기록물부터 철저한 보존과 사후공개 제도필요



5.18 국무회의의록(1980. 5.22일자) : 3매



국보위 기록물 : 총 3건

관인대장 이관문서

국보위 관인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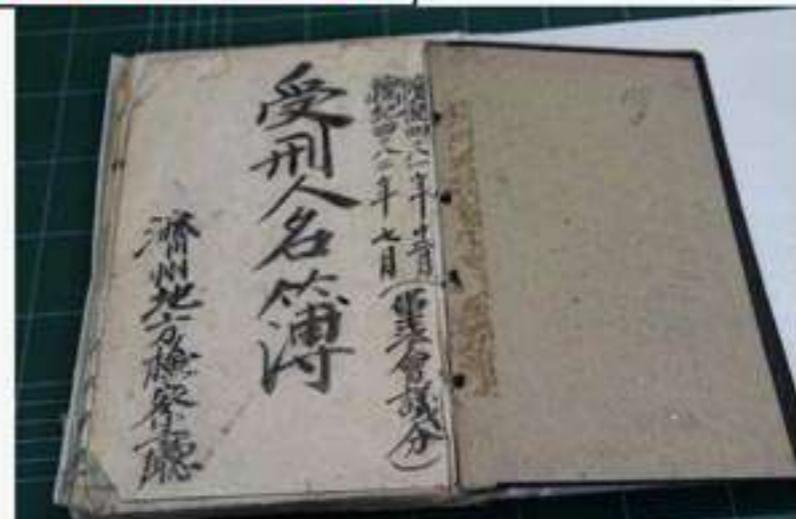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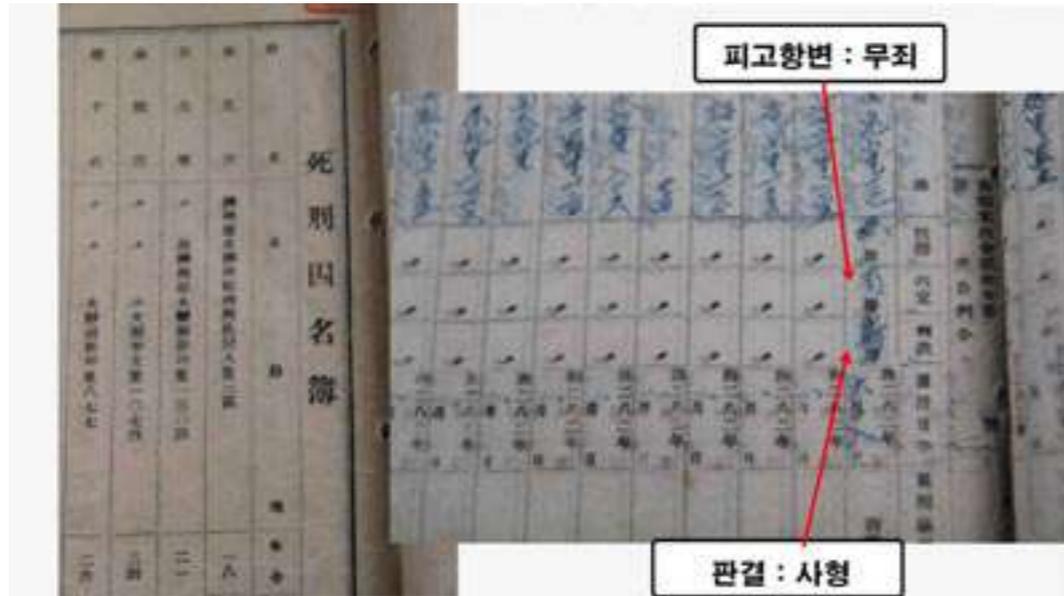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1980.5.31~10.27) 기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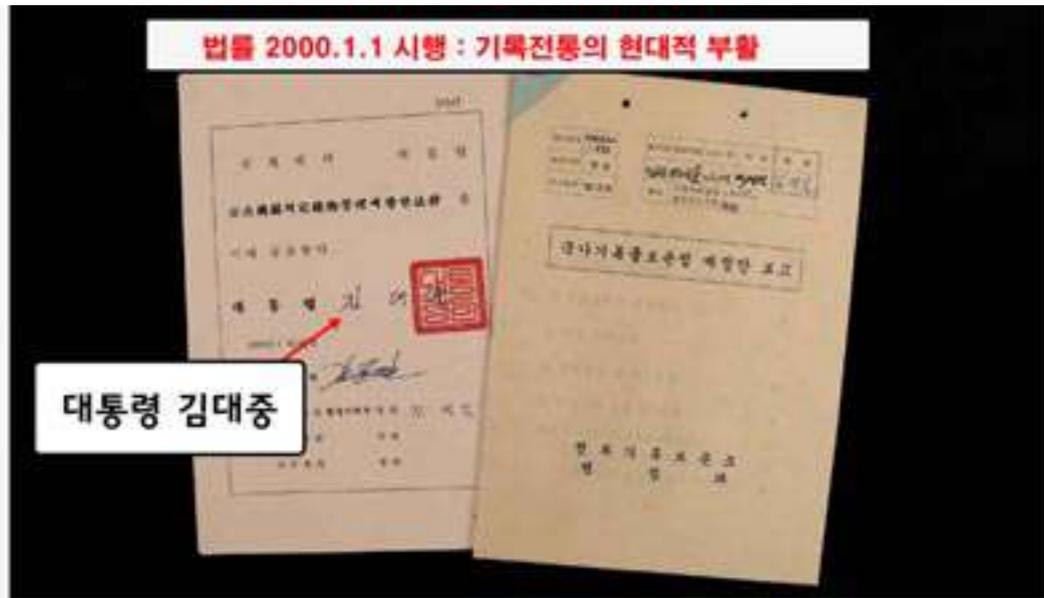


- 위원장 : 최규하 대통령
 상임위원장 : 전두환 보안사령관/중앙정보부장서리
 13개 분과위원회
- 국 방 : 육군 소장 이기백
 - 법 사 : 대검 검사 문삼익
 - 외 무 : 외무부 기획관리실장 노재원
 - 내 무 : 육군 소장 이광노
 - 경 과 : 기획원 국장 김재익
 - 재 무 : 육군 소장 심유선
 - 문 공 : 육군 소장 오자복
 - 농 수 산 : 농수선부 차관보 김주호
 - 보 사 : 해군 중장 조영길
 - 교 통 : 육군 준장 이우재
 - 건 설 : 건설부 기획관리실장 이규효
 - 정 화 : 중앙정보부 감찰실장 김만기
 - 사 무 처 : 공무원 교육원 부원장 정관용

제주 4.3 수형인명부 최초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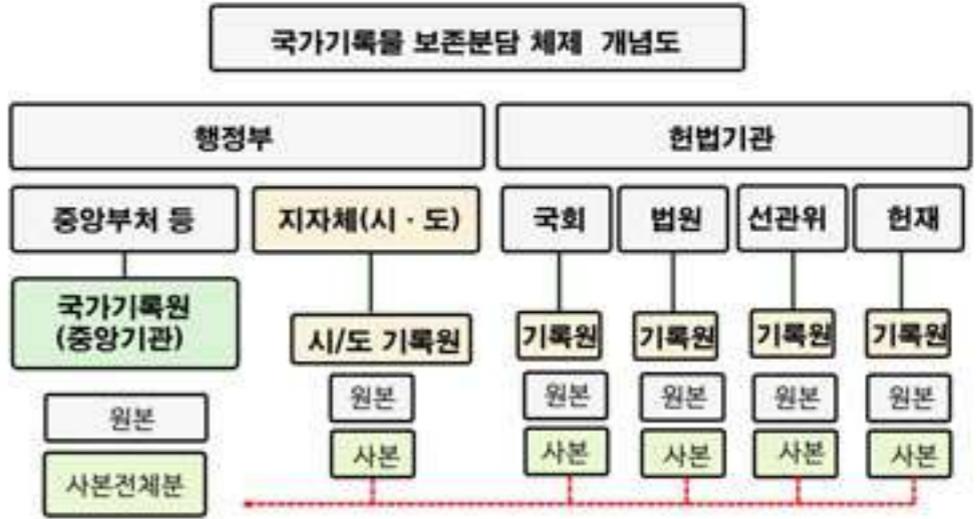






한국 특징 : 사초전통 계승, 강력한 형사처벌

<p>주요 내용</p>	<p>공무수행 입안부터 결과까지 등록, 보존 국무회의록 등 생산의무 부과(사초전통) 기록물 사후공개와 열람서비스 기록물관리 전문인력 배치</p>
<p>형사 처벌</p>	<p>미등록, 회의록 미작성 등 공무원 징계 대통령기록물 무단반출, 파기 등 징역 10년</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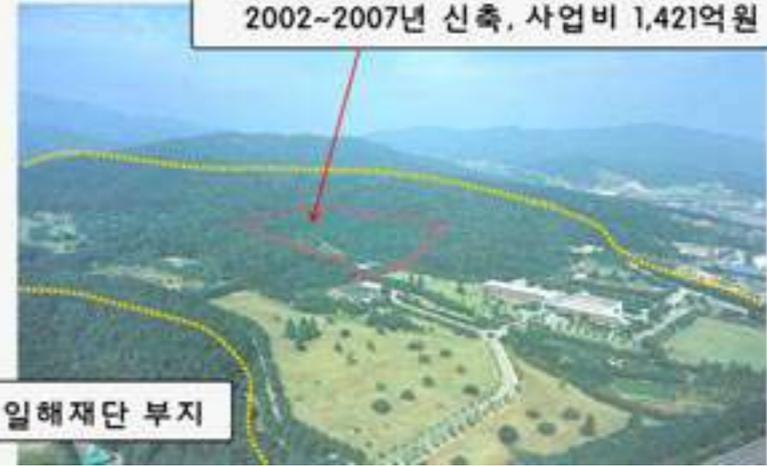


노무현정부 : 정부기록보존소 → 국가기록원, 정원 131 → 360명



중앙 아카이브스(나라기록관)

2002~2007년 신축, 사업비 1,421억원



구 일해재단 부지

V. 중앙 및 지자체 아카이브스 현황

중앙정부 : 국가기록원 - 중앙기록관 + 권역별 기록관
지방정부 : 자체 기록관(공공 + 민간기록물 등)



* 2024년 현재 서울·경남설치, 여타 시도는 미설치

나라기록관 : 2008년 개관(국가 중앙사고)
근무인력 : 약 300명(정규100, 비정규 200)





VI. 제주도 아카이브스 구축 기본방향

과제 1

중앙정부소속 아카이브스(분원) + 제주도 지방 아카이브스

중앙정부소속
아카이브스

제주권 검찰 경찰 등 중앙정부 기록물(예: 4.3 수형인명부 등)
육지 각급 아카이브스 기록물
사본 후방소산, 종합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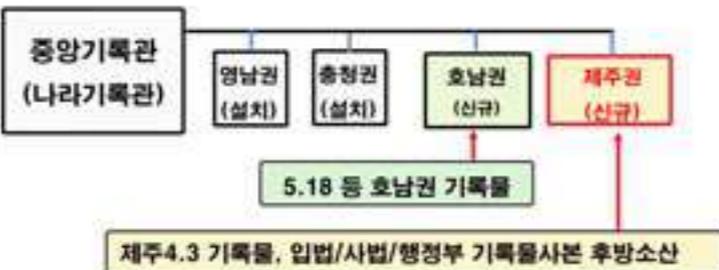
제주도청 소속
아카이브스

제주도청 등 지자체 기록물
제주도 민간영역 기록물

2015년도 기록원 추진 연구용역 결과

※ 현재까지 후속조치 없음

호남권(광주) : 5.18기록물 등 광주현장 집중보존, 학술자료 활용
제주권(제주) : 제주4.3 기록물 등 현장보존, 입법/사법/행정부 기록물사본 후방소산



과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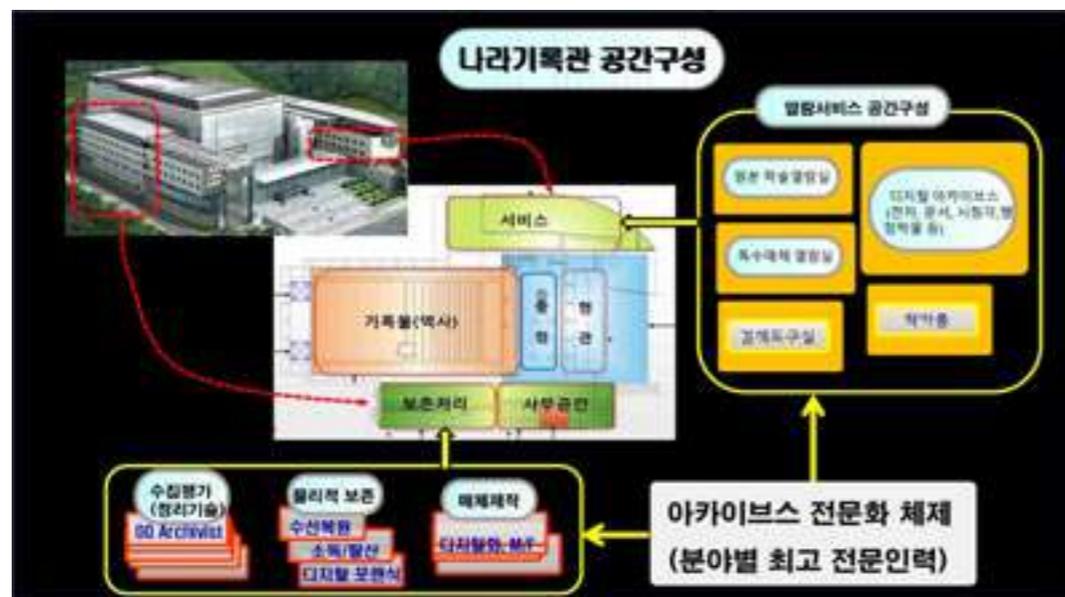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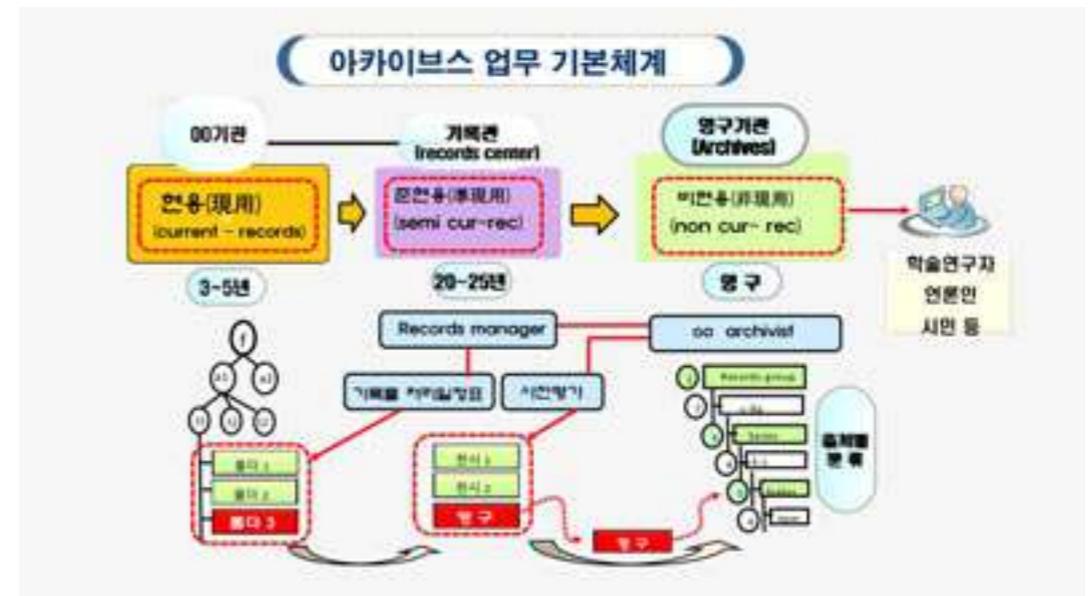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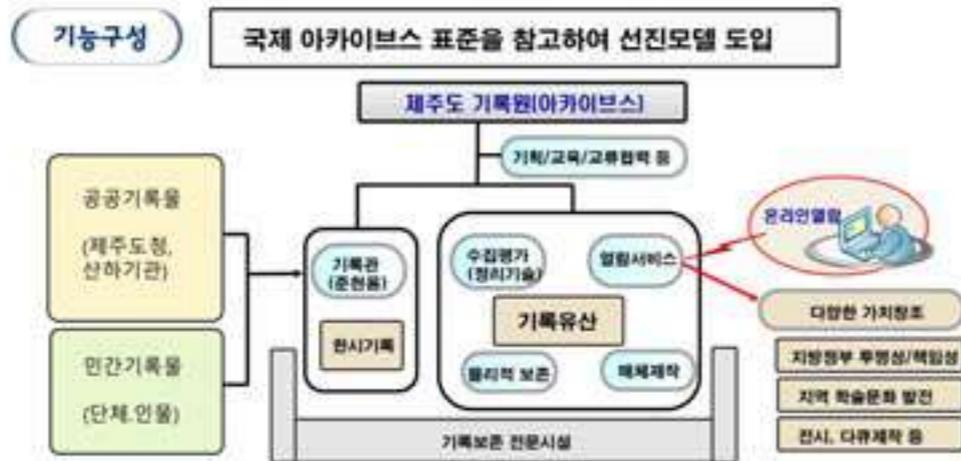
입지조건 : 제주관련 기록유산의 종합적 보존 및 활용 효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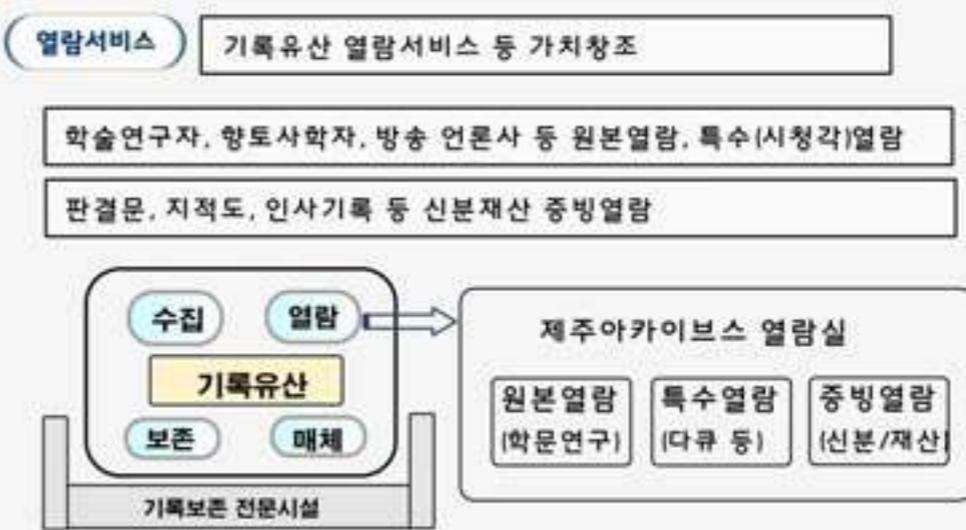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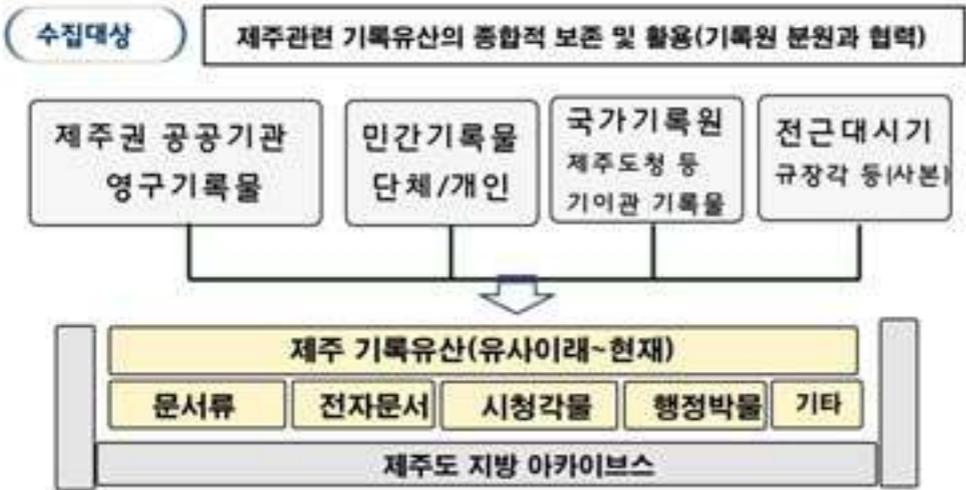


제주4.3 평화기념관 + 기록원 분원시설 + 제주도 아카이브스 : 기록유산 집중보존/활용



Ⅷ. 아카이브스 표준모델 과 주요기능





전시관 운영

기록문화 전시관 운영 등 지역주민 공감대, 참여유도

방문고객

공직자 교육연수생

초중고 수학여행

대학생 답사여행

일반시민 견학코스

외국 방문객



제주도아카이브스전시관

상설전시관
(5년주기)

기획전시관
(연1~2회)

구텐베르크 성경원본



팔만대장경(반야심경)



국가기록원 사례 : 국제기록문화전시회(2010, 서울 코엑스)



각국 세계기록유산 → 나라기록관 → 코엑스 전시장
구텐베르크 성경원본, 인권선언, 실록, 팔만대장경 등

팔만대장경 1점 이운 고불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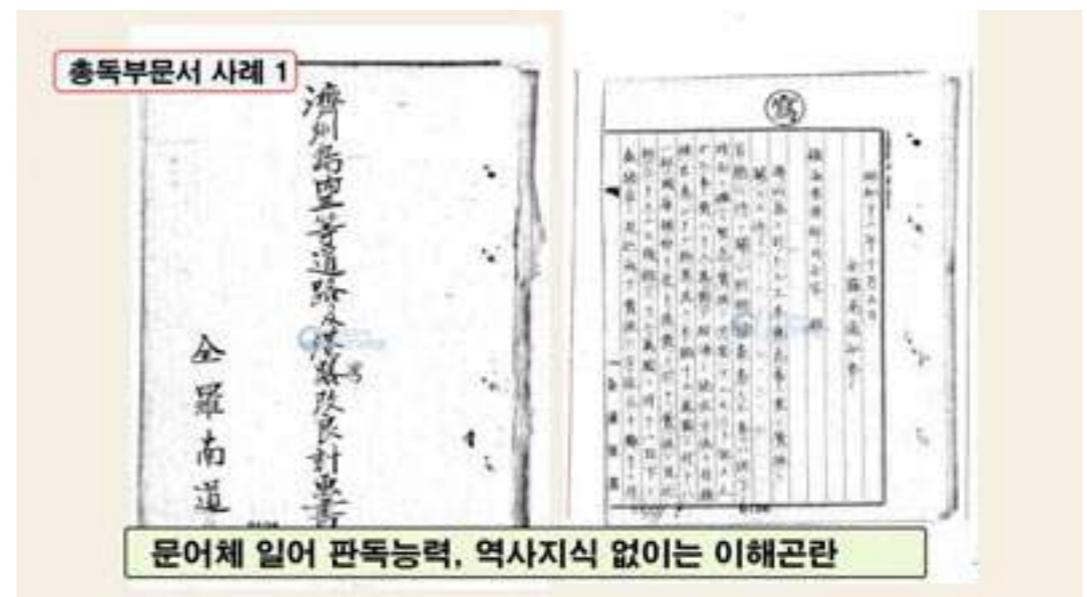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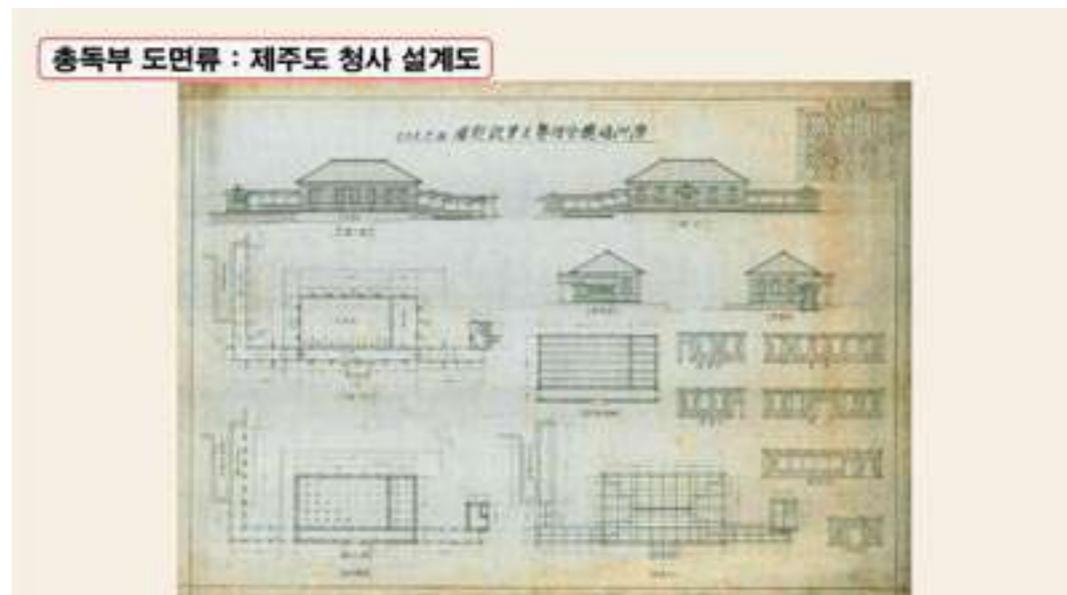
기록유산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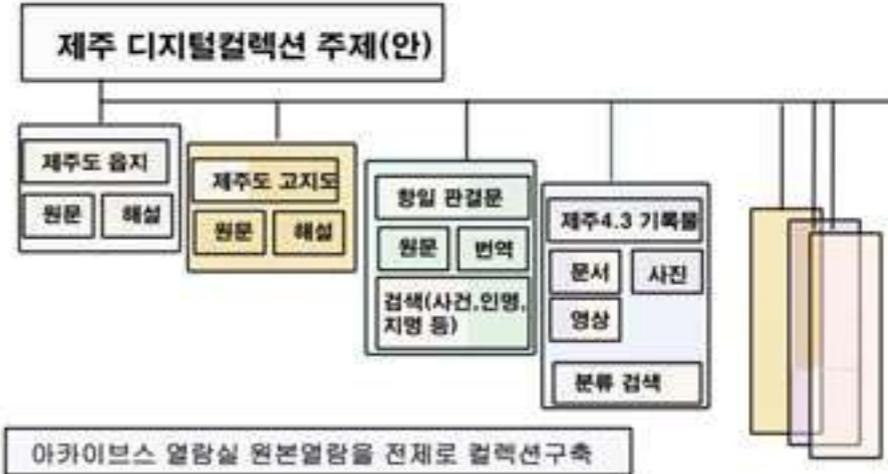
VIII. 제주도 기록유산 디지털 컬렉션 제작방안

디지털 환경기반 제주관련 전체 기록유산 활용기반 조성
기록원 본원 + 제주도 아카이브스 기록물 DB구축 추진





사진기록 사례 : 제주도 종합학술조사단 활동(1959)



제주도청, 시, 읍면 등 문서고

일부 공문서류, 민간 수집기록물, 간행물, 사진 등



제주도 아카이브스 설립과 기록물정리사업

제주권 기록물 정리사업 → 디지털 컬렉션 구축 : 중장기 연차사업
→ 은퇴자, 고학력 실업자, IT업계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 나라기록관 기록물정리사업 : 매년 약 20억원

IX. 추진대책

제주지사직속 (가칭) '제주기록원 설립위원회' 설치

- 도 청 : 관련부서장
- 학 계 : 역사/문헌/행정/법학/건축 등
- 언론방송, 제주4·3단체, 향토사학계 등
- 선진사례 조사, 기록원 등 제주기록물 조사
- 「제주기록원」 기본계획 수립
- 언론홍보 등 공감대 조성



자연과 생태로 본 제주의 특성과 지속가능성

김완병
제주학연구센터장



자연과 생태로 본 제주의 특성과 지속가능성

(김원영 제주학연구센터장)



화산섬, 탐라국, 신들의 섬, 유배의 섬, 삼다삼무삼보의 섬, 저항의 섬, 평화의 섬





대륙에서 건너와 섬에서 멸종된 대륙사슴(Mandchurian Sika Deer)

만오양 남쪽에 위치한 모리서스 공해 살았던 도 도래는 왜 멸종되었을까. 제주섬에서도 인간의 과속을 사라진 사슴이 있다.

석기시대와 청동시대부터 한라산에서 뛰놀던 대륙사슴의 옛터는 병하시대에 대륙에서 건너왔지만, 서원들의 지나친 사냥이나 전상(漕上)으로 인해 살아있는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

한라산목으로의 표본채취(이항상, 1709)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본부 소장

漢拿山, 山無草樹, 惟物產于石焉
(增補北雜記, 申叔舟, 1766)

1702년 10월 11일에
지음의 교역의와 거사리
전근에서 사냥을 통해
*사슴 170마리,
*멧돼지 110마리,
*늑대 10마리,
*개 22마리를 잡았다.



2. 調査 行程

3. 調査 方法

4. 調査 結果 及 人員

濟州山嶽自然群落圖 調査隊 報告書

濟州山嶽自然群落圖 調査隊 報告書

濟州山嶽自然群落圖 調査隊 報告書



슬픈 사연을 안고 바람을 극복한 까치

현재 제주도 전역에서 관찰되는 까치는 1989년에 육지부에 들여온 후손종이다. 초기에는 제주 시내를 중심으로 번식하였으나, 지금은 무도, 마라도, 배양도 등 도서지역에서도 번식할 정도로 제주도 전역에서 확인된다.

이들 까치는 번식 초기에는 바깥과 경쟁자의 세력권 등을 회피하여 번식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점차 제주도의 차가운 겨울 상대적 환경을 극복해 나감으로써 번식 밀도를 높여갔다. 번식종지의 나무도 갈매나무나 전선주에서 노닐수있고 상록수까지 선택하면서 제주도 기후환경에 적응하였으며, 분포범위도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확장해가고 있다.

고사리철에는 비도 자주 내립니다(고사리 장마). 나비 박사 **석주영**은 제주를 **과다섬**이라 했죠. 돌, 바람, 비, 말, 여자, 까마귀, 고사리, 진드기. 고사리는 금세 자라기 때문에 아침 일찍 나서야 수확이 좋습니다. 간혹 길을 잃거나 진드기가 달라붙을 수도 있으니, 혼자서 다니면 위험합니다. 작은 진드기에 물리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 '진드기'를 제주어로 무엇이라 할까요?

① 모쉬 ② 주렁이 ③ 독짓 ④ 진쉬 ⑤ 진독



정답: ③ 독짓

① 말과 조건(말) ② 자레
③ 독짓(독, 남의 남에게 난 건 말, 여에게 준 거니서 여지말이 버지는 말
④ 진쉬말

제주도 인구 현황(2025. 2. 28 기준)
668,209명(외국인 26,406)
남 334,061 여 334,144

위험을 많이 겪어야 이렇게 나는 거야. 영혼적인 동무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새끼입니다?
 1) 허브지간(鳩之岬) 2) 반포지초(斑鳩之草) 3) 울락동시(鵲島洞岬) 4) 집어너간(沈海峽) 5) 송산우협(宋山鳥嶺) 6) 남산성간(南善峯岬)



혹우는 바닷가의 절벽에서 번식하는 텃새입니다(새도 고개)



새도 고개

외백로(외백) 텃새일과, 칠백일과



태평양에 제주를 방문한 큰군함조(Great Frigatebird)
 태풍이나 강풍은 한반도 이남의 칠백일과 제주로 해역까지 북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1994년 8월 대거 태풍에 는 큰군함조. 2006년 7월 에워니아 태풍에는 에워니아제비갈매기가 각각 실려온 적이 있다.

제주 (Jeju) 2004/08/20 15:00 - 2004/08/20 18:00
 (출처: 국가항공안전청 홈페이지)

에워니아(Ewisia) 2006/07/01 03:00 - 2006/07/10 22:00

큰군함조(사자 갈매기)

에워니아제비갈매기(Bristled Tern 사진 김호진)



17.



공화국 희망의 상징인 저어새(Black-faced Spoonbill)

사진 - 김기삼

영국 다리에 인식표(054)를 단 저어새가 제주에서 해당읍지 보호지역으로 첫 지정된 오조리를 찾아 왔다. 이 개체는 2016년 봄에 인천시 강화군 각시알에서 태어났으며, 9년째 제주를 찾고 있다. 저어 새는 북한과 강화도 일대의 사해안에서 번식하며, 제주도는 저어새의 최북단 월동지이다.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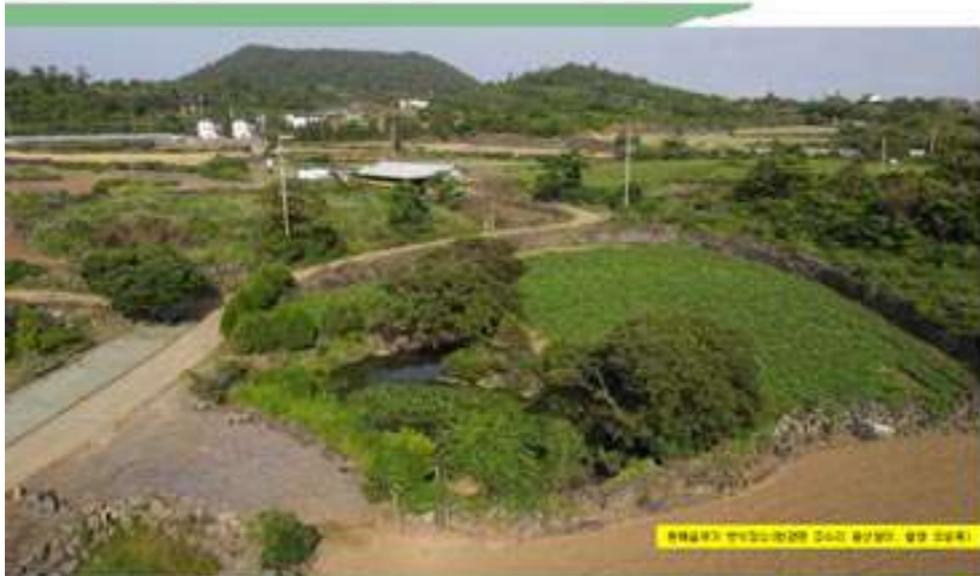


쉬엄쉬엄) 가마두지는 겨울철새이면서 텃새이며, 갈수 능력이 탁월합니다. 날다 보면 날라치고 잘 비탈 때도 있지만, 아무것도 다룰 때가 제일 좋구나





제주 신화, 자칭비에 나오는 종의물 중에 자칭비가 죽은 경수님과 문도동물 알려줘야 하는 나무는?
 (1) 개구리(개미)와 비둘기, (2) 멧돼지, (3) 개구리, (4) 개미, (5) 개미, (6) 개미, (7) 개미, (8) 개미, (9) 개미, (10) 개미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위원회 제14회 회의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위원회 제14회 회의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위원회 제14회 회의결과



서울로 갔다가 제주 바다로 돌아온 남방큰돌고래(Northern Bottlenose Dolphin)

2012년 서울시에서 서울대공원 돌고래쇼 중단 결정을 내리자, 2013년 7월 18일 구좌읍 김녕리 옥지교차 해상에서 공연 시설에 갇혀있던 남방큰돌고래 두 마리(제돌이, 춘삼이)가 자연으로 방사되었다.



2022년 10월 16일에 비룡이가 마지막으로 방류됨에 따라, 인간에 손에 의해 자유를 잃었던 남방큰돌고래 8마리가 모두 고향으로 돌아간 셈이다.

하지만, 바다에 버려진 폐그물이나 낚시줄에 의해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해양동물의 생존은 위태롭다.



제주사회 문화변동의 흐름과 생활사 기록화 방법

고광민

제주섬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제주 사회 문화변동의 흐름과 생활사 기록화 방법

마을 조직의 변동 - 경민장(警民長), 구장(區長), 이장(里長) 그리고 감관(監官), 순사(巡査)

도순동의 조직¹⁾

- 새마을운동(1970년) 이전까지, 도순동은 농가 150가호, 비농가 50가호, 인구 1천 명으로 구성되었다. 비농가는 노동력이 없는 늙은이가 사는 가호라는 말이다.
- 도순동은 향사(鄉舍)를 중심으로 북쪽은 ‘웃동네’, 남쪽은 ‘알동네’, 두 개의 동네로 구성되었다.
- 일제강점기 이전까지 도순동에는 ‘수으뜸’²⁾, ‘부으뜸’³⁾, ‘삼으뜸’⁴⁾을 두었다.

1) 2010년 2월 26일, 서귀포시 도순동 임남용(1926년생, 남) 씨에게 가르침 받았다.

2) ‘수으뜸’은 “마을의 어른이 되는 사람 중에서 우두머리”라는 말.

3) ‘부으뜸’은 “마을의 어른이 되는 사람 중에서 우두머리 다음 우두머리”라는 말.

4) ‘삼으뜸’은 “마을의 어른이 되는 사람 중에서 우두머리 다음다음 우두머리”라는 말.

- 도순동에서는 “향당(鄉黨)엔 막여치(莫如齒)⁵⁾요, 조정(朝廷)엔 막여작(莫如爵)⁶⁾”이라는 말도 전승되었다.
- ‘수으뜸’이 유고(有故)하였을 때는 ‘부으뜸’이 ‘수으뜸’이 되었고, ‘삼으뜸’이 ‘부으뜸’이 되었고, ‘삼으뜸’은 향회에서 선출하여 선임하였다.
- ‘으뜸’ 세 사람의 뜻에 따라 ‘경민장’⁷⁾과 ‘감관’⁸⁾을 지명(指名)하였다.
- 경민장(警民長)은 ‘하인’⁹⁾(下人), ‘감관’⁹⁾은 ‘케파장’¹⁰⁾을 거느렸다.
- ‘으뜸’이 사망하였을 경우, 마을 사람 모두가 ‘상뒤꾼’¹¹⁾이 되어 장사(葬事)에 참여하였다. 이를 “도향(徒鄉) 청한다”고 하였다.
- 보통 마을 사람들이 사망하였을 경우, 상가(喪家)의 해당 동네 ‘상뒤꾼’만 참여하여 장사(葬事)를 치렀다. 이를 “‘골’ 청한다”¹²⁾고 하였다.

5) 향당 막여치(鄉黨莫如齒)는 “고향마을에서는 나이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는 뜻으로 명심보감(明心寶鑑) 준례편(遵禮篇)에 나오는 말이다.

6) 조정 막여작(朝廷莫如爵)은 “조정에는 지위보다 좋은 것이 없다.”는 뜻으로 명심보감(明心寶鑑) 준례편(遵禮篇)에 나오는 말이다.

7) ‘경민장’⁷⁾(警民長)은 “조선 시대에, 지방의 동리에서 호적에 관한 일과 그 밖의 공공사무를 책임진 사람”이라는 말.

8) ‘감관’은 “조선 시대에, 제주도 마을에서 분쟁 소지가 있는 일을 관장하며 재판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는 말.

9) ‘감관’은 “조선 시대에, 제주도 마을에서 분쟁 소지가 있는 일을 관장하며 재판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는 말.

10) ‘케파장’은 “마을 공동목장이나 일정한 농경지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말. 달리 ‘유사’(有司)라고 이르는 수도 있었다.

11) ‘상뒤꾼’은 “주로 장사 때 가족이나 친척을 제외하고, 장사를 치르기 위해 동원된 동네 사람들”이라는 말. ‘상뒤꾼’들은 상여 운반에서부터 산소를 만드는 일까지 장사(葬事)에 따른 작업을 공동으로 전부 하게 된다.

12) ‘골 청한다’는 “동네 사람들은 청하여다가 장사를 치른다”라는 말.

‘감관’과 ‘케파장’¹³⁾

- ‘감관’^(監官)은 조선 시대에, 제주도 마을에서 분쟁 소지가 있는 일을 관장하며 재판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케파장’은 마을 공동목장과 그 주변 농경지를 관리한 값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케파장’을 달리 ‘유사’^(有司)라고도 하였다.
- ‘새왓’¹⁴⁾의 ‘새’¹⁵⁾는 보통 동짓달 초순에 베어들었다.
- 도순동 이장과 ‘감관’이 의논하여 베어들이는 날을 결정하였다. 이를 ‘새허치’¹⁶⁾라고 하였다.
- ‘감관’은 도순동 사람 중에서 간곤^(艱困)한 사람을 ‘케파장’으로 선임^(選任)하였다.
- ‘케파장’은 목축지^(牧畜地)와 그 주변 ‘출왓’¹⁷⁾, ‘새왓’¹⁸⁾, ‘곡석밭’¹⁹⁾을 간수^(看守)하였다.
- ‘곡석밭’은 상강^(10월 23일경) 까지, 그리고 ‘새왓’²⁰⁾은 ‘새’²¹⁾를 베어들일 때까지 간수^(看守)하였다.

13) 2008년 3월 20일, 도순동 임남용(1926년생, 남) 씨에게 가르침 받았다.
 14) ‘새왓’은 “초가지붕을 덮는 풀인 ‘새’(띠)를 생산하는 밭”이라는 말.
 15) ‘새’는 “초가지붕을 덮는 풀인 띠”라는 말.
 16) ‘새허치’^(-許採)는 “‘채취를 허락하다’의 뜻으로 초가 지붕을 덮을 띠를 정해진 동안 금지했다가 그것을 해지^(解止)하다”라는 말.
 17) ‘출왓’은 “마소의 월동 사료인 ‘출’을 가꾸거나 자라는 밭”이라는 말. ‘출’은 주로 겨울에 말이나 소에게 먹이는 마른 풀이라는 말이다. ‘출’은 ‘출왓’이라는 일정한 밭에서 생산하였다.
 18) ‘새왓’은 “초가지붕을 덮는 풀인 ‘새’(띠)를 생산하는 밭”이라는 말.
 19) ‘곡석밭’은 “곡식을 심어 가꾸는 밭”이라는 말.
 20) ‘새왓’은 “초가지붕을 덮는 풀인 ‘새’(띠)를 생산하는 밭”이라는 말.
 21) ‘새’는 “초가지붕을 덮는 풀인 띠”라는 말.

- ‘케파장’은 입하^(5월 5일경)부터 상강^(10월 23일경)까지 매일 목축지의 돌담을 수축^(修築)하는 등 목축지를 관리하였다.
- ‘케파장’의 보수^(報酬)은 다음과 같았다.
- ‘다간췌’²²⁾와 ‘사릅췌’²³⁾는 한 마리당 1년에 ‘대승’²⁴⁾ 2되를 받았다.
- 그 이상 ‘큰췌’는 1년에 보리 ‘대승’²⁵⁾ 4되를 받았다.
- ‘케파장’이 보수^(報酬)로 받은 보리 걸곡 중에서, 여덟 섬은 ‘케파장’²⁶⁾이 차지하였고, 그 나머지는 마을이 차지하였다.
- ‘케파장’이 ‘새왓’²⁷⁾과 ‘출왓’²⁸⁾의 관리비는 다음과 같았다.
- ‘감관’은 ‘새왓’²⁹⁾과 ‘출왓’³⁰⁾을 답사^(踏査)하여 밭의 크기와 작황^(作況)에 따라 관리비를 결정하였다. 관리비를 ‘켓보리’라고 하였다.
- ‘출’³¹⁾은 추분^(9월 23일경) 때 거두어들였다.
- ‘케파장’이 받은 ‘켓보리’는 보리 여섯 섬 정도가 되었다. ‘켓보리’는 그 이상 거두더라도 마을에 반납하는 일은 없었다.

22) ‘다간췌’는 “두 살짜리 소”라는 말.
 23) ‘사릅췌’는 “세 살짜리 소”라는 말.
 24) ‘대승’^(大升)은 “10홉들이 되를 5홉들이 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라는 말. ‘대승’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제주도에 전승되었다.
 25) ‘대승’^(大升)은 “10홉들이 되를 5홉들이 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라는 말. ‘대승’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제주도에 전승되었다.
 26) ‘케파장’은 “마을 공동목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말. 달리 ‘유사’^(有司)라고 이르는 수도 있었다.
 27) ‘새왓’은 “초가지붕을 덮는 풀인 ‘새’(띠)를 생산하는 밭”이라는 말.
 28) ‘출왓’은 “마소의 월동 사료인 ‘출’을 가꾸거나 자라는 밭”이라는 말. ‘출’은 주로 겨울에 말이나 소에게 먹이는 마른 풀이라는 말이다. ‘출’은 ‘출왓’이라는 일정한 밭에서 생산하였다.
 29) ‘새왓’은 “초가지붕을 덮는 풀인 ‘새’(띠)를 생산하는 밭”이라는 말.
 30) ‘출왓’은 “마소의 월동 사료인 ‘출’을 가꾸거나 자라는 밭”이라는 말. ‘출’은 주로 겨울에 말이나 소에게 먹이는 마른 풀이라는 말이다. ‘출’은 ‘출왓’이라는 일정한 밭에서 생산하였다.
 31) ‘출’은 “주로 겨울에 말이나 소에게 먹이는 마른 풀”이라는 말. ‘출’은 ‘출왓’이라는 일정한 밭에서 생산하였다.

도두리의 변동과 주민자치의 좌절

일제강점기 정부는 도두리(道頭里) 7개 동네를 2개 마을로 나누어지고 말았다. [도1] 도두리는 서동, 중동, 동동, 다호동, 사수동만을 남겨놓고, 도두리 상동과 백개동은 내도리(內都里) 현사동(峯은모살)과 함께 이호리(梨湖里)가 되었다. 그리고 도두리 사람들이 자치적으로 선임하였던 ‘으뜸’[尊位], 경민장(警民長), 감관(監官)을 해직시키고, 경민장 자리에 구장(區長), 감관 자리에 순사(巡査)를 배치하였다. 경민장과 감관은 도두리 존위가 도두리 사람들의 뜻을 모아 선임(選任)한 사람이라면, 구장과 순사는 일제강점기 정부에서 지명하거나 파견된 사람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뜻이 존중되는 ‘마을 중심 사회 도두리’는 순식간에 ‘국가 중심 사회 도두리’가 되고 말았다. 국가 중심 사회의 경찰 행정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기유(己酉, 1909년) 12월, 도두리는 제주경찰서 낙성 의연금 10냥을 『동전설치구별책(洞錢設置區別冊)』에 기록하였다³²⁾. 그리고 도두리 순사(巡査)가 대시(大屍)를 조사하고 매장하면서 쓴 돈 31냥 6전 5푼을 『동전설치구별책(洞錢設置區別冊)』에 기록하였다³³⁾. [도2] 이제 일제강점기 정부는 제주도 마을마다 의연금을 받은 돈으로 제주경찰서를 세우기에 이르렀고, 마을마다 파견된 순사의 무력시위(武力示威)를 앞세워 마을 중심의 제주 사회를 국가 중심의 제주 사회로 탈바꿈시켜 나갔다. 그리고 도두리 어장을 소유하고 있는 어로 집단 구성원이 스스로 처리하던 ‘영장’을 ‘순사’(巡査)가 처리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영장’ 처리 비용 31냥 6전 5푼은 마을의 살림 밑천이었다. 마을의 살림 밑천으로 도두리 ‘영장’을 처리하였지만, 도두리 어장은 도두리 소유가 아니고, 일제강점기 정부 소유가 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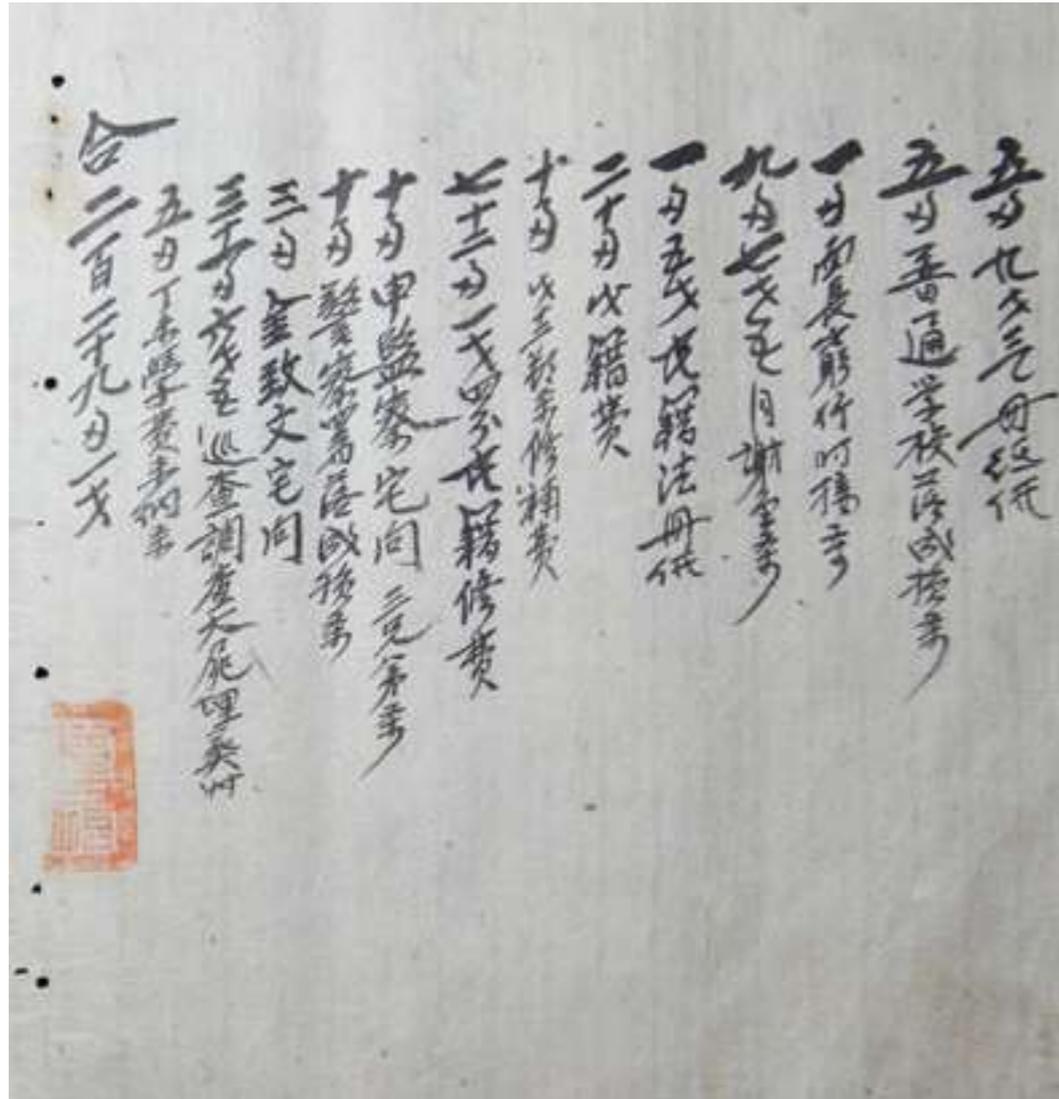
일제강점기 정부의 뜻에 따라 도두리 7개 동네가 도두리(道頭里)와 이호리(梨湖里)로 분리되었듯, 본향당(本鄉堂)도 분리되고 말았다. 지금의 제주시 이호1동 ‘백개동’



[도1] 일제강점기 이전 도두동의 구조

32) 警察署落成損條 『동전설치구별책(洞錢設置區別冊)』.

33) 巡査調査大屍埋葬時 『동전설치구별책(洞錢設置區別冊)』.



[도2] 기유(己酉, 1909년) 12월, 『동전설치구별책』(洞錢設置區別冊)(일부)

사람들은 백개포구 동쪽 갯가에 본향당을 모셨다. ‘백개동’ 사람들은 이 본향당을 ‘붉은왕돌할망당’이라고 하였다. ‘붉은왕돌할망당’은 바닷가 바위와 팽나무를 의지하여 마련하였다. 바위 앞에 시멘트로 제단을 축조하였고, 신목(神木)인 팽나무에는 지전(紙錢)과 오색 천을 걸어두었다. 주위에는 잡석으로 높게 담을 에워 두른 뒤에 틈새에 시멘트를 발라 보강하였다.³⁴⁾

‘붉은왕돌할망당’은 도두봉 허리에 좌정한 ‘송씨할망한집’에서 갈라온 본향당(本鄉堂)이었다. ‘송씨할망한집’은 일제강점기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 도두리 사람들의 물고, 호적, 생산을 차지하였던 본향당이었다. 일제강점기 정부가 들어선 이후, 도두리 7개 동네가 분리되면서 본향당도 분리되고 말았다. 이 당에 모신 신은 ‘백개동’ 사람들의 물고, 호적, 생산을 차지한 본향당의 ‘당신’(堂神)이었다.

34) 강정식, 「민속유적 II」 『濟州市文化遺蹟分布地圖 解說集』(濟州市·濟州大學校博物館, 1998), 368-369쪽.

초산(草山)에서 목산(木山)으로

제주도 한라산, 산방산, 곶을 제외한 오름을 포함한 산야는 원래 풀이 자라는 ‘초산’(草山)이었고, 한라산(漢拏山), 산방산(山房山), 그리고 ‘곶’은 나무가 자라는 ‘목산’(木山)이었다. 제주도 사람들의 전통적인 ‘초산’ 이용을 ‘ㄷ랑쉬오름’의 사례로 대신하고자 한다. [도3]

‘월랑동’³⁵⁾

- 월랑동’은 행정구역상 세화리에 속한 ‘ㄷ랑쉬오름’³⁶⁾ 주변에 있던 외딴 동네 이름이라는 말이다.
- ‘월랑동’은 ‘ㄷ랑쉬오름’³⁷⁾과 ‘주그물곶’³⁸⁾에 10여 가호가 거주하였다.
- ‘월랑동’ 사람들은 ‘빌렛물통’을 식수로 삼았고, ‘즌곶’을 우마 급수용 우물로 삼았다.
- ‘월랑동’ 사람들의 주된 생계 수단은 마소 가꾸기였다.
- ‘월랑동’ 사람들은 ‘제주사삼국가폭력사건’³⁹⁾까지는 소 250마리, 말 200마리를 가꾸면서 생계를 도왔다.

35) 1997년 12월 31일, 세화리 김병수(1917년생, 남) 씨에게 가르침 받았다.

36) ‘ㄷ랑쉬오름’은 “구좌읍 세화리 산 6번지에 있는 ‘오름’ 이름”이라는 말. ‘오름’은 화산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화산재로 된 낮은 산이라는 말이다.

37) ‘ㄷ랑쉬오름’은 “구좌읍 세화리 산 6번지에 있는 ‘오름’ 이름”이라는 말. ‘오름’은 화산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화산재로 된 낮은 산이라는 말이다.

38) ‘주그물곶’은 “‘ㄷ랑쉬오름’ 남쪽이면서 구좌읍 세화리와 구좌읍 송당리 경계 지점에 있는 수림지대”라는 말. ‘ㄷ랑쉬오름’은 구좌읍 세화리 산 6번지에 있는 ‘오름’ 이름이라는 말이다. ‘오름’은 화산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화산재로 된 낮은 산이라는 말이다.

39) ‘제주사삼국가폭력사건’은 “1948년부터 1954년까지, 제주도에서 일어난 민중 항쟁에서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라는 말.



[도3] 「별발조점」(別防操點),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 마소를 ‘드랑쉬오름’에 풀어놓고 먹이다가 ‘즌뫓’에 물만 먹였다.
- ‘드랑쉬오름’ ‘굼부리’⁴⁰⁾에는 ‘뱃담’⁴¹⁾이 둘러 있는데, 이것은 백 씨 조방장(助防將)이라는 사람이 ‘바령뱃’⁴²⁾으로 삼았던 곳이었다.

‘아끈드랑쉬오름’⁴³⁾

- ‘아끈드랑쉬오름’은 구좌읍 세화리 2593-1번지에 있는 ‘오름’ 이름이라는 말이다. ‘오름’은 화산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화산재로 된 낮은 산이라는 말이다. ‘아끈드랑쉬오름’ 서쪽에 ‘드랑쉬오름’이 있다. ‘아끈드랑쉬오름’은 ‘드랑쉬오름’보다 작은 오름이라는 말이다. ‘아끈드랑쉬오름’의 ‘아끈’은 ‘작은’의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 ‘아끈드랑쉬오름’은 세화리 공동 소유 ‘출왓’⁴⁴⁾이었다.
- 세화리에서는 해마다 마을 사람들에게 ‘출’⁴⁵⁾ 채취권을 팔아 마을 공금을 마련하였었다.
- ‘출’을 수확할 때 한 사람이 마을로부터 낙찰받았고, 여러 사람에게 돈을 모아 대금을 마을에 물었다.

40) ‘굼부리’는 “‘오름’에 화산 폭발로 움푹 파진 분화구나 분지”라는 말. ‘오름’은 화산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화산재로 된 낮은 산이라는 말이다.

41) ‘뱃담’은 “밭의 경계를 짓거나, 마소를 밭 안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마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밭을 둘러싸고 쌓은 돌담”이라는 말.

42) ‘바령뱃’은 “소의 배설물로 지력을 회복하기 위하여거나 목장의 풀이 함부로 소의 밭에 밟히지 않게 밤에만 소를 몰아넣는 밭”이라는 말.

43) 1997년 12월 31일, 세화리 김병수(1917년생, 남) 씨에게 가르침 받았다.

44) ‘출왓’은 “마소의 월동 사료인 ‘출’을 가꾸거나 자라는 밭”이라는 말. ‘출’은 주로 겨울에 말이나 소에게 먹이는 마른 풀이라는 말이다. ‘출’은 ‘출왓’이라는 일정한 밭에서 생산하였다.

45) ‘출’은 “주로 겨울에 말이나 소에게 먹이는 마른 풀”이라는 말. ‘출’은 ‘출왓’이라는 일정한 밭에서 생산하였다.

- 여러 사람이 ‘출왓’을 나누고 각자 ‘출’을 베었다.
- 일제강점기 한때 식목(植木)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 제주도에서 일주도로 포장이 한창일 때 돈 20만 원을 내면 속히 포장을 해주겠다니, 15만 원을 받고 ‘아끈드랑쉬오름’을 외지인에게 팔았다.
- 그리고 세화리 미역 어장을 해녀들에게 5년 동안 채취할 조건으로 팔아 5만 원까지 마련하여 세화리 구간(區間)의 일주도로를 포장하였다.

잠데(쟁기)에서 경운기(耕耘機) 시대로

‘뱃볼림’의 변천사⁴⁶⁾

- ‘뱃볼림’은 여름 농사로 밭벼나 조를 파종할 때 마소의 발로 밟아 지면을 고르거나 흙을 덮는 일이라는 말이다.
- 삼달2리 강태춘(1932년생, 남) 씨는 ‘녹산장’⁴⁷⁾에서 말 20, 30마리를 풀어놓고 가꾸었다.
- 육지 사람들은 곡식 운반 목적으로 제주도에서 말을 사 갔다.
- 1970년대에 경운기가 나오면서부터 육지 사람들이 말을 사고 가는 일도 없게 되었다. [도4]
- 삼달2리 강태춘(1932년생, 남) 씨는 1970년 전후까지 말로 남의 밭을 ‘뱃볼림’하면서 생계를 도왔다.

46) 2009년 7월 31일, 삼달2리 강태춘(1932년생, 남) 씨에게 가르침 받았다.

47) 녹산장은 “조선 후기 때 가시리(표선면) 지경 대록산과 성읍리(표선면) 지경 따라비오름 사이 평원에 있었던 말 목장 이름”이라는 말.



[도4] 제주도 동력경운기 기술교육 수료 기념(1968년 9월 21일)

- 한국 농촌사회에 경운기 등장으로 삼달2리 강태춘(1932년생, 남) 씨는 말을 가꿀 소용도 없게 되었다. 그 이후 ‘남테’⁴⁸⁾가 등장하였다.
- 하천리 농고(農高) 출신이 ‘끄서귀’⁴⁹⁾를 고안(考案)하여 밭의 지면을 고르거나 씨앗을 묻는 일도 생겼다.

‘출왓’⁵⁰⁾

- ‘출왓’은 마소의 월동 사료인 ‘출’을 가꾸거나 자라는 밭이라는 말이다. ‘출’은 주로 겨울에 말이나 소에게 먹이는 마른 풀이라는 말이다.
- 상도리 고순표(1915년생, 남) 씨는 종달리 지경 ‘용눈이’⁵¹⁾에 2천 평짜리 ‘새왓’⁵²⁾에서 1년에 ‘출’ 50 ‘바리’⁵³⁾, 그리고 상도리 지경에 있는 ‘선수머세’ 지경 3천 평짜리에서 1년에 65 ‘바리’ 정도를 생산하였다.
- 상도리 사람들은 추분(9월 23일경) 때 ‘출’을 거두어들이고 난 ‘출그르’⁵⁴⁾는 소의 방목지로 활용되었다.
- ‘출왓’ 주인은 소 방목지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

48) ‘남테’는 “둥근 나무토막에 굵은 나뭇가지를 돌아가며 수없이 박아 붙여 만든 도구”라는 말. 굴려서 밭 따위의 토양을 다지는 데 쓰는 도구이다.

49) ‘끄서귀’는 “길쭉길쭉한 잎나무를 수없이 함께 엮어 부채 모양으로 만들어, 뿌린 씨를 묻고 밭이랑을 고르는 데 쓰는 도구”라는 말.

50) 2006년 3월 7일, 상도리 고순표(1915년생, 남) 씨에게 가르침 받았다.

51) ‘용눈이’는 “구좌읍 종달리 산 25번지에 있는 ‘오름’ 이름”이라는 말. ‘오름’은 화산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화산재로 된 낮은 산이라는 말이다.

52) ‘새왓’은 “초가지붕을 덮는 풀인 ‘새’가 자라는 밭”이라는 말.

53) ‘바리’는 “한 마리의 소에 실을 수 있는 짐 또는 짐의 단위”라는 말. 지역에 따라 그 수량이 다르다.

54) ‘출그르’는 “‘출’을 베어낸 버린 빈 밭”이라는 말. ‘출’은 주로 겨울에 말이나 소에게 먹이는 마른 풀이라는 말이다. ‘출’은 ‘출왓’이라는 일정한 밭에서 생산하였다.

- 상도리 사람들은 망종(6월 6일경) 무렵에 ‘출왓’ 돌담을 정비하였다. 이를 “‘출왓담’⁵⁵⁾, ‘추린다’⁵⁶⁾”고 하였다.
- 이때부터 방목(放牧)을 위하여 누구라도 소를 ‘출왓’에 들여놓을 수 없게 되었다.
- 상도리 사람들은 망종(6월 6일경) 이전에 ‘에움’⁵⁷⁾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출왓’이나 ‘새왓’을 ‘에움’으로 활용하는 일도 있었다.
- 암소 한 마리가 겨울을 나는 데 ‘출’⁵⁸⁾ 서른 ‘바리’⁵⁹⁾, 수소 한 마리가 겨울을 나는 데 ‘출’ 십 ‘바리’⁶⁰⁾까지 먹었다.
- 상도리 사람들은 ‘출’ 서른 ‘못’⁶¹⁾을 한(한) ‘바리’⁶²⁾라고 하였다.
- 하루에 ‘낫’⁶³⁾으로 한 사람이 20~30 ‘바리’⁶⁴⁾를 벨 수 있었다.
- 몰테역(방동사니)이 많은 ‘출왓’에서는 ‘낫’⁶⁵⁾이 무끼는(무디는) 일도 있었다.

55) ‘출왓담’은 “‘출왓’의 발담”이라는 말.

56) ‘추린다’의 ‘추리다’는 “돌담 따위가 헐린 곳을 잘 수습하여 원상태가 되게끔 하다”라는 말.

57) ‘에움’은 “밤에 소를 가두어 놓으려고 돌담으로 둘레를 빙 둘러 경계를 지어놓은 밭”이라는 말. ‘에움’은 일소 공동 방목 집단이 공동으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일소를 방목하는 집단을 ‘에움집’이라 하였다. ‘에움집’은 수소보다 암소를 비교적 많이 가꾸는 제주도 동부지역에서 전승되는 일이 많았다.

58) ‘출’은 “주로 겨울에 말이나 소에게 먹이는 마른 풀”이라는 말. ‘출’은 ‘출왓’이라는 일정한 밭에서 생산하였다.

59) ‘바리’는 “한 마리의 소에 실을 수 있는 짐 또는 짐의 단위”라는 말. 지역에 따라 그 수량이 다르다.

60) ‘바리’는 “한 마리의 소에 실을 수 있는 짐 또는 짐의 단위”라는 말. 지역에 따라 그 수량이 다르다.

61) ‘못’은 “곡식이나 풀 따위의 묶음의 단위”라는 말.

62) ‘바리’는 “한 마리의 소에 실을 수 있는 짐 또는 짐의 단위”라는 말. 지역에 따라 그 수량이 다르다.

63) ‘낫’은 “남정네들이 곧장 서섯 ‘출’ 같은 것을 베는 자루가 긴 낫”이라는 말. ‘출’은 주로 겨울에 말이나 소에게 먹이는 마른 풀이라는 말이다. ‘출’은 ‘출왓’이라는 일정한 밭에서 생산하였다.

64) ‘바리’는 “한 마리의 소에 실을 수 있는 짐 또는 짐의 단위”라는 말. 지역에 따라 그 수량이 다르다.

65) ‘낫’은 “남정네들이 곧장 서섯 ‘출’ 같은 것을 베는 자루가 긴 낫”이라는 말. ‘출’은 주로 겨울에 말이나 소에게 먹이는 마른 풀이라는 말이다. ‘출’은 ‘출왓’이라는 일정한 밭에서 생산하였다.

- ‘출’⁶⁶⁾을 소작하는 일을 ‘반작’이라고 하였다.
- 소작인이 묶는 일까지 끝내고 나서 주인과 밭에서 갈랐다.
- ‘출왓’⁶⁷⁾ 주인은 ‘출’ 3분의 1을 차지하였고, 소작인이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을 ‘삼분파’라고 하였다.
- ‘반작’과 ‘삼분파’는 ‘출왓’의 정도에 따라 서로 달랐다.

해녀 채취 대상물의 변동

메역(미역)을 비단으로 여기다

- 1998년 3월 23일, 신흥리 해녀 박희옥(1923년생) 씨에게 해녀 채취물에 따른 바다와 어법을 가르침 받았다. 신흥리는 조천읍에 속하는 행정리이자 법정리이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조천리와 함덕리 일부를 분리, 통합하여 신흥리(新興里)라는 마을이 생겨났다. 신흥리 소유 해녀 바다는 조천리와 경계 지점 ‘개독강’부터 함덕리와 경계 지점 ‘드릿개’까지였다. ‘개독강’은 조천리와 경계 지점에 있는 바다 이름이라는 말이다. ‘드릿개’는 함덕리와 경계 지점에 있는 바다 이름이라는 말이다.
- 메역(미역)은 ‘새배’⁶⁸⁾에 하영(쌓이) 납네다(납니다).

66) ‘출’은 “주로 겨울에 말이나 소에게 먹이는 마른 풀”이라는 말. ‘출’은 ‘출왓’이라는 일정한 밭에서 생산하였다.

67) ‘출왓’은 “마소의 월동 사료인 ‘출’을 가꾸거나 자라는 밭”이라는 말. ‘출’은 주로 겨울에 말이나 소에게 먹이는 마른 풀이라는 말이다. ‘출’은 ‘출왓’이라는 일정한 밭에서 생산하였다.

68) ‘새배’는 “신흥리 가운데 있는 바다 이름으로 ‘가문알코지’부터 ‘큰개’까지 바다 이름”이라는 말. ‘가문알코지’는 신흥리 포구 서쪽이면서, 신흥리 766번지 가까운 바다에 있는 ‘코지’ 이름이라는 말이다. ‘코지’란 바다 가운데로 뽕족하게 나간 갯바위거나 육지라는 말이다. ‘큰개’는 신흥리 포구가 있는 후미진 바다 이름이라는 말이다.

- 음력 3월에 즈네[漚女]덜이 ‘물에들엉’⁶⁹⁾, ‘중게호미’⁷⁰⁾로 ‘빚네다’⁷¹⁾.
- 옛날 어른덜은 메역(미역)을 비단으로 알아수다(알았습니다).

듬복(거름 해조류) 때문에 마을도 갈리다’⁷²⁾

- ‘뭍통’은 거름 해조류가 파도를 타고 밀려드는 갯가에 있는 뭍통이라는 말이다.
- 일과리는 1937년 ‘뭍통’ 소유 분쟁으로 말미암아 일과1리와 일과2리로 하나의 마을이 쪼개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현재 일과1리 바다는 ‘텃갯머리’부터 ‘텃개’까지, 그리고 일과2리 바다는 ‘텃개’부터 ‘한양개족은덕’까지이다. 일과2리 ‘뭍통’은 ‘모살늪’⁷³⁾, ‘은물’⁷⁴⁾, ‘한양개’⁷⁵⁾였다.
- 해마다 일과2리 사람들은 ‘뭍통’을 마을 사람들에게 ‘뭍’⁷⁶⁾ 채취권을 팔았다.
- ‘뭍통’ 관리 대표자를 ‘뭍통장’이라고 하였다.

69) ‘물에들엉’의 ‘물에들다’는 “해녀들이 해산물을 캐기 위해 물질하다”라는 말.
 70) ‘중게호미’는 “슴베를 자루 바깥 한쪽에 박아 철사 따위로 단단하게 묶어 만든 낚시”이라는 말. 자루 바깥 한쪽에 박고 철사 따위로 단단하게 묶어야 바닷물 속에서도 쉬 빠지지 않는다.
 71) ‘빚네다’의 ‘비다’는 “해녀들은 ‘중게호미’라는 낚시로, 그리고 어부들은 ‘줄아시’라는 낚시로 거름으로 쓸 해조류 따위를 베다”라는 말. ‘중게호미’는 슴베를 자루 한쪽에 박아 철사 따위로 단단하게 묶어 만든 낚시라는 말이다. 자루 바깥 한쪽에 박고 철사 따위로 단단하게 묶어야 바닷물 속에서도 쉬 빠지지 않았다. ‘줄아시’는 거름으로 쓸 잔가시모자반을 채취하는 기다란 낚시라는 말이다.
 72) 2010년 3월 12일, 일과2리 문상선(1930년생, 남) 씨에게 가르침 받았다.
 73) ‘모살늪’은 “일과2리 바닷가 ‘텃개’와 ‘은물’ 사이 후미진 개”라는 말.
 74) ‘은물’은 “일과2리 바닷가 ‘모살늪’ 서쪽에 있는 용출수가 있는 바다 이름”이라는 말.
 75) ‘한양개’는 “영락리와 바다 경계 지점에 있는 바다 이름”이라는 말.
 76) ‘뭍’은 “거름 해조류”라는 말.

- ‘셋브름’⁷⁷⁾과 마브름(마파람)이 불면 ‘뭍’은 ‘뭍통’으로 몰려들었다.
- ‘뭍통’ 2개마다 책임자 한 사람을 ‘뭍통장’이라고 하였다. ‘뭍통장’의 진두지휘에 ‘뭍’⁷⁸⁾을 채취하고 서로 나누었다.
- 1937년 지금의 일과2리 사람들이 ‘텃개’ 동쪽에 있는 ‘능개물’의 ‘뭍’을 50 집을 채취하여 소유하는 바람에 분쟁이 일어났다.
- 일과1리 사람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과는 일과2리가 승소하였다. 지금도 일과2리 사무소에는 그 당시 제주지방법원 재판 기록을 간직하고 있었다.

‘감태무레’의 등장

‘감태무레’는 ‘헛무레’의 일종으로 해녀들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막연히 감태를 채취하는 물질이라는 말이다. ‘헛무레’는 해녀들이 막연히 소라, 전복, 물고기 등을 잡는 물질이라는 말이다.

1900년대 초까지 일본·국방성은 유럽에서 질산칼륨을 수입하였다. 그 당시 질산칼륨은 전쟁물자로 작용하였다. 일본의 상선(商船)들이 유럽에서 일본으로 질산칼륨을 운송하였다. 1904년에 러일전쟁이 일어났다. 러시아의 함대가 태평양과 인도양에서 일본 상선들의 운송을 차단하였다. 일본은 질산칼륨 수입이 막혔다. 질산칼륨의 부족 현상은 태평양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어졌다. 일본·국방성은 질산칼륨 대신 요오드화칼륨을 얻으려고 애썼다.

일본·국방성은 제주도의 감태 확보에 박차를 가하였다. 일본·국방성이 필요로 하는 요오드 칼륨은 1년에 6~7만 파운드(27,180~31,710kg). 그중 제주도의 감태에

77) ‘셋브름’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는 말.
 78) ‘뭍’은 “거름 해조류”라는 말.

서 1만 파운드(4,530kg)의 요오드화칼륨을 확보한다[타카하시 노보루(高橋昇, 1892-1946), 『朝鮮半島の農法과農民』, 1998].

제주도 해녀들은 일본·국방성이 필요로 하는 감태(또는 다시마) 생산의 선봉에 섰다. 제주도 해녀들은 감태와 다시마를 채취하기 위하여 한반도, 일본열도, 러시아, 그리고 중국까지 진출하였다.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조선총독부 농공상부, 1910년)는 제주도의 감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예로부터 제주도 사람들은 감태를 채취하지 않았다. 일본인이 감태를 사니, 이것을 채취하기에 이르렀다. 성산포에 한국물산회사(韓國物産會社)를 설립하고 요오드(沃度) 제조업을 시작하였다. 그 당시 목사(牧使)에게 의뢰하여 훈령(訓令)을 내려 감태 채취를 장려한 결과 그 채취가 크게 늘었다.

예로부터 제주도 사람들이 감태를 채취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바람에 갇가로 떠밀려 온 감태 더미를 채취하여 거름으로 이용하였다. 여기에서 감태를 채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해녀들이 물속으로 들어가 감태를 따지 않았다는 말이다. 1905년에 성산포에 들어선 한국물산회사는 소위 말하는 ‘감태공장’이었다. 이때부터 제주도 해녀들은 ‘감태무레’로 감태를 채취하였다. 1916년에 일본인 코가네 마루 히로요시(小金丸汎愛)가 발표한 「해조생산조사」(海藻生産調査), 『조선휘보(朝鮮彙報), 12월호, 136쪽』에는, 제주도 해녀들의 감태 채취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

제주도 연안의 어업권은 해당 마을 사람들에게 있다. 마을 해녀들은 바다로 헤엄쳐 나가 감태를 따다. 해녀들은 약 4미터에서 10미터까지 물속으로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였다. 우량(優良)의 감태는 수심 12~13m까지 들어가 따내기도 하였다. 떼 한 척에 남자 1명, 해녀 2~3인이 탔다. 남자는 배의 진퇴를 다루었다. 해녀들은 ‘망사리’가 달린 ‘테왁’을 짚고 나가서, ‘눈’(水鏡)을 쓰고 잠수하여 ‘증게호미’로 ‘감태’를 채취하였다. 이것을 떼에 실었다. 배 가득 차면 육상으로 올려놓고 말렸다. 떼는 물론 풍선으로도 감태를 따다. 1개월에 한 해녀의 채취량은 약 100관 정도였다.

「미개의 보고 제주도」(未開の寶庫 濟州島, 전라남도 제주도청, 1924년)는, 제주도 해녀들이 감태 채취가 한창 이루어지던 1916년과 1917년의 제주도 경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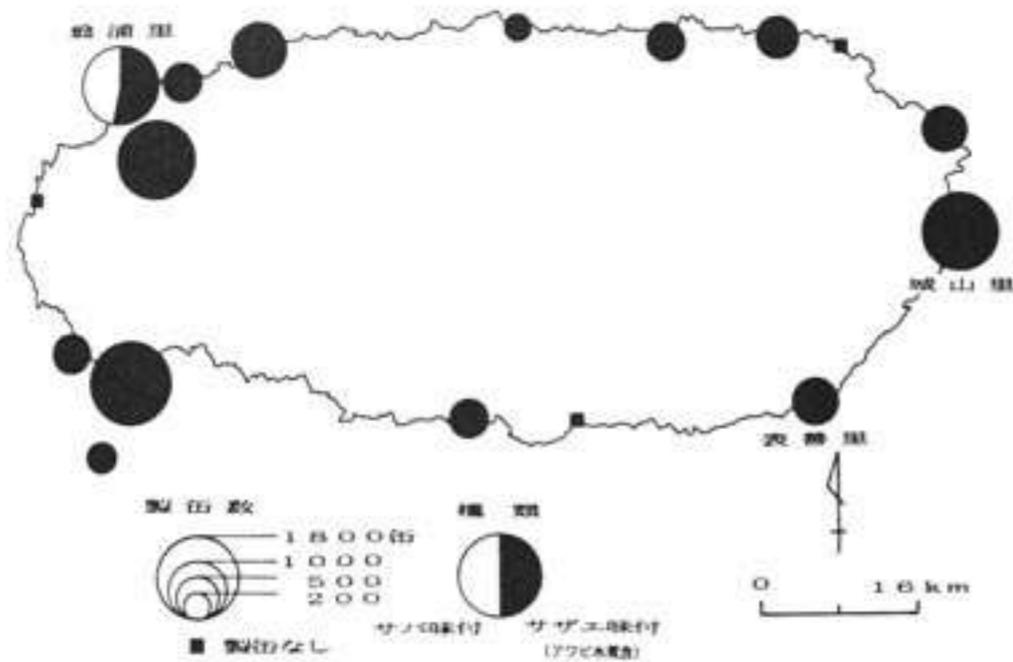
1916년, 유럽대전(제1차 세계대전) 덕택에 지금까지 비료로밖에 써먹지 못했던 감태(요오드의 원료) 시세가 점점 상승하여 반출액(搬出額)이 10수만 원을 웃돌았다. 거기다가 전년의 보리·조 농사도 먹고 남을 만큼 풍작이었기에 거지는 아주 자취를 감추었다. 1917년, 차츰 경기가 좋아진 제주도는 새해에 접어들면서 감태 시세가 더욱 상승, 점점 호경기를 보게 되었다.

‘구제기무레’의 등장

‘구제기무레’는 제주도 해녀들이 물속으로 들어가 맨손으로 또는 ‘골갱이’라는 호미로 소라를 잡아내는 도구라는 말이다. 제주 역사 속에서 소라는 진상 품목에 들지 않았다. 그러니 제주 역사 속에서 제주 해녀 사회에서 ‘구제기무레’는 존재할 필요가 없었다.

조선 시대 때, 제주 해녀들에게는 판매와 진상을 위한 미역과 전복, 스스로 먹기 위한 모자반, 발에 거름으로 쓰기 위한 해조류 등이 주요한 채취물이었다. 1911년 강제 병합 직후 자료 「남선보굴제주도」(南鮮寶窟濟州島)에는 전복 30톤, 해삼 33.9톤의 생산량을 기록하였다. 이때까지도 제주도 해녀 사회에서 ‘구제기무레’는 존재하지 않았다. 1930년 자료 「제주도의 경제」(濟州島の經濟)에는 전복 1,162톤, 해삼 131톤으로 증가하였고, 이전에는 채취하지 않던 소라 562톤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때까지도 제주도 해녀 사회에서 소라 생산량은 전복 생산량에 절반 정도에 그쳤다.

1937년 『제주도세요람』(濟州島勢要覽)에 따르면, 1936년 현재 전복 생산량은 132,728톤(가격 49,733원), 소라 생산량은 1,786,828톤(가격 111,677원)으로 나타났다. 드디어 제주 해녀 사회에서 소라 생산량은 전복 생산량보다 13.5배 많았다. 제주



[도5] 제주도 구제기통조림공장 분포도[카와하라노리후미(河原典史)가 『靑丘學術論集』(청구학술논집, 2001)에 발표한 「식민지기의 제주도에 있어서 일본인 어민 활동」(植民地期の濟州島における日本人漁民の活動) 논문에서]

도 해녀 생산물 중에서 구제기는 단연 꼭대기에 올랐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제주 해녀 사회에서 ‘구제기무레’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제주도 소라는 일본군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소라 간스메(통조림) 공장이 여기저기 들어섰기 때문이었다. 『일본수산물통조림제조업요람』(日本水産物罐詰製造業要覽, 일본·농림성수산물국, 1934)에 따르면, 1933년 현재 제주도에 소라 통조림공장은 17곳에 들어섰다. [도3]

소라 통조림공장은 가파도에서 들어섰다. 마라도 김창부(1912년생, 여) 어르신 가르침에 따르면, 김 씨가 15세가 되는 해인 1928년에 가파도에 소라 통조림공장이 들어섰는데, 가파도와 마라도 해녀들은 그 덕택에 큰돈을 벌기 시작하였다.

소라 통조림공장에서 소라 수량과 값을 적어 놓은 유가증권 같은 ‘만보’는 구제기를 팔러온 해녀에게 한 장씩 주는 딱지였다. 15일마다 딱지의 수효대로 값을 계산하였다. 구좌읍 행원리 해녀 홍복순(1931년생, 여) 어르신은 ‘만보’를 ‘구제기표’라고 하였다. ‘구제기표’는 구좌읍 세화리나 김녕리 오일장에서 현금 대접을 받았다.

‘성게무레’의 등장

‘성게무레’는 ‘헛무레’의 일종으로 해녀들이 막연히 성게를 채취하는 작업이라는 말이다. ‘헛무레’는 해녀들이 막연히 소라, 전복, 물고기 따위를 잡는 물질이라는 말이다.

조천읍과 구좌읍 해녀들은 성게를 ‘귀’라고 하였다. 조천읍과 구좌읍 해녀 어장에는 말뚝성게, 보라성게, 분홍성게가 분포하였다. 조천읍과 구좌읍 해녀들은 말뚝성게를 ‘숨’, 보라성게를 ‘귀’, 그리고 분홍성게를 ‘붉은귀’라고 하였다.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천읍과 구좌읍 해녀들은 ‘숨’(말뚝성게)만 조간대 하층에서 잡았을 뿐이었다. 조천읍과 구좌읍 해녀들이 잠수하여 ‘귀’(보라성게)와 ‘붉은성게’를 잡기는 1965년대 이후 대일(對日) 수출의 길이 열리면서부터 시작하였다. 1965년부터 1970년까지는 소금에 절인 성게의 알을 수출하였고, 1971년부터는 소금에 절이지 않은 성게의 알을 나무상자에 담아 수출하였다. 조천읍과 구좌읍 해녀들은 나무상자에 담은 성게의 알을 ‘곽성게’라고 하였다.

오조리 해녀 사회의 ‘성게무레’

- 1998년 4월 3일, 오조리 현금난(1932년생, 여) 씨에게 오조리 해녀 바다와 어법 들을 가르침 받았다. 오조리 바다는 서쪽으로 시흥리(성산읍)과 경계 지점 ‘하논코’부터 동쪽으로 성산리(성산읍)과 경계 지점 ‘동축항곶’까지였다. ‘하논코’는 시흥리 210번지에 있는 지경과 그 주변 바다 이름이라는 말이다.

1998년 현재, 오조리에는 30명 해녀가 물질하면서 생계를 돕고 있었다.

- 붉은귀(분홍성계)는 껍데기(겉껍데기)가 붉은 거주(것이지). 색깔도 붉으곡(붉고), 여물(알)도 훗곡(굵고), 여물(알)이 헤클아지지도(헝클어지지도) 아니 햅주(얇지).
- 1965년부터 잡기 시작 햅젓주(시작하였지).
- 음력 5월부터 음력 10월 수시(무렵)에 붉은귀(분홍성계) 잡앗주(잡았지).
- 붉은귀(분홍성계)는 음력 10월 넘어가민 “고름 피다”고 햅젓주(하였지). 붉은귀(분홍성계)가 ‘고름 피민’⁷⁹⁾ 맛이 씨주(쓰지).
- 붉은귀(분홍성계)는 ‘보섭부리’⁸⁰⁾, ‘한여’⁸¹⁾, ‘새여’⁸²⁾에 하주(많지). 붉은귀(분홍성계)는 물이 짙은 디(데)만 싯주(있지).
- 붉은귀(분홍성계)는 검은귀(보라성계) 값보다 배 비싸낫주(비쌌었지).

‘독고달무레’와 ‘고장풀무레’의 등장

‘독고달무레’는 ‘헛무레’의 일종으로 해녀들이 막연히 갈래곰보를 채취하는 작업이라는 말이고, ‘고장풀무레’는 ‘헛무레’의 일종으로 해녀들이 막연리 벧붉은잎을 채취하는 잡업이라는 말이다. ‘헛무레’는 해녀들이 막연히 소라, 전복, 물고기 따위를 잡는 물질이라는 말이다.

79) ‘고름 피민’의 ‘고름 피다’는 “성계가 알을 낳다”라는 말.
 80) ‘보섭부리’는 “성산항 바깥 방파제 동쪽에 있는 바다 이름”이라는 말.
 81) ‘한여’는 “성산항 가로 방파제 서쪽 끝에 있는 ‘여’ 이름”이라는 말. ‘여’는 바닷물 속에 잠겨 있거나 조수가 크게 썰 때 드러나는 바위라는 말이다. ‘한여’는 “성산항 가로 방파제 서쪽 끝에 있는 ‘여’ 이름”이라는 말. ‘여’는 바닷물 속에 잠겨 있거나 조수가 크게 썰 때 드러나는 바위라는 말이다.
 82) ‘새여’는 “성산항 바깥 방파제 동북쪽에 있는 바다 이름”이라는 말. 오조리 해녀들은 ‘새여’는 ‘안새여’와 ‘뱃새여’로 구분하기도 한다.

오조리 해녀 사회의 ‘독고달무레’와 ‘고장풀무레’

- 1998년 4월 3일, 오조리 현금난(1932년생, 여) 씨에게 오조리 해녀 바다와 어법 들을 가르침 받았다. 오조리 바다는 서쪽으로 시흥리(성산읍)과 경계 지점 ‘하논코’부터 동쪽으로 성산리(성산읍)과 경계 지점 ‘동축항곶’까지였다. ‘하논코’는 시흥리 210번지에 있는 지경과 그 주변 바다 이름이라는 말이다. 1998년 현재, 오조리에는 30명 해녀가 물질하면서 생계를 돕고 있었다.
- 독고달(갈래곰보)
- 오조리 해녀들은 1985년부터 독고달(갈래곰보)을 본격적으로 ‘즈물앗주’⁸³⁾.
- 독고달(갈래곰보)은 음력 3월에 ‘뱃물질’⁸⁴⁾로 ‘즈물앗주’⁸⁵⁾.
- 고장풀
- 고장풀(벧붉은잎)은 음력 3월에 뱃물질로 ‘즈물앗주’⁸⁶⁾.
- ‘고장풀뱃’⁸⁷⁾은 ‘넙여’⁸⁸⁾, ‘곶은덩이’⁸⁹⁾, ‘할곶지’⁹⁰⁾주.

83) ‘즈물앗주’의 ‘즈물다’는 “해녀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해산물 따위를 채취하다”라는 말. 독고달(갈래곰보)은 고장풀(벧붉은잎)과 함께 일본 사회에서 생선회 장식품으로 인기가 높았기 때문이었다. 1985년부터 오조리 해녀들은 대일수출품을 마련하려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독고달’을 따기 시작하였다.
 84) ‘뱃물질’은 “해녀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하는 물질”이라는 말.
 85) ‘즈물앗주’의 ‘즈물다’는 “해녀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해산물 따위를 채취하다”라는 말.
 86) ‘즈물앗주’의 ‘즈물다’는 “해녀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해산물 따위를 채취하다”라는 말.
 87) ‘고장풀뱃’은 “벧붉은잎이 많은 바다”라는 말.
 88) ‘넙여’는 “성산항 바깥 방파제 서쪽에 있는 ‘여’ 이름”이라는 말. ‘여’는 바닷물 속에 잠겨 있거나 조수가 크게 썰 때 드러나는 바위라는 말이다.
 89) ‘곶은덩이’는 “성산항 바깥 방파제 서쪽에 있는 바다 이름”이라는 말. 오조리 해녀들은 ‘곶은덩이’를 ‘안곶은덩이’와 ‘뱃곶은덩이’로 구분하는 일도 있었다.
 90) ‘할곶지’는 “성산항 바깥 방파제 서북쪽에 있는 바다 이름”이라는 말.

- 독고달이영(갈래곰보와) 고장풀이영(벚붉은잎과) ㄱ찌(같이) ‘허채허주’⁹¹⁾. 게민(그러면) ‘상군’⁹²⁾덜은 독고달(갈래곰보), ‘중군덜은’⁹³⁾ 고장풀(벚붉은잎)을 ‘즈물앗주’⁹⁴⁾.

제주어 구술채록으로 제주인의 삶 기록하기

김미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
- 91) ‘허채허주’의 ‘허채허다’는 “채취를 허락하다”의 뜻으로 해산물 따위를 정해진 동안 금지했다가 그것을 해지하다”라는 말.
 - 92) ‘상군’은 “물질하는 기량의 정도가 가장 뛰어난 해녀”라는 말. 기량에 따라 ‘상군’, ‘중군’, ‘하군’으로 나눈다.
 - 93) ‘중군덜은’의 ‘중군’은 ‘중군’은 “물질하는 기량이 중간 정도인 해녀”라는 말.
 - 94) ‘즈물앗주’의 ‘즈물다’는 “해녀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해산물 따위를 채취하다”라는 말.

제주어 구술채록으로 제주인의 삶 기록하기

I. 구술 자료의 의의

1. 최첨단 시대와 구술자료

- 선사시대(구술사): 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시대- 구비전승, 구술, 민담, 설화
- 역사시대(문헌사): 문자 발생 이후의 시대
 - 기록, 역사서, 문헌자료
 - 구술 쇠퇴: 문자의 출현, 종이, 인쇄술의 발달, 실증 사학의 정립
 - 실증주의 역사학: “문서 없이는 역사도 없다.”
문헌자료만 중요 그 외 자료 가치 폄하
- 현대사회: 최첨단 과학의 시대
 - 역사의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
 - 역사 연구의 영역과 관심 서술의 대상은 누구인가?
 - 구술사의 가치 재검토
 - 휴대용 녹음기 등 기술 발달

2. 개념 정의

- 구술: 말로 이야기 하는 것
- 구술 증언: 개인의 과거 특정 사건이나 경험을 현재로 불러내어 서술하는 것
 - 심층면접, 구술사 자료
- 구술 자료: 과거에 대한 개인적인 기억들을 말로 표현한 자료
- 구술 생애사: 한 개인이 태어나면서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경험을 현재로 불러내어 서술하는 것
- 구술사: 개인이나 집단의 기억을 구술(口述), 즉 입으로 말하도록 해 역사적 사실로 정리한 것
- 구비 전승: 여러 세대에 걸쳐 말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종교적 주문, 설화, 구비문학
- 질적 연구방법론: 연구 대상이 행위하고 생각하는 일상에 참여하거나 그 일상을 관찰하면서 연구 대상이 갖고 있는 경험 세계와 가치관을 당사자의 주관적 시각으로 이해하는 연구 방식 ↔양적 연구방법론

- 구술 자료의 의의
 - “기억된 경험”
 - “문자 헤게모니에 저항하는 대항 담론”
 - “과거에 대한 개인적인 기억들의 환기와 기록”
 - “문헌 기록을 남길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재현”
 - “이제까지 이용되지 않았지만 보존할 가치가 있는 구술 기록”

3. 우리나라 구술사의 시작과 제주

- 뿌리깊은나무 <민중 자서전>시리즈(1981-1992)

-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이름 없는 민중이 입으로 쓴 자서전
-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1985) - 5.18 구술 증언 조사
- 이제사 말했수다(1989) - 제주4.3 증언 채록 자료집
- 20세기 민중 생활사 연구단(2003-2006) - 한국민중구술열전:한국학술진흥재단(영남대, 중앙대, 전북대, 목포대, 한국문화인류학회 등 참여)
- 국립국어원 권역별 지역어 조사(2004~2014)
- 국립국어원 민족생활어 조사(2007~2012)
- 제주어 구술채록 조사사업(2014~2016): 12개 읍면 3개 마을씩 36개 마을 조사
- 제주어 구술자료 표준어 대역 사업(2017~2020): 36개 마을 조사 자료 표준어 대역 및 주석 작업
- 해녀, 문학,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구술로 기록

4. 구술 조사의 성격

- 현장성 -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다름
- 공동성 - 구술자와 면담자가 공동 참여하는 결과
- 주변성 - 소외되거나 억압받은 사람들의 기억들을 역사 안으로 인도
- 치유성 - 침묵의 기억에서 구술자를 해방, 치유
- 다양성 - 다양한 삶과 문화가 숨 쉬는 지방의 역사, 지방 문화 탐구

5. 구술 자료의 한계

- 정확성 - 개인의 기억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서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음.
- 객관성 - 주관적인 감정과 생각이 반영되어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음,
 - 문헌 자료는 과연 정확한가?
 - 엘리트, 지배 계층에 의해 기술된 역사 문헌 자료는 객관적인가?

- 대표성-한 명 혹은 소수의 구술자가 그 지역과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가?

☞ 구술사 방법론은 완결적이지 않다.

☞ 문헌자료에 기반을 둔 이론 틀과 상호보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II. 지역어의 가치

1. 방언과 사투리

- 방언: 한 언어에서, 사용 지역 또는 사회 계층에 따라 분화된 말의 체계.
 - 지역 방언: 지리적 영역이 달라서 언어 차이를 보일 때
 - 사회 방언: 사회적 범주를 달리하여 언어 차가 나타날 때
 - 시간 방언: 시간적 영역을 달리할 때-국어사 연구
- 사투리: 표준어가 아닌 것, 해당 언어체계의 일부로 특정 지방에서만 사용되는 말.
- 지역어: 어떤 한 지역의 말. 방언 구획과는 관계없이 부분적인 어떤 지역의 말.
- 토착어: 어느 지역에서 본디 쓰던 언어이자 원주민이 사용하는 언어
- 제주어: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도민의 문화정체성과 관련 있고,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데 쓰는 전래적인 언어

2. 방언의 존재 가치

- 언어 다양성: 생물종 다양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생태계의 균형과 순조로

운 진화의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언어의 진화도 언어의 다양함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언어의 대표와 표준만을 옹호하는 일은 언어의 다양성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이고, 이는 곧 진화에 역행하는 일이다.

- 언어와 정체성: 데이비드 크리스탈(David Crystal)은 ‘언어의 죽음(Language Death)’에서 어떤 소수의 언어든, 언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존재가 힘센 언어에 의해 사라져 가는 것은 ‘비극’을 넘어 ‘재앙’으로 간주하고 있다. 인류의 삶에는 다양성이 필요하고, 다양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언어는 나름의 정체성을 가져야 자연스럽다. 언어는 역사의 저장고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지식 총량에 기여하기 때문에 어떠한 언어든 사라진다는 것은 인류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의미한다.
- 언어의 사멸: 열세 언어와 우세 언어의 접촉으로 열세 언어에 처음 나타나는 현상은 차용어 증가이다. 처음에는 열세 언어에 존재하지 않는 어휘만 차용하지만 점차 차용어의 수와 빈도, 범위가 확대된다. 전문어, 학술용어 등에서 시작하여 일상어까지 잠식된다. 한국어는 중국어로부터 차용어가 많으며 한자어 없이는 언어생활이 불가능하다. 현대에 와서는 많은 어휘가 영어로 차용되고 있으며 영어의 영향력이 계속되고 있다. 표준어와 방언의 관계도 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 방언은 구어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 숨 쉬는 언어
- 언어학적 가치: 언어의 역사적인 변화 과정을 통해 언어의 계통과 변화과정 등을 찾을 수 있음. 제주어의 국어사적 가치.
- 문화적 가치: 민속과 풍속 등 지역적 문화의 표출 방법
- 일상적 가치: 어머니의 언어를 통한 자연스러운 자기표현
- 연대적 가치: 집단의 기억을 상기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결속하는 매개체

3. 방언 조사 방법

- 방언 연구를 위해서는 조사된 자료의 존재가 필수적
- 이미 조사된 자료 이용, 현지 조사를 통한 자료 확보
- 질문법(설문지법, 면담법): 설문이나 면담을 통해 구술 제보자에게서 직접 자료를 구하는 방법
- 참여 관찰법: 일정한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면서 관찰을 통해 제보자의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

III. 구술 조사의 방법

1. 조사 전: 기획

- 무엇을, 왜, 어떻게 할 것인가?
 - 주제 설정, 조사 목표 설정
 - 조사 지역, 조사 기간, 예산, 조사 인력 등
- 조사 준비
 - 조사 내용 항목화
 - 질문지 만들기: 질문의 눈높이를 맞춰라
 - 조사 준비물: 녹음기, 비디오카메라, 카메라, 관련 사진, 필기도구 등

2. 조사 실행

- 예비조사
 - 문헌 자료 정보 수집

- 조사 지역 사전 답사: 마을 현황, 지리 파악
- 예비 조사 대상 방문, 인맥을 통한 소개, 예비 조사자 명단 작성

- 구술자 선정
 - 조사 내용과 목적에 따라 구술자의 조건 결정
 -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함

※ 제주어 구술 조사의 제보자 선정 기준

나이: 80세 이상
 출신지: 그 지역의 토박이(부모와 조부모) 타지역에서 생활하지 않은 사람
 교육 정도: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언어 습관: 발음이 정확해야 함,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 본 조사
 - 시작할 때 기본 정보 녹음하기, 배경 녹화하기
 - 녹음과 녹화는 구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구술자와 신뢰 유지: 시간 약속 엄수
 - 편안한 분위기 조성: 구술자의 집
 - 잘 듣기, 경청의 자세와 맞장구
 - 질문은 한 가지씩, 확인 질문하기, 명확히 하기
 - 조사 시간
 - 사례비
- 유의 사항
 - 유대감(라포)를 형성하라.
 - 자연스럽게 행동하라.

- 제보자의 발화는 무조건 맞다.
- 제보자가 침묵을 채우게 하라. 조사자는 가급적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좋다.
- 강요하지 마라.
- 자신의 편견을 접어라

3. 조사 후

- 자료 정리
 - 복사본 제작, 파일 내려받기
 - 면담 일지 작성
 - 음성 자료 문자화
 - 하나도 빠짐없이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녹음 내용을 빠짐없이 글로 표현
 - 들리지 않는 부분 표시, 담화 표지, 감탄사 등 기록
- 편집하기-다시 쓰기
 - 구술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형태(대화 양식으로 정리)
 - 해설, 분석이 결합된 형태
 - 연구자의 문제 의식을 중심으로 구술자료를 활용한 형태-논문
 - 집단적 생애사 - 비슷한 경험을 공유한 사람의 이야기 형태

※ 제주어 구술 자료의 해석과 분석

- 음성 및 영상 자료를 구술의 원형을 유지하여 한글 전사
- 제주어의 경우 표준어화 작업(각주 작업)
- 필요한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 소제목 달기(찾아보기, 사진 등 추가 작업)
- 연구 논문의 형태에서 필요한 부분 발췌하여 제시

IV. 구술 조사 자료와 활용

1. 조사 관련 서류

제주어 구술 채록 조사표

☞ 조사자

이름	조사 지역
조사 시간	

☛ 채록지/조사대상자

이름	성명	성명	성명/비고
나이	성	성	성명/비고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거주 사항			
생년 국적			
출생 지역			
특기 사항			
조사 내용	간	중	중
조사 시간	간	중	중
조사 방법	구술기	구술기	구술기
	영상기기	영상기기	영상기기

제주어 구술 채록 자료 활용 동의서

성명	성명
주소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채록 기록

시작 연월	시종 연월	내용	비고
		영상 기록 시작	

☞ 이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소에서 간행하는 <20 제주어 >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본 동의서에 따른 채록자료, 조사원 기록(음성, 영상)은 학술
 연구와 공공의 취지를 위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동의하지 않음
 ※ 조사원 기록이 학술연구의 일환임을 위한 본인의 취지를 위하여 '학술목적
 용의 조사'를 조건으로 간사, 공개, 2차적 재사용 등을 허용하는 것에 동
 의합니다.

20 年 月 日

채록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소 연구실

2. 제주어 구술 자료 표준어 대역 사업(2017~2020)

- 제주학연구센터 홈페이지(제주어자료실/구술자료) 에서 PDF 파일로 볼 수 있음.



107017 @ 게민 이제 콩국, 콩국은 어떻게 끓립니까? 나 그거 못 끌령 맨날 갈
 갈헬서.(그러면 이제 콩국, 콩국은 어떻게 끓립니까? 나 그거 못 끓여서 맨날 '갈갈'해.)

107017 # 콩국은이, 콩 7루 물에 타.(콩국은, 콩가루 물에 타.)

107017 @ 콩 7루 물에 카?(콩가루를 물에 타?)

107017 # 언물에 카근에, 물 팔팔 끌릴 때 소로록허게 비와이. 비왕 확확 젓어
 불민 콩국 안 돼어. 가르룩헤여 비어.(찬물에 타서, 물 팔팔 끌을 때 소르르하게
 부어. 부어서 확확 저어버리면 콩국 안 돼. '가르룩'해 버려.)

107017 @ 응.(응.)

107017 # 계민, 불 늦인 불 뇌근에 그 우트레 이제 소금 솔솔 쪼끔쪼끔 뿌리멍 간 맛좌가멍 부그락하게 꿩듯, 젓질 말아, 젓지 말앙 부꿈직허건 불 흐쉴 늦추아 불꼭, 경행 우썩허게 궤거들라근에, 폭 솟뚜게 더경 놔 두면, 낫다근에 쪼끔 잇당 틈 자건 그때 영 젓으민 콩국이 투박투박 투박 헤여이 그땐. 두부국 닦아. 두부 놓앙 끌린 거 닦아.(그러면, 불 낮은 불 나서 그 위에 이제 소금 솔솔 조금조금 뿌리면서 간 맞춰가면서 '부그락'하게 꿩듯 젓지 마라. 젓지 말고 꿩을 듯하면 불 조금 낮춰 버리고, 그래서 '우썩'하게 꿩거든, 폭 솟뚜경 덮어서 놔두면, 닦다가 조금 있다가 뜸들이면 그때 이렇게 저으면 콩국이 '투박투박투박' 해 그 땐. 두부국 같아. 두부 놔서 꿩인 거 같아.)

107017 @ 응.(응.)

107017 # 그추룩 허주 콩 골앙, 물 칸 막 영 젓어불민.(그렇게 하지, 콩 같아서, 물 타서 막 이렇게 저어버리면.)

107017 @ 맛엇어, 비려.(맛없어, 비려.)

107017 # 응, 그자 가르룩 헤여.(응, 그저 '가르룩' 해.)

107017 @ 거기 무시거 안 놔? 늬빼나, 무수나?(거기 무엇 안 놔? 무나, 무나?)

107017 # 아, 무슨 놔.(아, 무는 놔.)

107017 @ 아, 무수나 늬물?(아, 무나 나물?)

107017 # 배추 놔도 좋고, 무수 놔도 좋고여, 이건.(배추 놔도 좋고, 무 놔도 좋고야, 이 건.)

107017 @ 그거 언제 놔? 늬물이나 그건.(그건 언제 놔? 나물이나 그건.)

107017 # 늬물 먼저 뇌냥, 그 우트레 비와 뇌근에 혼 번 처암이 놀 때랑 휘허게 혼 번 젓어. 젓어냥, 7만히 놓으민 콩이 영 북삭하게 올라와이.(나물 먼저 놓고 나서, 그 위에 부어 놔서 한 번, 처음에 놓을 때랑 휘허게 한 번, 저어. 저어놔서, 가 만히 놓으면 콩이 이렇게 '북삭'하게 올라와.)

107017 @ 응.(응.)

107017 # 올라오는 거 자꾸 젓어불민 가르룩 헤근에 영 콩국 닦지 안허여. 기

자 우트레 저 간장이든 계난 아썩 곤 맞침 이 물을 곤 맞추지 말앗 당.(올라오는 거 자꾸 저어버리면 '가르룩'해서 이렇게 콩국 같지 않아. 그저 위에 저 간장이 든 그러니까 살짝 간 맞춰서 이 물을 간 맞추지 않았다가.)

107017 @ 예.(예.)

107017 # 그 콩국 비와 논 후제랑 간장이나 소금이나 북삭하게 부껴 불어 가진 간장이라도 솟고락으로 영 거리멍 솔솔 우트레 쪼끔 그 근에 맞을 만 이만 헛다근에 경 헛다근에, 솟뚜게 폭 더경 흐쉴 잇다근에 솟뚜게 열 어동 영 젓으민 투북투북투북 허여. 그땐 두부국 닦아.(그 콩국 부어 놓은 후에랑 간장이나 소금이나 '북삭'하게 꿩어 버려 가면 간장이라도 숟가락으로 이렇게 뜨면 서 살살 위에 조금 그 간에 맞을 만큼만 했다가 그렇게 했다가, 솟뚜경 폭 덮어서 조금 있다가 솟뚜경 열어두고 이렇게 저으면 '투북투북투북' 해. 그땐 두부국 같아.)

107017 @ 예.(예.)

107017 # 경허는 거지이, 이거 비와 낭 막 젓으카부덴? 이디 사름들도 요새 옛날 어른들도 헐 줄 몰르켜 허멍 막 젓어불민 가르룩허여. 그럼 콩국 닦질 안허여, 계난.(그렇게 하는 거지, 이거 부어 놔서 막 저을까봐? 여기 사름들도 요새 옛날 어른들도 할 줄 모르겠다 하면서 막 저어버리면 '가르룩'해. 그럼 콩국 같지 않아, 그러니까.)

107017 @ 맞아.(맞아.)

107017 # 것도 영 젓어불민 갈갈허여.(그것도 이렇게 저어버리면 '갈갈'해.)

107017 @ 그럼 한 번도 젓지 말아야 허여?(그럼 한 번도 젓지 말아야 해?)

107017 # 젓지 말앙 그자 북삭하게 올라오랑 부글부글 그 궤어가민 알로 물 궤어가민 북삭하게 올라와이.(젓지 말고 그저 '북삭'하게 올라와서 부글부글 그 꿩어 가면 아래로 물 꿩어가면 '북삭'하게 올라와.)

107017 @ 예.(예.)

107017 # 계난 그거 부끄지 못하게, 이놈의 거 쥌물은 가민 와썩 부끄지 안허 메.(그러니까 그거 꿩지 않게, 이놈의 거 쥌물은 가민 '와썩' 꿩지 않아.)

107017 @ 아.(아.)

107017 # 계란 간장이든 소금이든 그자 우트레 쪼끔쪼끔 뿌리멍 알로 낮은 불로 쪼끔 솟다근에, 근 맛을 만이 간장이든 소금이든 놔지건 불 툯 꺼 뒤근에 푹 뚜께 더깁 낮당 흐쉴 잇당 영 젓으민 그때 투박투박허여, 그때.(그러니까 간장이든 소금이든 그저 위에 조금조금 뿌리면서 아래로 낮은 불로 조금 삶다가, 간 맛을 만큼 간장이든 소금이든 놓으면 불 툯 꺼두고 푹 뚜께 덮어서 삶다가 조금 있다가 이렇게 저으면 그때 '투박투박'해, 그때.)

젓지 말앙 부끔직허건 불 흐쉴 낮추아 - 콩국

'콩국'은 끓는 물에 콩가루와 채소를 넣어 만든 국이다. 제주의 콩국에는 배추나 무를 넣어야 제맛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여름철에 콩을 갈아 만든 콩물에 면을 넣어 콩국수를 만들어 시원하게 먹는다면 제주에서 콩국은 따뜻하게 만들어 먹는 겨울철 별미다. 콩가루를 물에 개어 끓는 물에 붓고 넘치지 않게 불 조절을 해야 한다. 끓여 넘치거나 너무 많이 저어 버리면 제대로 된 콩국을 맛볼 수 없다. 국이 거의 다 될 즈음에 소금으로 간을 하면 콩가루가 덩어리져서 두부처럼 뭉쳐진다. 두부를 만들 때 소금물을 간수로 사용하고 콩가루를 엉기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콩국은이, 콩가루 물에 타. 언물에 카근에 물 팔팔 끌릴 때 소로로허게 비와이. 비왕 확확 젓어 불민 콩국 안 돼어. 바르르헤여 비어. 계민 불, 낮은 불 놔근에 그 우트레 이제 소금 솔솔 쪼끔쪼끔 뿌리멍 간 맛좌 가명 부그락허게 궤듯, 젓지 말아. 젓지 말앙 부끔직허건 불 흐쉴 낮추아 불국. 경행 우쌉허게 궤거들라근에 푹 솟뚜께 더깁 낮다근에 쪼끔 잇당 뜸자건 그때 영 젓으민 콩국이 투박투박헤여이. 그땐 두부국 닮아. 두부 놓앙 끌린 거 닮아. 그추록 허주. 콩가루 낭 놀카 부덴 처 영 젓어

불민 그자 바르르헤 비어. <오윤생(1932년생) 남원읍 태흥리 구술>

(콩국은, 콩가루 물에 타. 찬물에 타서 물 팔팔 끓을 때 '소로로' 하게 부어. 부어서 확확 저어 버리면 콩국 안 돼. '바르르헤' 버려. 그러면 불, 낮은 불 놔서 그 위로 이제 소금 살살 쪼끔쪼끔 뿌리면서 간 맞춰 가면서 '부그락허게' 괴듯, 젓지 마. 젓지 말고 끓여 넘칠 듯하면 불 조금 낮춰 버리고. 그렇게 해서 '우쌉허게' 끓거든 푹 솟뚜께 덮어서 삶다가 조금 있다가 뜸 들면 그때 이렇게 저으면 콩국이 '투박투박'해. 그땐 두부국 같아. 두부 놓아서 끓인 거 같아. 그렇게 하지 콩가루 넣어서 놀어 버릴까 봐 마구 이렇게 저어 버리면 그저 '바르르헤' 버려.)

궤다: 끓다.

놀다: 놀다.

바르르허다: 갑자기 끓어오르다.

부그락허다: 속이 짝 차지 않고 불룩하게 부풀어 오르다.

부끔직허다: 끓여 넘칠 듯하다.

소로로: 물 등의 액체를 조심스레 붓는 모양.

언물: 찬물.

우쌉허다: 갑자기 끓어오르다.

젓다: 젓다. 어간 다음에 모음 어미가 올 때 '젓어, 젓으면'처럼 활용한다.

투박투박: 두부 따위가 덩어리져서 무르게 굳은 모양.

뜸: 뜸. 음식을 찌거나 삶아 익힐 때에, 흠찔 열을 가한 뒤 한동안 뚜껑을 열지 않고 그대로 두어 속속들이 잘 익도록 하는 일.

카다: 타다. 액체에 소량의 액체나 가루 따위를 넣어 섞다.

콩국

생지 열탕 무즙치킨을 주재료로



콩국 콩이 익은 콩국에 생지, 열탕, 무즙, 치킨을 넣어 끓여 만든 콩국이다. 콩은 익혀서 삶아 두었다가 다시 삶아 콩국물을 만든다. 생지는 콩국물에 넣어 끓여 만든다. 열탕은 콩국물에 넣어 끓여 만든다. 무즙은 콩국물에 넣어 끓여 만든다. 치킨은 콩국물에 넣어 끓여 만든다.

재료 콩 1kg, 생지 100g, 열탕 100g, 무즙 100g, 치킨 100g

만드는 법 1. 콩을 씻어 삶아 두었다가 다시 삶아 콩국물을 만든다. 2. 생지를 잘게 잘라 콩국물에 넣어 끓인다. 3. 열탕을 콩국물에 넣어 끓인다. 4. 무즙을 콩국물에 넣어 끓인다. 5. 치킨을 콩국물에 넣어 끓인다.

계명콩국

계명콩, 계명콩국물, 계명콩국물

계명콩 계명콩은 콩의 한 종류로, 콩의 껍질이 얇고 부드러우며, 콩의 맛도 달콤하다. 계명콩은 콩국물, 콩국, 콩국수 등에 사용된다.

계명콩국물 계명콩을 삶아 콩국물을 만든다. 계명콩국물은 콩국물, 콩국, 콩국수 등에 사용된다.

계명콩국 계명콩국물을 끓여 만든다. 계명콩국은 콩국물, 콩국, 콩국수 등에 사용된다.

계명콩국수 계명콩국을 끓여 만든다. 계명콩국수는 콩국물, 콩국, 콩국수 등에 사용된다.

계명콩국물 계명콩을 삶아 콩국물을 만든다. 계명콩국물은 콩국물, 콩국, 콩국수 등에 사용된다.

계명콩국 계명콩국물을 끓여 만든다. 계명콩국은 콩국물, 콩국, 콩국수 등에 사용된다.

계명콩국수 계명콩국을 끓여 만든다. 계명콩국수는 콩국물, 콩국, 콩국수 등에 사용된다.



문학예술로 기록하는 제주의 역사와 제주인의 삶

김동현
주민예총 이사장

소설로 읽는 저항의 역사

김동현 제주민예총 이사장/문학평론가

소설에 대한 오해

픽션(fiction) / 허구

만들어낸 것 / 사실이 아닌 것

'소설 쓰고 있네'라는 비아냥



현실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현실/사실

문학담론/여성담론/개발담론/환경담론

담론(discourse)이라는 것

포섭과 배제

나 혹은 우리라는 주체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기억을 담는 그릇, 소설

일상적 기억/집합 기억/집단 기억

일상적 기억이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한다면 집단 기억은 사회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동시에 기억의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집단기억은 사회적 기억이자 문화적 기억이다. 예술의 기억은 일상적 기억을 넘어 새로운 집단 기억을 재구성하려는 예술적 실천이다.

(기억 이론-모리스 알박스, 피에르 노라, 안 야스만의 논의들)

예술과 기억

"역사 감각은 과거의 과거성만이 아니라 과거의 현재성에 대한 인식과도 관련된다.(...)이러한 역사 감각은 일시적인 것에 대한 감각임과 동시에 영원한 것에 대한 감각이고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함께 느끼는 감각으로서, 그것이 저자를 전통적인 존재로 만든다. 이와 동시에 그것이 저자에게 시간 속의 자기 위치와 자신의 현대성을 가장 예민하게 의식시킨다. 어떤 시인도, 어떤 예술가도 혼자서는 완전한 의미를 가질 수 없다."

T.S 엘리엇, <전통과 개인의 재능 Tradition and Individual Talent>

증언으로서의 문학

문학은 정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든 문학은 시민적 행위인데, 그 이유는 그게 기억이기 때문이다. 모든 문학은 그것(문학)이 없었다면 작가의 삶과 뼈와 함께 사라졌을 무언가를 보존한다. 읽기는 이러한 인간적 불멸에 대한 권리를 다시 주장하는데, 글쓰기의 기억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무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개별적으로 조금밖에 기억하지 못한다. . 우리의 책은 우리의 역사, 갑작스러운 깨달음, 포악한 행위 등에 대한 기록이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문학은 하나의 증언이다.** 알베르트 망겔, <서재를 떠나보내며>

예술적 기억

사회적이며 문화적 행위이다. 예술적 실천이 사회적이며 문화적 행위라고 할 때 로컬의 기억은 과연 무엇인가.

투쟁으로서의 기억, 저항으로서의 기억

내셔널리즘에 대한 저항이자, 내셔널리즘의 폭력에 대한 투쟁

제주 4.3항쟁의 경우

오랫동안 '폭동'으로 불렸던, 강요된 기억에 대한 저항



제주 4.3문학이란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선언



최영장군승전비

누가 이겼는가?

누구와 싸웠는가?



목호의 난

목호의 난: 오랑캐로서 말을 키우던 자들이 일으킨 난

고려말 제주에 남아있던 몽고인들이 고려 정부에 대항한 난

공민왕 23년(1374년)

명, 고려에 말 2000필 요구

공민왕 제주에 잔류 파견

목호 300필만 허락, 중앙정부의 대립

탐라 목호들이
명에 말을 바칠
수 없다고
거절하다

가을 7월 을해 한방연(韓邦彦)이 제주(濟州)에 이르렀는데, 함적(哈赤, 카차)인 석갈리필사(石達里必思), 시테리미스(西提里米斯)-초고독불화(肖古獨不花, 사오쿠부부카)-관음보(觀音保) 등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 감히 세조황제께서 가르신 말을 명(大明)에 바칠 수 있겠는가?"라고 하고, 단지 말 300필을 보냈다. <고려사 공민왕 1374년 8월 19일>

목호난 당시
파견 병력

전함 314척, 장예병 25,605명

총사령관 최영 장군

- 요동 정벌군의 규모 38,830명

- 고려 수군과 전 병력의 파견

- 약 한 달간의 전투

명월보-어음-금악오름-새별오름-예래동-법판-별실

목호인들은 누구인가?

탐라의 장 씨 여자는 목호와 결혼했는데 그녀의 남편이 목호의 난으로 전사했다. 그녀의 미모를 탐낸 고려 장수가 그녀에게 결혼을 강요했다. 그녀는 이를 끝까지 물리치고 수절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열녀조〉

목호: 봉고인 + 반봉고인화한 제주사람 + 제주인화된 봉고인

“우리 동족이 아닌 것이 싫어 갑인의 변을 불려들었다. 칼과 방패가 바다를 뒤덮고 간과 뇌는 땅을 가렸으니 말하면 죽이 매인다.” 〈하담의 기록〉

실록의 기록

1813년(순조 13년)

양제해: 제주목 중면(中面=제주시) 풍원(風源) 명갈)

상진계의 배해 지역

모반 혐의로 처벌



양제해 모반? 양제해 의거?

1813년(순조 13) 제주목에서 일어난 반란의 사건

양제해(梁濟海) 주선 순조 때 제주목 중면(中面)의 풍원(風源)을 거점으로 제주 모반(謀反)

제주도에 모반해오는 목사나 관헌을 영재현(永在峴)에서 암살과 협박에 대한 결단. 제주도에서도 군사를 일으켜 조정에 보내오는 권력자를 끌어내고 제주인들 스스로 자치체(自治)를 구성. 1813년 12월 18일 제주 영재(永在)대정(大靜) 등 3읍에서 일제의 무력봉기 모의. 사건의 발단

200년 만의 추모제를 올리고자 합니다! 부디 동참해 주십시오!

의인(義人) 양광종(梁光宗)

제주도민을 위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의인양에도

지난 200년간 아무도 위우하지 않았던 제주도민들의 후회(後悔)를 잊고 그의 고혼(孤魂)을 추모하기 위한 제(祭)를 올리고자 합니다.



순조실록 13년(1813년) 12월 3일

양인(良人) 윤광종(尹光宗)의 진고(進告)한 내용에, '중면(中面)의 풍원(風源) 양제해(梁濟海)는 원래 건말(奸謀)하고 음독(陰毒)한 자로 항상 분수를 넘어 흉악한 짓을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다가, 서적(西賊)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는 무리를 모아 모반을 도모할 생각을 한 지가 오래였습니다.'



무엇을 주장했길래

근래에 와서 심 백성들의 부역이 너무 무거워 편히 살 수가 없다. 그러니 무리를 모아 힘을 합쳐서 제주 영읍의 네 관원을 죽이고, 심 전체를 내가 주장(主張)하여 심의 배는 옥지로 못나기게 하고 옥지의 배가 오면 재물은 빼앗고 배는 얻어버려서 북쪽으로 통하는 길을 일체 막아버린다면 마땅히 후환이 없을 것이고, 영구히 안락을 보장할 수 있다.

이강희는

1789~?

전남 강진 출생

다산 정약용의 제자

30대에 소독신도로 불리는 우이도에 정착

우이도 유배 온 김익강(양재해의 사돈)과 교류

탐라지방설 저술



김익강(金益剛)·고덕호(高德好)·강필방(姜必方) 등과 함께 속여서 불러 모아들이니 무리가 차츰 늘어났습니다. 그리하여 빈틈없이 배포(排布)하고 역사(力士)를 모집하고 병기를 만들어서, 이달 16일 밤에 주성(州城)에 돌입하여 변란을 일으키되, 정의(旌義)와 대정(大靜)에서도 같은 날 거병(擧兵)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으니, 너무도 듣기에 놀랍고 분하여 양재해와 그 무리들은 추적 체포하여 엄중히 문초한 결과 일일이 자백하였으므로 모조리 굴

이강희의 '탐라지방설' -상헌계(相贊契)

제주의 아전

진무리(鎭撫吏), 향리(鄕吏), 가리(假吏)

‘백성들의 살가죽을 남김없이 벗기고, 백성들의 삶을 어지없이 도려내며, 백성들의 피를 남김없이 빨아 먹는다’

공공의 이익보다 사익을 우선하는 공무원의 학정(虐政) 고발



제주의 시선/물의 시선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소설이라는 담론, 기억투쟁의 현장

무엇이 좋은 작품을 만드는지 결정하는 하는 것은 주관적이다. 우리는 스스로가 만든 구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발터 벤야민

(1890-1940)

아우리 (Aura)

오리지널리티, 원본성



이야기꾼과 소설가

뫼비우스의 이야기

농부의 이야기

매혹적이고 낯선 이야기

장숙하지만 너무 가까이 있는 이야기





“아주 가까이 있는 것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

• 1925-2017, 폴란드 출신 사회학자




지식인이란?

지식인은 정계 밖으로 끊임없이 스스로를
추방해야 하는 자이다(…). 그는 애국적
민족주의와 집단적 사고, 그리고 계급, 만종,
성적인 특권 의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며(…) 관습적인 논리에 반응하지 않고,
모험적 용기의 대담성에, 변화를 재현하는 것에,
기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에
반응하는 자이다. — 에드워드 사이드 「권리와
지성인」 중에서

익숙한 것들을
낯설게
바라보기

새로운 이야기의 '발명'이 아니라 새롭게 보는
이야기의 '발견'

소설이라는 이야기의 시작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18. 빛을 받 '당'의 일적으로 들은 것은?

- ① 전례당일쓰레기 앞에서 이리저리, '어라 저쪽의 도시를 한데로 보게 할 것입니다. ... (중략) ... 조국의 영웅은 왜인지 우리의 고통을 잊지 않을것으로 사후에 우리를 위한 것이 증명됩니다.' 라고 했다. 그래도 기억하려고 하였다.
- ② 빛이 희미하기를, '저는 한이 모든 정수를 받아 한일주에 모으려고, 희망주는 거리를 해어갈 곳에 국영에게 이리저리 재가를 받아 조수에 내리 보내어 기억하려.' 라고 하였다.

- ㉠ 금관수이 영웅
- ㉡ 교향도금 영적
- ㉢ 풍년영웅 영적
- ㉣ 재현되는 영웅
- ㉤ 전례당일 쓰레



현기영 <변방에 우짚는 새>

적객의 눈에 비친 삼시사람들은 각 무지하고 어만스러워 보였다. 쟁기를 쓸 줄 몰라 바벼로 밭을 갈고 돛대를 편들 줄 몰라 삼나무 뿔목을 타고, 그물을 쓸 줄 몰라 주낙 낚시를 하는 줄로 여겼다. 쟁기 보습이 두어 치방에 들지 않는 돌투성이 밭이라 오히려 바비가 편하고 섬 근해 바다가 물결 세고 갈날 같은 암초가 많은지라 그 물이 별로 쓸모 없는 줄을 서을 나그네는 알지 못했다.

History

history

story

그리고 고고고에 영웅을 지는 세공건을 진질했던 이 문사인들이 독재를 받들 줄 몰라서 영웅재를 지우는 게 아니었다. 조공초에 후퇴한 문학과 신앙에 신념이다. 온 영웅 속지로 후퇴한 백성이 무지각수영단거나 인조 음모란 이름 아래 된 할아버지 영웅 김지영이 내리쳐 있었다. 그래서 영사인들이 독재를 받들어 우리는 조공-관영으로 갈라고 있었을 것인데 독재를 사후하게 하면 사람들이 고기 낚는다는 말대로 한 바다가 나그네가 후퇴로 도망갈 것이 뻔한 것이었다. 출륙 김지영이 내린 이 길에는 조공하다 기질이 심하고 기조 예이고 해파리 한 바다가 나갈 수 없는 앞은영이 영웅재영단이 해방을 받들 줄이였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제주섬은 적객이 행세하기에는 안성마춤의
 곳이었다. 이 섬에는 여러 대 대물밭하며 내려온 장자집이 섬읍을
 통틀어 스무남은 집은 팔 터이인데 이 굵은 통을 한다는 보호집이
 사뭇 알다투어가며 적객을 제집으로 모셔가려고 기쁘는 것이다.
 불후한 처지의 적객을 듣고 사귀어 두었다가, 훗날 특사받아 귀양
 풀려 관직이 회복되면 그림 언중살아 원 자리 하나 옆관에 보려는
 속셈이다

이렇게 변방 방어의 군역과 왕실 진상의 막중한 책무를 진
 채 이백 년동안 출륙을 못했으니, '물 위에 비 있는 뇌육'에
 갇힌 수인은 십사람들이지 결코 귀양은 적객이 아니었다

수령들의 직책을 조정에 고변하려고 하여도 공평이 아니면
 출륙을 금하고 있으니, 어제 해 볼 도리가 없었다. 진상신
 마리다니는 관속들이 있기는 하지만, 항상 수령과 한통속인
 그들이 밟고해 줄 리는 더욱 빈무한 것이었다. 섬 백성의
 눈에 고통이 넘쳐도 알지 못하고 원성이 하늘에 닿아도
 들리지 않았다.



이 땅에서 유배된 자들의 목소리



조선인 군부(軍夫)-일본군에 소속된 민간인 신분의 군무원
軍屬傭人

1942년 8월 조선인 청년 3천명 동남아시아 포로수용소 감시원
부산 노구치 부대

오키나와-조선인 군부/조선인 위안부 1만명 추정

'배봉기'
보이지 않는 존재 '위안부'

1944년 일본 도카시키 성
1972년 일본 복귀 후 불법
체류자 신분
강제 퇴거 대상

최초의 '위안부' 증언자, 배봉기



오키나와 할머니

배봉기(1914-1991)

1975년 조선인 '위안부'의 존재가
처음으로 알려짐

'위안부' 최초 증언자



군사기지의 섬
오키나와



0.6 VS 75

오키나와(일본 전체 면적의 0.6%)
 주일 미군기지 75% 수준
 기지의 섬 오키나와



오키나와라는 문제적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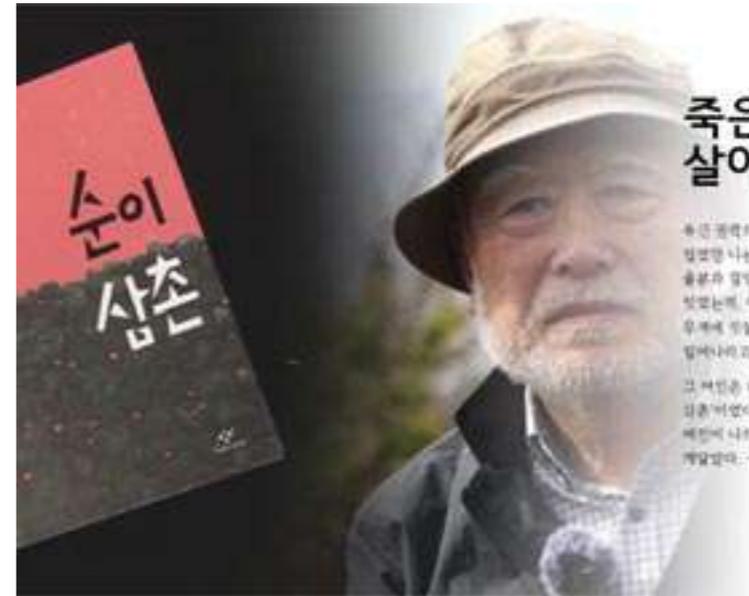
1945년 8월 제제(패전 그리고 미군 점령)





4.3이라는 중력

지역은 삶의 지층이 커커이 쌓인 장소인 동시에 기억의 공유가 이뤄지는 삶의 공간이다. 내 몸으로 터듬을 수 있는 개별적인 장소이며 타인의 육체와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마주침의 현장이다. 제주에서 글을 쓴다는 일은 '제주'라는 지역의 정체성과 '작가'라는 자의식, 이 두 개의 질문을 동시에 던져야 하는 일이다. 이것을 '자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지역의 중력다. 한없이 가벼워지고 싶은 순간, 대지의 구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을 끝내 붙들게 만드는 힘, '제주 43'은 가장 강력한 중력이다.



죽은 자와 살아남은 자

죽은 중력의 힘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화를 접할 때는 그 비극적까지 거의 1년 반 동안 내내 울분과 절망 속에서 편대를 찍은 채 살아가고 있었는지, 어느날 한 여인이 나타나서 절망의 무게에 짐달려 지쳐가 있는 나에게, 여자가 일어나고 아난지는 생명한 삶을 꾸렸다. 그 여인은 내가 작품 속에서 탐구한 '순이 삼촌'이었다. 그 때 나는 가장의 인물인 그 용감한 여인이 나의 문장으로 나의 삶에 살아 있음을 깨달았다. -정기영, <바다와 숲간>



제주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었던 작가, 현기영

비도, 말이라는 것을 통해 읽고 그 땅에서 머물러 가며 내어놓아주고 싶었던 작가는, 신도 옮기면 해도 돌아오고 그 땅에서 내일 출몰이 무성할수록, 한 걸음 앞까지 육체가 망명한 내일이를 읽기 후 아끼려고 글에서 살아있는지 질문을 던지지만, 문장을 안 읽어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만에서, 하늘에서 기록을 만들 것이 아닐지, 기록을 만나서 생각하고 질문하다보면, 그 때 좋은 작가가 될 수 있고, 그 작품을 호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굳이 왜 말하지 않았는지라고 질문을 묻고 싶어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식으로 작가들이 글을 쓰고, 그래서 땅과 그 땅에서 살고 싶어하는 질문을 하지 않고.

귀향, 사투리의 귀환

젓빛 바다 안으로 날카롭게 벽이 들어간 서커스 현무암의 갑(鎧), 저절 사투리로 '모지'라고 했지. 바닷가 넓은 '돌밭에 [岩盤]'에 눈썹이 쌓여 있는 저 고동석 해초 더미는 '돌목술'이었고, 저울리다에 포말처럼 동동 떠 있는 저것들은 해녀들의 '태화'이다. 서커스 현무암 바위 틈바구니에 붉게 지는 조릿불, 불에 오른 해녀들이 불을 끄는 자국을 '용덕'이라고 했지. 나는 잊어 먹고 있던 낱말들이 상층의식 깊은 태사 하나하나 튀어나올 때마다 남모르는 재채를 흘렸다. 이렇게 추억의 심부(深部)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머릿속은 고향의 풍물과 사투리로 그들먹해가는 것이었다.

피해자의 언어/가해자의 언어

"아니우다, 이대로 그냥 놔두면 이 사건은 영영 매장되고 말 거우다, 앞으로 일어십 년만 더 있어 봅서, 그랜 심한반을 일사자도 죽고 없고, 아버님이나 당숙님같이 증언할 분도 돌아가시고 나면 다 히사가 아니우짜? 머을 전설로는 남을자 풀라도."

김수형의 말에 갑자기 짜증이 났던지 고모부의 입에서 느닷없이 평안도 사투리가 튀어나왔다.

"기세, 조개, 지나간 걸 캐지구 자꾸 들춰 내선 말 하간? 전쟁이란 다 기린 거야 아니가사?"

그 용광로에 불박인 인고(忍痛)의 삼십 년, 삼십 년이라면 그러저럭 잊고 지낼 만한 세월이건만 손이상은은 그렇지를 못했다. 한 뼈와 총알이 출토되는 그 용광로에 발이 묶여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었다. 당신이 밭에 모르게 서울 우리집에 올리는 것도 당신을 붙잡고 놓지 않는 그 용광로를 쫓겨쳐 보라는 마지막 안간힘이 아니었을까?

그러니 오누이가 묻혀 있는 그 용광로는 당신의 숙명이었다. 깊은 소(沼) 물귀신에게 채어 가듯 당신은 머리끄덩이를 감히 다시 그 밭으로 끌리어갔다. 그렇다, 그 죽음은 한 달 전의 죽음이 아니라 이마 30년 전의 해묵은 죽음이였다. 당신은 그때 이미 죽은 사람이였다. 다만 30년 전 그 용광로에서 구구석 총구에서 나간 총알이 30년의 무어죽절한 유예(猶豫)를 보내고 오늘에야 당신의 가슴 한복판을 꿰뚫었음 뿐이었다.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가 필요하다

학살자의 언어를 구사하는 고모부

학살의 기억과 연루된 이복사투리/계주사투리(피해자의 기억)

기억투쟁의 시작

"이때 큰아버지가 콩 잎은 소랑 내며 고개를 돌려 되면서 버렸다. 눈썹이 밭에 밟힌 송충이처럼 꿈틀거리는 것으로 보아 몹시 심기가 위중한 모양이였다. 고모부는 그제서야 이복 사투리를 쓰고 있는 자신을 깨달았던지 흥분 놀라며 발을 밟았다. 큰당숙, 작은당숙 어른도 못마땅한 표정으로 담배만 물리물리 빨아 냈다. 잠시 저복살스러운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언제나 반죽 좋은 고모부는 곧 심사투리로 돌아와 다시 말을 꺼냈다."

80년 5월 광주의 경우





잃어버린 장소성의 복원

국가+자본의 시간은 장소의 기억을 지워버린다

베갯대, 흙케, 물레물, 당동산, 구림비, 입에서 뱉히고 기억으로 지켜가던 이름들은 지워졌다. 이름이 지워지자 장소가 사라졌고 기억도 사라졌다. 살아서 빛나던 것들이 사라진 자리마다, 상처다. 제주 땅 곳곳 상실의 비명이 자연하다.

장소의 실종은 한 지역만이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지역을 초월한 문제이며 세계가 오래전부터 직면해 온 현상이기도 하다. 15세기 이후부터 시작된 유럽 제국주의 팽창은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근대성을 식민지에 이식했다. 이른바 '신세계의 발견'으로 명명된 제국 지리의 확장은 타자화된 식민지를 '발명'해 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남아메리카 '정복'은 지구적 근대화의 출발이었다. 그것은 타자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발명'함으로써 타자를 '은폐'하는 폭력적 호명이었다.

신자유주의적 지식의 강에서 로컬은 이해할 수 없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 해석 가능하고, 재현 가능하며 때론, 자본의 공간이 되어야만 했다. 울퉁불퉁하고 거칠고, 낯선 장소들은 해체되었고 새롭게 재구성되었다. 그것은 자본주의적 공간의 세련된 이식이었고 위장된 지배 전략이었다. 프란츠 파농이 제국주의 통치 전략을 거론하면서 "식민지 만중에게 가장 구체적인 가치는 대치"라고 말한 이유도 이러한 식민화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이다. 유럽과 미국을 염두에 둔 이들의 인식을 염두에 둔다면 식민화는 국가와 국가, 민족과 타 민족 사이에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성장주의를 우선한 국가-자본의 결합은 그 자체로 중심의 질서를 폭력적으로 이식하는 과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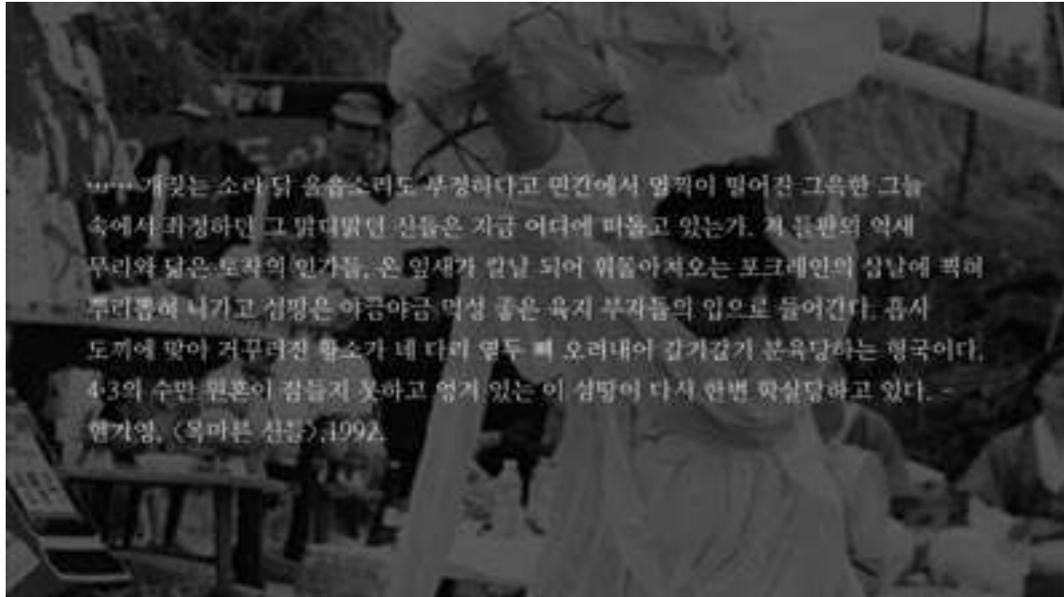
잃어버린 장소를 되찾기 위한 실천



... 기억된 시대라고 이제는 그런 문구를 깨달라고 말하는 때가
 가서 열다시씩 되버린 것이다. 천한 일로 살고 사는 나
 같은 사람이야 지속해 뛰어들 수밖에 없지만, 하나 다른 것은
 부끄러움도 마음 속에만 남고 있지 않아야겠다. 정말
 배우려는 생각이 온다. 마음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잘 되려면 심부진으로 버티는 일만이 생긴 비평가들이 요만한
 죽음을 버뜨리려 날아들고 싶다면 이소할까 길 위로 관망자를
 같은 조사한 지동자 행렬이 공황무기 꼬리 풀고 내달리는
 문국인데, 어디 한곳길 구해 남아 있어 산이 꽃을 웃인가.
 토착의 뿌리는 무참히 흔들어지고 있다. 토착의 전통도, 토착의
 인간들도.



자본+개발이라는 폭력



... 개릿의 소리 닷 울음소리도 부경리라고 민간에서 엄격이 떨어간 그옥한 그늘
 속에서 과장하던 그 밭대밭던 산들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저 들판의 역사
 무리와 닮은 토착의 인간들, 온 일세가 갈날 되어 휘몰아쳐오는 포크레인의 삼날에 찍어
 뿌리뽑혀 나가고 심장은 아금야금 먹성 좋은 육지 부자들의 입으로 들어간다. 흙사
 도끼에 맞아 거꾸러진 활소가 네 다리 열두 배 오러내어 갑기갑기 분육당하는 형국이다.
 43의 수만 원혼이 잠들지 못하고 영거 있는 이 심장이 다시 한번 짝살당하고 있다.
 - 함기영, <억머본 심들>, 1992.



기억에 대한 예의 살아있는 자의 염치



이재수라는 '기억'



1940년 안성, 민성, 보성 3리 주민들에 의해 세워진 묘비
제주 영웅 이재수 모 공적 표



이재수 난

연북정 망경루

- 북쪽을 그리워했던
-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1652년
목사 이원진

- 공신루
- 공신정

공신정



대한제국의 선포(1897년 10월 13일)



고종 26년 10월 13일 12월 2일 경역 4인제시(1897년 10월 13일 대한제국 선포)

국호를 대한으로 하고 임금을 황제로 칭한다고 선포하다

우리 태조(太祖)가 왕위에 오른 초기에 국토 밖으로 영토를 더욱 넓혀 북쪽으로는 말갈(靺鞨)의 지경까지 이르러 상아, 가죽, 비단을 얻게 되었고, 남쪽으로는 탐라국(耽羅國)을 차지하여 굴, 유자, 해산물을 공납(貢納)으로 받게 되었다. 사천 리 강토에 하나의 통일된 왕업(王業)을 세웠으니, 예악(禮樂)과 법도는 당요(唐堯)와 우순(虞舜)을 이어받았고 국토는 공고히 다져져 우리 자손들에게 만대토록 길이 전할 반석같은 터전을 남겨 주었다.

국역 원문 원문 보기

奉天承運皇帝詔曰：“朕惟禮。其以來，疆土分張，各據一隅，互相爭雄，及高麗時，吞並馬韓、辰韓、弁韓，是謂統合三韓。及我太祖龍興之初，輿圖以外，拓地益廣。北盡靺鞨之界，而齒革壓絲出焉，南收耽羅之國，而櫛櫛海錯貢焉。幅員四千里，建一統之業。禮樂法度，祖述唐、虞，山河鞏固，垂裕我子孫萬世磐石之宗。惟朕否德，適丁艱會，上帝眷顧，轉危回安，創獨立之基，行自主之權。群臣百姓，軍伍市井，一辭同聲，叫闕齊籲，章數十上，必欲推尊帝號，朕揖讓者屢，無以辭，於今年九月十七日，告祭天地于白巖之陽，即皇帝位。定有天下之號曰‘大韓’，以是年爲光武元年，改號太社、太廟，冊王后閔氏爲皇后，王太子爲皇太子。惟茲丕釐啟命，肇稱鉅典，爰稽歷代故事，另行大赦。

탐라국(國)



탐라군(郡)

탐라/제주(바다 건너 큰 고을)

고종 26년 10월 13일

수탈과 착취의 역사

제주사람(우마적)

평안도 강제이주

제주의 우마적(牛馬賊)을 이미 색출하여 평안도에 나누어서 배치하였사오
나, 그 노의 간 고을에 명화(名花)의 향산(恒産)이 있는 각 호(戶)에 나누어 주어 어찌와 가식이
신호(新號)까지 입조(入朝)하며, 고공인(雇工人)의 데에 의하여 취역하게 하고, 그 노약(老弱)
과 질병으로 자활이 불가능한 자는 구호의 양곡을 지급하여 이를 구제하게 하옵소서

출륙금지령

• 1629년(인조7년)~1823년(순조 23년)

말산업의 국영화(강력한 통제)

말(馬)의 사육과 관리, 양육(養育)은 소와 말을
도살하여 생계의 바탕으로 삼는 자가 자못 많고,
장사차들이 양재하면서 우마적(牛馬賊)을
부역하여 생활을 이어가는 자도 또한 많고,
세월이 갈수록 양재(養宰)의 무효(無效)가 심하여, 세(稅)의 징수(徵收)가 곤란(困難)하여, 이(利)의
추진(推進)이 곤란(困難)하여, 이(利)의 추진(推進)이 곤란(困難)하여, 이(利)의 추진(推進)이 곤란(困難)하여,
양(養)의 무효(無效)가 심하여, 세(稅)의 징수(徵收)가 곤란(困難)하여, 이(利)의 추진(推進)이 곤란(困難)하여,
양(養)의 무효(無效)가 심하여, 세(稅)의 징수(徵收)가 곤란(困難)하여, 이(利)의 추진(推進)이 곤란(困難)하여,

세주에 사는 원구(元寇)는 평안(平安)의 조수(曹守)를 따라 출륙(出陸)하여, 과(課)의 징수(徵收)가 곤란(困難)하여,
이(利)의 추진(推進)이 곤란(困難)하여, 이(利)의 추진(推進)이 곤란(困難)하여, 이(利)의 추진(推進)이 곤란(困難)하여,
이(利)의 추진(推進)이 곤란(困難)하여, 이(利)의 추진(推進)이 곤란(困難)하여, 이(利)의 추진(推進)이 곤란(困難)하여,
이(利)의 추진(推進)이 곤란(困難)하여, 이(利)의 추진(推進)이 곤란(困難)하여, 이(利)의 추진(推進)이 곤란(困難)하여,
이(利)의 추진(推進)이 곤란(困難)하여, 이(利)의 추진(推進)이 곤란(困難)하여, 이(利)의 추진(推進)이 곤란(困難)하여,
이(利)의 추진(推進)이 곤란(困難)하여, 이(利)의 추진(推進)이 곤란(困難)하여, 이(利)의 추진(推進)이 곤란(困難)하여,
이(利)의 추진(推進)이 곤란(困難)하여, 이(利)의 추진(推進)이 곤란(困難)하여, 이(利)의 추진(推進)이 곤란(困難)하여,
이(利)의 추진(推進)이 곤란(困難)하여, 이(利)의 추진(推進)이 곤란(困難)하여, 이(利)의 추진(推進)이 곤란(困難)하여,

대한제국의 선포 (1897년)

帝國은 식민지를 필요로 한다

북으로 땅갈의 땅을 이루려고, 남으로 열라국까지 관할하니 충분히 제국이대 할만하다.
감지(監製)하시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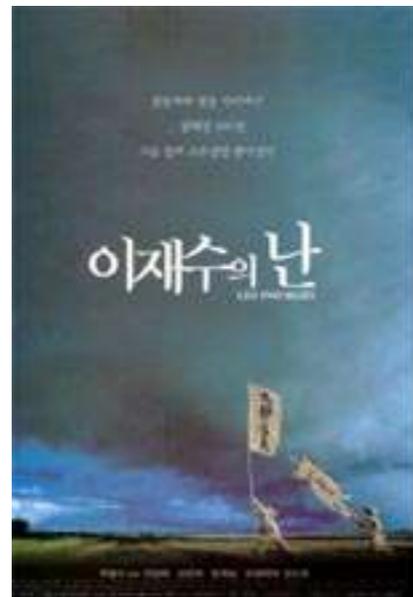
제주의 역사는 과연 무엇이었던가



봉건과
근대의
사이에서...

1898년 방성칠 난

1901년 이재수 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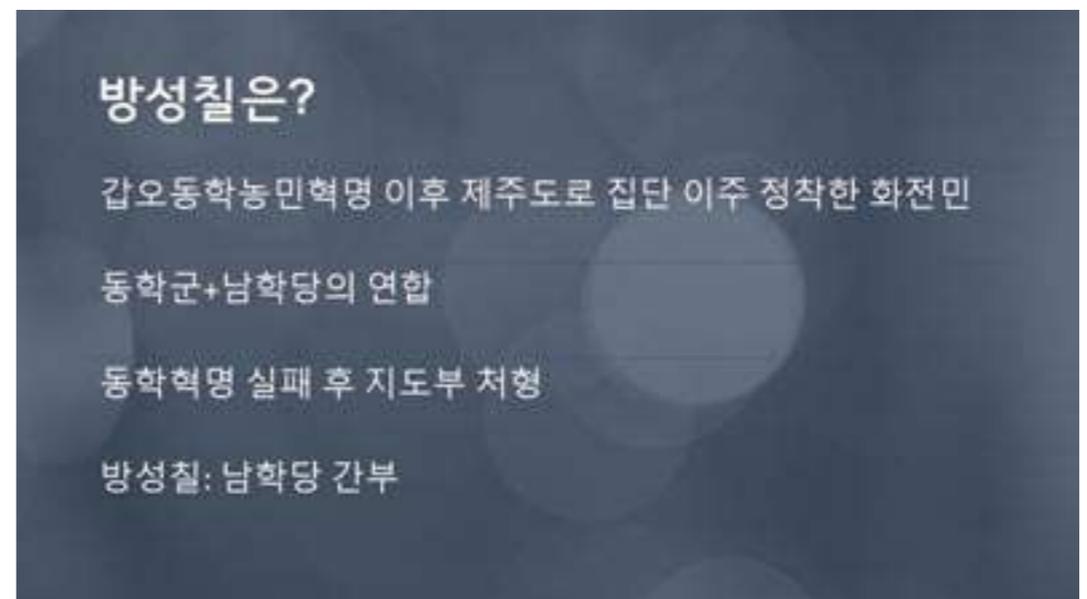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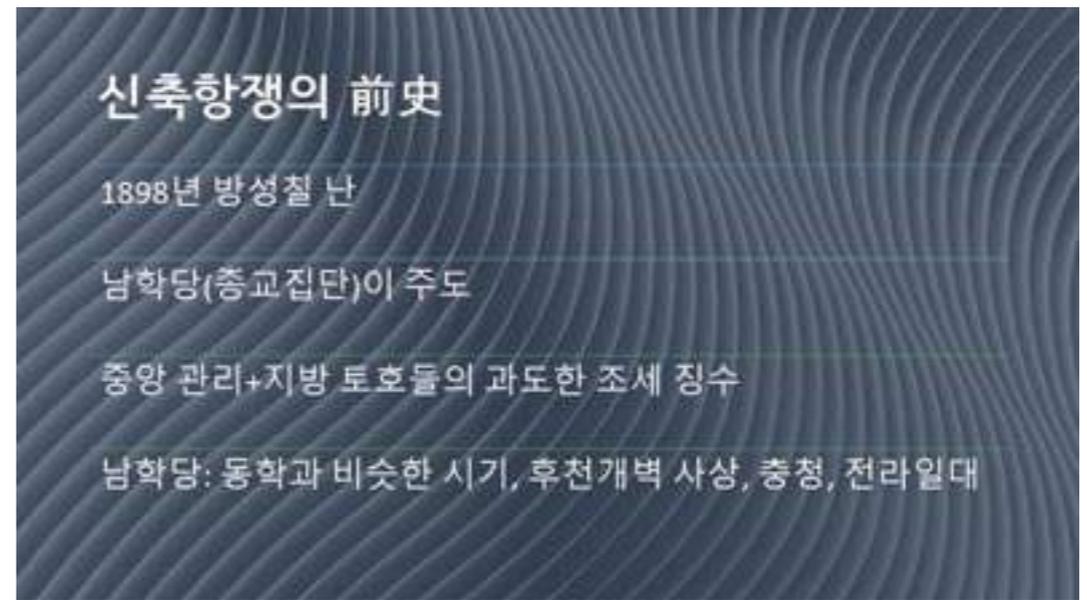


명칭에 대하여

- 제주도 신축교난(濟州島辛丑敎亂)
- 신축민란(辛丑民亂)
- 신축년 난리
- 신축성교난(辛丑聖敎亂)
- 제주민란(濟州民亂)
- 제주교란(濟州敎亂), 신축교안(辛丑敎案)
- 이재수(李在守)의 난, 신축항쟁

성격규정





변방에 우짚는 새

망성질 난, 이재수 난을 다룬 역사 소설

“한마디로 이 소설은 두 민란에 대한 고찰이다. 당시 제주로 귀양가서 두 민란을 차례로 겪었던 한말의 거물 정객 김윤식의 『속음칭사(續陰晴史)』를 근본 사료로 하고 천주교 측이 공개한 신부와 주교의 서한문, 황성신문, 그리고 민간에서 취재한 촌로의 증언을 참고하여...”

- 책머리

변방에 우짚는 새-1장

청중 말년까지만 해도 유삼천리(流三千里)의 형을 받은 중죄인이 유죄(流讞) 앞편지만 제주목에 가 닿으려면 거의 스무 날이나 걸리는 행려의 길에 단단히 신고를 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임팩이 이곳에서 귀양살이를 한 중암 김정(1486-1521)이 말하였으되, 대저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가지 말자고 해도 안 되는 곳이 제주섬이라 하였다.

황성신문, 1901년 5월 16일



변방에 우짚는 새-1장

포구에는 육지 배 들었다는 소문에 구경 나온 촌민들이 수십 명 배를 지어 말찍이 서 있었다. 거의가 갑종의, 갑작스에 맨상투 바림인 그들은 돌처럼 무표정하고 말이 없었다. 적객의 눈에 비친 섬사람들은 딱 무지하고 아만스러워 보였다. 쟁기를 쓸 줄 몰라 마벼로 밭을 갈고, 돌배를 만들 줄 몰라 심나무 뗏목을 타고, 그물을 쓸 줄 몰라 주낙 낚시를 하는 줄로 여겼다. 쟁기 모습이 두어 치방에 들지 않는 돌부성이 밭이라 오허려 마벼가 편하고 섬 근해 바다가 물결 세고 길날 길은 암초가 많은지라 그물이 별로 쓸모 없는 줄을 서을 니그네는 알지 못했다.

변방에 우짖는 새-1장

백년 가야 한번 티끌까 알까 하는 민란이 두려워 눈치를 보고 몸을 사릴 그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민란은 이들에게 전화위복이 되기가 예사였다. 그것은 민란 중에 피해 입는 쪽은 경계관인 북시, 헌감, 비장뿐이고 지방토호들은 무사하다는 말이 아니었다.(중략) 평소에 음으로 양으로 경계관의 토색질을 도와 일환을 쌓았으니 일단 난리가 나면 그들은 혼쭐나기 마련이었다. 그 중에 특히 짐학이 자심한 자는 난민에게 붙잡혀 모듬매 맞고 세간이 바닥에 내쳐 박살나고 불에 탔다. 그러나 난괴자들이 저저 거리에서 효수되고 들끓던 난리가 진압되면 이 토호들은 다시 기를 펴게 된다.

변방에 우짖는 새-1장

수령들의 작패를 조정에 고변하려고 하여도 공행이 아니면 출륙을 금하고 있으니, 어찌 해 볼 도리가 없었다. 진상선 따라다니는 관속들이 있기는 하지만, 항시 수령과 한통속인 그들이 밭고래 줄 리는 더욱 만무한 것이었다. 심 백성의 눈에 고름이 넘쳐도 알지 못하고 원성이 하늘에 닿아도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변방 방어의 군역과 왕실 진상의 막중한 책무를 전 채 이백 년 동안 출륙을 못했으니, '물 위에 떠 있는 뇌옥'에 갇힌 수인은 점사립들이지 결코 귀양 온 죄객이 아니었다.

운양 김윤식은

조선말기의 문신
(1835~1922). 창, 일, 미 등
열강과의 외교업무 담당.

박지원의 손자인 박규수
의 제자



1865년(31세) 농장봉, 40
세에 관직 진출

1898년 1월~1901년 7월
제주유배

변방에 우짖는 새

거룻배를 타고 산지포에 내린 운양은 옛새 동안이나 배밭머리에 서있었던 물이라 구름발을 걷는 듯이 다리가 허창이정 뻗었다. 아직도 귀고막에는 화문선의 기계 소리가 달라붙어 잉잉거리고 물면 풍겨오는 흙냄새에 정신이 아득했다. (중략) 마침내 세상 끝까지 오고 만 것이었다. 행불이 지엄하여 이 물 막힌 원악도(遠惡島)에 내쳐어 종신토록 살라 했으니, 얼마 안 남은 여생, 꼭 죽어서야 저 물머리를 넘어 돌아갈 것만 같아 가슴이 무거웠다.

삼읍(三邑)에 은밀히 통문이 돌고 성문과 상벽에 목사의 탐학(貪虐)을 선포하는 익명의
괘서가 나붙어 민심은 크게 동요되었다. 화전민촌이 많은 대정 고을이 그중 심했다.
통문을 삼읍에 돌린 것도 대정의 화전민들이라고 했다. 몇 달 전부터
화전세·장전세(場田稅)·호포세(戶布稅)를 정수(定數)보다 훨씬 넘게 남징하고 새 법에
따라 백성이 주관하게 된 사환곡(社還穀)을 목사가 제 마음대로 농단한다고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더니 기어코 일이 벌어질 모양이었다.

음력 1월 18일, 마침내 대정 화전민 수백 명이 주성에 입성하여 소장을 올렸다.
소두(疏頭)는 망성철이라는 팔십 난 노인이었다. 삼읍 편인이 다 물려올 줄로만 알고
전전공공하던 목사는 제주·정의 두 고을에서 포용하지 않는 것에 적이 기세가 올랐던지
순검을 풀어 소두를 비롯한 수십 명을 포박하고 나머지 화민들은 공포를 놓아 해산시킬
공리를 들었다.

게다가 앞에 나와서 정중히 예를 갖추고 소장을 올리는 망노인의 풍모는 귀여하기 짝이
없었다. 소문대로 그는 팔십 난 노인인데도, 백발만 성성할 뿐 늙은 때가 전혀 없고 육
척이 훨씬 넘는 큰 키에 기골이 강대하였다. 그러한 풍모에다 담력이 뛰어나고 이십 년
동안 계묘 산에서 산채(山菜)를 지내며 도를 닦고 술법을 익혔다 하니 대정 화전민
사이에 이인(異人)으로 불리는 것도 무리가 아닌 듯 하였다.

민란의 실패

남학당 중심의 민란세력

조천 일대의 토착 유림세력과 적객들의 대립

정감록 등 비기에 기댄 독립국가 건설 계획의 실패



북촌리 학살 사건이란?

1949년 1월 17일, 세계사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민간인학살이 북촌리에서 자행됐다. 4.3 당시 단일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인명희생을 기지온 북촌리학살 사건이 북촌국민학교를 중심으로 한 동서쪽 둘과 밖에서 자행된 것이다. 이 날 북촌리의 마을에 있었던 불기행렬의 남녀노소 400명 이상이 한 날 한 시에 희생되었다.

순이삼촌 : 1978년 발표

1978년 남한의 시대상황

- 1970년 전태일 분신
- 1972년 유신헌법 공포
- 1978년 박정희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9대 대통령으로 선출
- ※ 4.3 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금지되어 있었던 시절

현기영에게 순이삼촌은?

유신 권력의 핵이 앞설달할 무렵에 그러한 필화를 입었던 나는 그 이듬해까지 거의 1년 반 동안 내내 울분과 절망 속에서 펜대를 쥐는 게 슬로. 피곤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한 여인이 나타나서 절망의 무게에 짓눌려 지쳐져 있는 나에게, 어서 일어나라고 야단치는 생생한 꿈을 꾸었다.

그 여인은 내기 작품 속에서 창조한 '순이 삼촌'이었다. 그 때 나는 가끔의 인물인 그 불행한 여인이 나의 분신으로서 나의 내면에 살아 있음을 깨달았다. - 현기영, <여다와 슬잔>

도입

내가 그 당시 어려운 서툰 글씨를 간신히 써내 가지고 고향을 찾아간 것은 둘째 말할 필요도 없이 할아버지 제삿날에 먹을 것을 갖는 것이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勤勤)께 내리가 보고 지갑까지이니 그 동안 8년이란 세월이 흐른 것이었다.

세월 길갈 할아버지 고부도 백사에 한 번도 다녀오지 못했으니 큰아버지나 사촌 김수형은 편지 글씨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속으로 무덤에도 흙을 하고 있을 지였다. 물론 일본에 있는 아버지가 제사 때가 되면 잊지 않고 제수갈 떠번에 쓰기도 날아 떨어진 가운데 보행이 할아버지 넋넉하게 큰일으로 송금하는 모양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전산을 못 돌아보고 기록사에 접해 못하는 피드백들이 가버린 것은 아니었다.

'나'에게 고향이란?

- 깊은 우음종과 찌든 지난 밤에 있는 곳
- 삼십 년 전 소개 작전 때 이미 죽은 마을

8년만의 귀향

그러다가 요 며칠 전에 큰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편 것이었다. 가족묘지 매입 문제로 상의할 일이 있으니 할아버지 제사일에 맞춰 내려오라는 편지 내용이였다. 편지투로 보아 이번엔 기어코 나를 내려오게 만들려는 당신의 속마음이 헤아려지고도 남음이 있었다.

제삿집

(전학) 불행두 순이(勤儉)같은 생각이 있다. 이력부터 그문이 보이지 않는 게 이상했다. 여덟 개 보일 순길 제삿날마다 부르크 기우회 구역을 들고 오일 순이었다. 순수는 땀에도 꺼여 걸 걷네 이순에 걸어서 끈질기는 새로 기록사에 생애할 정도로 각별한 지어졌던 것이다. 그래서 김수형과 나는 이력부터 그문을 김순이에게 부름면서 무척 따랐다. (고향에서는 순수 딱지끼 어려운 먼 친척 어른을 닮네 구별 없이 순지 상촌이라 불려 가까이 지내는 풍습이 있다.)에서 상촌을 찾아보고 인사할 쓰려야 할 텐데, 저구나, 상촌은 일 년 가까이 건물 우리집에 옮겨와 앓을 때부터 고상하다가 불과 두 달 만에 내키보였는데 그 동안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배 궁금했다. 혹시 물어 편찮으신 게 아닐까? 나는 김수형에게 물어 보았다.

#순이삼촌의 죽음을 알게 되는 '나'

"거를 잃어 서편하는 듯 알릴까라는 그 질문은 매일 밤에 죽어 부러지네."

"아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순이삼촌이 돌아가셔서 아깝?"

그렇게 돌아가시다니, 이는 어안이 멎을할 따름이었다.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간헐적 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불어 아니었다. 그는 도무지 알리지 않아서 좌중을 뒤 돌아보았다. 작은달숙이 나에게 기묘한 표정을 그려서 보였다.

"나도 몰랐는지, 형님, 무슨 나쁜거는 기쁨도 안 할디가?"

어떻게 도무지 말해도 전이해하는 남편은 돌리돌리 찰떡 같던 도무지 말을 걸지 않았다. 평소와 같았지만, 낯익은 시어머니의 몸이 괴로운 모양이었다. 좌중은 한참 침묵이 흘렀다. 어리석, 어리석, 잊고지말게 하라는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었다.

"순이이지말은 죽어도 밭에 죽을 사람이야. 밭을 세워주고 배타같이 울릴때 맺는다 그 어지말만 살 한 정 안 살하고 살아났으니 참 신동한 일이었지."

"아예도 시적 직전에 기쁨해엔 쓰러진 모양입니다. 케난 보니 저기 후에 죽은 사람이 여럿이 포개져 났던 것있던 하는 걸 보면…… 그해 밭에 그 어지말은 장신이 어긋나 배된 겨라 마립" 하고 작은달숙어른이 말을 받았다.

"해될 그 밭이 순이이지말네 받아었으니."

그러다가 결국 삼촌은 국립한글학교 근무 중 일주도로변의 밭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는데 부패한 정도로 해서 죽은 지 이십 일은 되어 넘어 보였다. 그 밭이 일주도로에서 한 발 건너에 있었음에도 이십 일이 넘도록 시체 눈에 반 한 것은 기기가 후미지고 웅덩이 발견되다 발견으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풀 못 이년 밭의 두루마기를 입고 있어서 더더욱 눈에 반 되었을 것이다. 서울 수리집에 올라올 때 있었던 밭에 두루마기에 파듯한 포개질 폭도리까지 두르고 자는 듯 으로 누워 있었다. 머리맡에는 먹다 남은 밀떡 사이니가 몇 알갱이 흩어져 있고…… 그렇게 발견된 것이 불과 여드레 전이라는 것이었다.

"그 밭에서 죽은 사람들이 울창분장 되어 거를 되면 이름해엔 길게(고구마)농사는 할 걸 파어서, 길지가 죽을 길어(만들)길지(만들)해사니까."

"그런 순이이지, 보릿처럼 먹던 해였지만 그 어지말네 밭에서 난 길지는 사름 죽은 밭에서라고 사름들이 사해길 언했지."

"그 어지말이 잘 알면 마로 그 밭에서 죽고 밭에서니, 훗훗."

어른들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어쨌든 직전에 사로잡혔다. 순이삼촌은 한 달 보름 전에 죽은 게 아니라 이미 삼십 년 전 그날 그 밭에서 죽은 게 아닐까 하고.

**제삿집:
순이삼촌의 죽음에 대한 사연이 전달되는 시공간**

이렇게 순이삼촌이 단서(端緒)가 되어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그 흉물스럽던 까마귀들도 사라져 버리고, 세월이 삼십
년이나 아제 괴로운 기억을 잊고 지낼 만도 하건만 고향
어른들은 그럴지가 않았다. 오히려 잊힐까 봐 제삿날마다
모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그때 일을 명심해 두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서편 율리키에 붙어 나를 생각할 때가 없자 군인들은 긴 장대 두 개를 들고
나왔다. 그런 고무질 앞 수저끝에 매달아 두었던 것으로 학교 운동회 때마다
벼들거름을 담은 캐바구니 두 개를 받들어 얇은 종이를 받아 만든 큰 공을 높이
매달아 놓는 데 사용되던 것이다. (중략) 그런데 캐바구니를 매달아 놓던 장대가
이번 병풍만 데 쓰일 줄이야. 장대 두 개는 이제 한쪽에 걸쳐 있는 사합살 율리키에서
떨어내서 새로운 구실을 했다. 장대 양끝에 굳어진 한 사합살 붙어서 군중 속으로 끌고
들어가 장대로 오십 명쯤을 축 캐어내어 고문 있는 데로 끌고 갔다. 그러면 집중한
군인들이 기다렸다가 제위하고 고문 밖으로 새물이 가는 것이었다.

#북촌리 학살

"연살 들뜨려 나오시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국민학교 운동장으로 모여시오!"
모든 때 같으면 순경이나 대동청년단원 몇 사람이 다니면서 사람들을 불러모으는데
이런면 어떤 일인지 불모에 총격이 온 군인들이 수십 명 쯤 다니면서 똑같이
계속하는 것이 뭔가 심상치 않았다. 심지어는 총검으로 앞문을 열어 갖히면서 병든
노인까지 새물었다. 좀 불안한 생각이 없지도 않았지만, 그 건해 5·10선지 무렵에도
그렇게 똑같은 사람들을 불러모은 적이 있어서 그때처럼 무슨 중요한 연설이
있는가 보다라고만 생각했다.

장대 두 개가 서로 번갈아 가며 사람들을 불러갔다. 장대가 머리 위로 떨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위로 나기까지고, 장대에 걸린 사람들은 비가나오려고 뒤주까지했다. 장대
뒤에서 캐바구니는 사람들에게 총알이를 휘두르고 공포를 주어 새겨 사람들은 장대에 매달려
우물우물 고문 밖으로 걸어나갔다. 고문 밖에 떨어져 있달은 일주도로에 새물린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겁에달아 구석같이 움켜쥘며 길게 달리고 계급했다. 군인들의 백짓가랑이를 울루고
울루짓는 할머니들, 중부서에서 등을 짚어 앞으로 군주에게 걸리는 어나세들, 군인들은 총구로
꺼리고 개머리판을 사졌없이 휘둘렀다. 사람들은 휘둘러 새는 총머리판이 무서워 명갈명갈
기어갔다. 가만 죽는 줄 변변치 않았서 어떻게 계 말로 저기 걸어가겠는가. 뒤쫓기는
사람들에게는 뒤꿈치에다 새고 총을 쏘아 갔다.

#진실을 밝히려는 자, 감추려는 자

"아니유리, 이래도 그냥 아무런 사건도 발생 해질라고 말 거주다. 알츠로 믿어질 만한 게 있어 중세. 그런 심판장을 당사해도 죽고 싶고. 아예남이나 갓수님같이 중년할 정도 들어가시고 나면 다 뭐가 아니우회? 마음 전질리는 남들끼 물어보."

김우형의 말에 갑자기 마음이 뒹뒹 고모부의 입에서 느닷없이 평안도 사투리가 튀어나왔다.

"가세, 고세, 지난날 잘 개개구 자구 들춰 내선 말 하간? 언젠가만 다 기원 개어 아니가서?"

순간 오심을 타버린 고모부 얼굴에서 유달년 전의 재막한 서부장년의 모습을 필로 영프 느낌이

그 용달밖에 몰라진 안고(안고)의 물집 년, 삼십 년이되면 그렇게만 믿고 기념 만한 새들이건만 순이삼촌은 그렇기를 못했다. 뭐 봐야 용달이 줄피지는 그 용달밖에 믿어 두게 두루지 벗어남 수가 없었다. 당장어 말에 모르게 서울-우리집에 올러온 것도 당신을 붙잡고 놓지 않는 그 용달장을 별개게 보려는 마지막 번견함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모노리가 물어 보는 그 용달장은 당신의 속셈이었다. 김은 소(김) 불공신에게 적어 가듯 당신은 머크코양어를 삼배 다시 그 알츠로 끌려버렸다. 그렇다. 그 국승은 한 달 전의 국승이 아니라 서이 30년 전의 국승은 국승이었다. 당신은 그때 이미 국승 자립이었다. 다만 30년 전 그 용달장에서 구구지 용구에서 나온 용달이 30년의 무서과질한 후에(물체)를 보내고 모노리에 당신의 가을 한복만을 꿰뚫음을 보여었다.

#진실 드러내기

그러나 누가 뭐래도 그런 명백한 리항이었다. 그럼에도 그 리항은 30년 동안 세배 천 한 번도 고발되어 온 적이 없었다. 도대체가 그런 경우도 안 나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당시의 공조현관이나 검찰관부가 아직도 권력 주변에 커온 해 아직 일어나 나가적 않았스라하고 설 사할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분출이 들고 사한타간 행정어로 돌릴 것이 주려졌다. 고발할 용기없는년 할당위령에 한번 보듯이 기념 영프스적 없었다. 하도 무성케 당행된 그들인기까 지게 감을 띄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영프 고발어) 보복이 아니었다. 다만 정동위령제를 한번 몇분하게 올리고 뒤떨러를 새워 역출한 국승들을 인준하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거해지가 뒤라해서 30년 동안 각자의 머무른 가슴속에서면 갓한 개 한 번도 몇분하게 영프를 온 온 영프들이 예크지할까 봐 두려었다.

표준어와 사투리

아래의 예도가 우선 글자였다. 순이삼촌이 쓰는 사투리를 어내는 알아듣지 못했다. 이렇게 보려고 게으는 것 같기도 있었다. 그게 무슨 말이라는 듯이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볼 때 나는 더 지언이 무지당한 것처럼 영달어 붙어지는 것을 느껴야만 했다. 그런 영프스적 아내가 무슨 영프 호계호문을 썼다가 제 본적이 남편 본적인 경우으로 올러 있는 것만한 사실을 가지고 무적 놀란 표정을 지었을 때 내가 느낀 수직감에 비슷한 것이었다. 이렇게 사투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아내 앞에서 순이삼촌의 적정은 어떻게 해야 올러가? 그저 말수를 줄이고 지기는 말한 고분고분 채로는 수동적인 입장을 취할 도리밖에 더 있는가.

※ 사투리 : 존스리를 번역(표준어)

순이삼촌의 등장-순래된 기억을 환기.

은폐된 기억을 환기하는 언어-사투리

아들놈마저 제 애비의 고향을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렇다. 서울말 일변도의 내 언어생활이란 게 얼마나
가식적이고 억지준항적이었던가. 그건 어디까지나
표절인생이지 나 자신의 인생은 아니었다.

언어-기억투쟁의 도구

특정지역 언어를 구사하는 고모부

학살의 기억과 변주된 어휘(사투리/제주사투리/과배지역 기억)

기억투쟁의 시작

"이해 큰아버지가 꿈 있는 소일 1세대, 고향을 돌려 되찾아 버렸다. 눈앞이 멀어 보인 송중이처럼
공활거리는 것으로 보여 잠시 일기가 뒤집힌 모양이었다. 고모부는 그제서야 어휘-사투리를
쓰고 있는 자신을 깨달았는지 흥분 놀라며 말을 멈췄다. 관당숙, 작은강숙 어른도 못이었던
표정으로 당백만 울음을 흘려 버렸다. 잠시 거북살스러운 입술이 울었다. 그러나 언제나 반쪽
같은 고모부는 곧 강사투리로 돌아와 다시 말을 꺼냈다."

피해자의 언어/가해자의 언어

"아니우다. 이래보 그냥 사투리야 사건은 영영 해결되고 말 지우다. 앞으로
일이십 년만 더 있어 볼세. 그런 심판받을 일사적도 죽고 없고. 아베님이나
당숙님같이 공연할 본도 돌아가시고 나면 다 허사가 아니우제? 마을
친절로는 남을지 몰라도."

김수현의 말에 갑자기 허풍이 날던지 고모부의 입에서 느닷없이 평안도
사투리가 튀어나왔다.

"기예, 프예, 지나간 걸 개자구 자꾸 들춰 내선 별 하건? 친갱이만 다 기련
거이 아니기서?"

순이삼촌은?

National History를 거부하는 local history의 가능성

지역어와 식객집의 방식으로 기억 투쟁과
진실드러내기를 구현하는 작품



현기영, 지상에 손가락 하나

군악청 공장에 금번의 공업한 가운데 전사한 그의 주검은 거처에 허전한 일본군 제령의
 추락한 모습이었다. 그런데 집행인의 실수였는지 장난이었는지 그 시신이 해수 수난의
 상흔만 남겨가며 돌아 올라져 있었다. 그 순교의 상징 때문에 더욱 그렇던지 구원하는
 여론들의 표정은 만감이 교차하는 듯 심한데 보였다. 두 팔을 뻗은 채 앞으로 기울어진
 얼굴. 안의 입공에서 흘러내려다 먼 곳을 줄기가 영리 있었지만 표정은 잠자는 듯 평온했다.
 그리고 집행인의 말기속 중의다에 일부러 떨어놓은 손가락 하나. 그 손가락의 시신을
 보존하고 있었으나 그것을 보고 웃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하여 그날의 일지가워 함께 순교의 격지에 관영만을 남긴 채 산하는 끝이 있다. 반중
 속에서 장두가 태어나고 장두를 양육한 관공의 불의에 저항하던 심 공동체의 오랜 전통, 그
 단학의 세계는 그날로 영영 막을 내리고 있었다.



• 1957년 12월 25일 제주 고교생 문학서를 석좌 동인

같은 출발, 서로 다른 종착지

유년기 4.3 제험이라는 공통점
같은 제험 서로 다른 종착지

한길언 "제주 4.3은 남로당에 의한 조직적인 반란"

한길언 (1940 -)

- 1980년 김철선거, 현대문학 추천 원료 등단
- 1984년 용비의 꿈
- 1985년 우리들의 스승님
- 1990년 현대문학상 수상

우리들의 조부님

줄거리:

죽음을 맞을 말순의 할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종말이 '넌'이다. 아버지는 자신이 공비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종을 빌려 자신의 공백을 구상한다. 아버지는 양 구상과 아버지가 아버지의 친구인 김삼에게 할아버지 자신이 양 구상을 속여주었다고 말한다. 아버지의 종생은 아들-사람들 모두 기억하고 있지 않았던 그날의 진실을 이야기한다. 양 구상이 죽던 날 안보단 단행이었던 아버지는 책을 사들여와 포개 노름을 하고 있었다. 김삼이 역시 아버지가 노름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종오에 사로잡힌 말순은 종말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해 아버지는 공비로 몰려 죽게 된다.

왜 손을 씻는가?

현기영의 순이삼촌과 어떻게 다른가?



진실의 은폐

할아버지의 몸을 밟은 아버지
무죄를 증명해 줄 증인(길삼)의 침묵

“노망 든 미친 노인”

“진실을 드러내는 순간 마을의 공동체는 부서질 수 있다.”

“진실을 드러내면 마을은 무너져 버려”
아버지가 몸을 밟은 아버지, 그 사실을 숨겨 주지 않는 증인(길삼)의 침묵은 마을을 무너뜨리는 힘이 된다. 하지만 그 사실을 드러내면 마을은 무너져 버려 버린다. 그래서 증인(길삼)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 침묵은 마을을 지키는 힘이 된다.
“마을은 거짓말을 좋아한다.”
“진실을 드러내면 마을은 무너져 버려”
“노망 든 미친 노인”
“진실을 드러내는 순간 마을의 공동체는 부서질 수 있다.”
“마을은 거짓말을 좋아한다.”
“진실을 드러내면 마을은 무너져 버려”
“노망 든 미친 노인”
“진실을 드러내는 순간 마을의 공동체는 부서질 수 있다.”

나는 방 안에 모여 앉은 친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다. 모두들 뭔가 불안한 표정들이었다. 그것은 할아버지 죽음에 대한 불안이기보다는, 오러리 자 집에서 할아버지가 다시 깨어나는 데 따른 불안이었다.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는 데 대한 불안이었다.

오성찬, 어느 공산주의자에 대한 보고서

당초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에서 어느 공산주의자에 대한 보고서로 수정

위하여에서 보고서로 바뀐 이유는?

할아버지의 죽음

할아버지는 언뜻 언뜻 장난스러워 보였지만 매우 엄격한 분이었고, 일을 잘 하라고 했으며, 나는 그를 보는 순간 풍속처럼 많은 수절에 빠지는 것만으로도 고개를 숙여 버렸다. 할아버지는 "죽어야" 하는 사색적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분이, 할아버지가 사색주의를 추구하여 있었다. 나를 보는 눈빛이 무섭게 번뜩였다.

내가 사색주의를 버리고 할아버지에게서 사색주의를 배워 그 말을 두 입술 할아버지가 꼭 쓰러져 버렸다. 사색주의에 대한 공산주의적 접근이 아니라 "정신, 정념"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할아버지는 고도로 용서할 수 없는 공산주의자였다. 사색주의 공산주의를 추구하여 공산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 것도 노릇을 버리지 않아서인 게 당연한 일이다. 내가 친족들과 많은 사이가 있었다. 누구도 나에게 공산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꼭 기억할 일이었다.

기록자의 운명

일구 한 달에 하마(下馬)와 인명(人名) 몇 개가 새 있었다. 그것을 위해서도 이들의 심오(心奧)를 파헤쳐 보았다. 이, 아니었지. 군중을 향해 공부(公부)를 할 때 뒤에 놓여 있던 것이, 1947년 2월 1일, 11월 기념식을 위하여 인명들은 다시 재회하는 일과를 위하여 했다. 함께 식민지 36년도 지운(지운)에 다시 비문(비문)이다.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상(상)자는 꼭지 말고 앞달에는 좌우(좌우)를 달기. 거러(거러) 줄이(줄이)는 군중(군중)을 관찰(관찰)할 수 있었지. 계급(계급)에서, 호(호)를 가지고 고(고)에서. 관(관)적으로 하여(하여) 다른 군중(군중)의 동향(동향)은 노(노)도(노)도 있었지. 비(비)문(비문)이 기록(기록)에 기록(기록)을 갖고 있지 않았고, 기록(기록)을 통해 기록(기록)을 할 때 기록(기록)을 기록(기록)하지 않았다.

종(종)의 눈(눈)에는 그(그) 날(날)의 기록(기록)을 기록(기록)이 없었다.

죽은 자를 기억하고 제의의 형식으로 그 기억을 공유하는(현기영) 방식과 아무도 증명할 수 없는 무죄 증명을 병의의 형식으로 재현하는 방식(현길연)이 그 자체로 증언의 낙차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기록자의 운명은 또 다른 양상을 띤다. 오성찬은 해석과 판단을 유보한 채 충실한 기록으로서 비존재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을 선택한다. 그것은 4.3이라는 역사적 비극이 특별한 계기에 의해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입장으로 견뎌내야 하는 정주자의 운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략)

그러나 이 거대한 날개가 그후 날간 기록과 제의는 그 많은 말 건 중독, 아니 온 세계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지 않았던가. 그런데 나는 이제 뭐가, 이뤄 놓은 것은 없어 나가면 들어가자 않는가.(중략)

계단과 보면 손에 닿지 않아 있고, 평온 구렁이 축축하게 물기가 느껴지기도 했다. 갈증 같은 것이 목을 비르며 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도 그런 맛을 느끼고 있었다.

죽은 자를 기억하고 제의의 형식으로 그 기억을 공유하는(현기영) 방식과 아무도 증명할 수 없는 무죄 증명을 병의의 형식으로 재현하는 방식(현길연)이 그 자체로 증언의 낙차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기록자의 운명은 또 다른 양상을 띤다. 오성찬은 해석과 판단을 유보한 채 충실한 기록으로서 비존재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을 선택한다. 그것은 4.3이라는 역사적 비극이 특별한 계기에 의해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입장으로 견뎌내야 하는 정주자의 운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록자의 사명이란 판단과 해석이 아니라 기록 그 자체로서 운명 지워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슬하게 반복되는 취재의 편인들이 작품 곳곳에 존재되어 있는 것은 기록함으로써 망각과 싸우고 비존재의 슬죽인 아우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시도이다. 풍경이 아니라 입상으로서의 역사, 언제 어느 때나 슬한 죽음의 아우성들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자의 운명, 그것이 오성찬이 4.3을 다루는 방식

문학적 실천을 바탕으로,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휴전선 철거를 결집합니다

김석범(1925~)

- 일본 오사카 출생
- 1957년 <까마귀의 죽음>
- <간수 박서방> 발표
- 제주도 4.3항쟁의 문학적 형상화



화산도 이전의 소설들

- 화산도의 이전의 소설들

1957년 「간수 박서방」, 「가마귀의 죽음」, 「관덕절」

한글로 쓴 『화산도』 (1965 ~ 1967)



4

김석범이 어필로 원기행과 더불어 43운동과 43문학에서 단연 상징적 인물이기 때문이다. 김석범은 일본에서, 원기행은 한국에서 다른 어떤 글이보다도 앞서서 43항쟁의 진실을 외치 위해 고자함으로써 문학의 힘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김석범은 대한민국 육지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지도 지나지 않았다. 그가 겪었던 국적인 '조선'은 현실적으로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다. 한마디로 그는 무국적자인 것이다. 무국적자인 김석범이 어필로 경제인(經界人)으로서 월경(越境)하는 길을 묻고 싶다면 응 작가라고 할 수 있다. 그의 43문학에서는 비일 제국주의의 함몰에 맞서는 제주섬의 항쟁과 그 치적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

화산도

- ✓ 1976년 문학계에 「해소(海嘯)」를 발표
- ✓ 1976년 김활순 시각-1995년 9월 김활 종료
- ✓ 1997년 9월 모두 7권으로 출간
- ✓ 1988년 실천문학에서 그 1부가 5권으로 번역
- ✓ 2015년 모고사에 화산도 한역 출간.
- ✓ (제주 4·3이 발생하기 전인 1948년 2월 말부터 1949년 6월 유격대의 무장봉기가 간헐될 때까지의 이야기)

주요 등장 인물

이병근 : 남해자동자 이재수 사장의 아들, 전형적인 부르주아 집안으로 개인적 입장과 현실의 충실함 사이에 고민한다. 식민지 시대에는 사찰법으로 체포되어 서울형무소에서 미결수로 복역하였다. 경찰의 갈취에 의해 전향을 하고 좌방되었지만 이 일로 인해 큰 자멸을 경험한다. 해방 후에도 사회에 서는 일을 의도적으로 피한다. 민주주의의 성향을 지니고 있는 인물로 소설의 중요 인물인 남승희와의 교류를 통해 발권주의적 태도를 벗어나 현실적 변화를 추구하게 된다.

남승희 : 해방 후 일본에서 귀국하여 1946년 삼일절 3중학교 영어교사로 재직한다. 귀족운동에 참여하면서 혁명의 길을 걷게 된다. 이병근의 등장 이유와 애절한 애정을 나눈다.

이유원 : 이병근의 누이동생. 서울 음악대학에 다니고 있다. 남승지와 만남을 통해 자신의 출신 정분에 대해 의의식을 느끼게 된다. 풍기 직후 이병근의 권유로 서울로 떠난다.

강봉구 : 남로당 제주도당 부위원장. 이병근이 경찰 쫓겨 사리가 붙어 경찰서 감방에서 허우박을 지낼 때의 인연으로 이병근과 관계를 맺는다. 남승지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교포들로부터 풍기 자금을 모금하고 돌아온다.

유달현 : O중학교 3학년 주일, 남로당원. 식민지시기 전일 행위를 한 적이 없지만 해방 후 갑자기 죄책으로 돌아선다. 기피주의적 속성을 지닌 인물이다.

최삼화 : 해방 직후 도 안민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 판시 이승만과 국민회 소속 제헌의회 입후보하는 시류에 편승하는 인물.

김익구 : 연대장, 청년 장교.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비판적 태도. 일본유학의 학도병 출신 해방 뒤 육사를 나온, 동족간의 살육만은 피해야 한다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한다. 경찰과 유격대 양방에 화해를 호소하지만 실패로 끝난다.

양준호 : 미군경찰 동맹으로 입회다가 제주도지사 비서 격인 총무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시골 소학교를 나와 어머니와 함께 일본 행. 어렵게 대학을 다니다가 학도병 동원령이 실시되기 전에 결별을 피해 3학년에서 중퇴한다. 이병근과는 독서회 회원으로 재모임 당시 유격장에서 처음 만났다.

김동일 : 한라신문 기자. 소설가를 꿈꾸는 문학청년으로 43분기 백화 인쇄물을 한라신문에서 제작하는 데 관여한다. 풍기 이후 상황을 떠나 유격대 생활자가 되기 위해 입산한다.

부영아 : 이병근 집의 하녀. 이병근과 근밀한 유제 관계를 맺는 인물. 둘의 관계가 알려지며 선옥(이병근의 계모)에 의해 집에서 쫓겨난다.

화산도의 해방 정국 인식



"대한민국은 개국이 말하는 정치적 자유주의가 아니라, 그 토대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는 그 동무도 모르지 않고 있었지. 해방이 된 인간이 해방을 받고 소리를 보지 않고, 한심하게 계급(階級) 차이도 없었던이 남한 계급을 거의 끝까지 가진 자로 돌아올 생각이. 도둑이나 다른 것이 없어. 민족면역기, 한일이기 양쪽의 계급을 지체하고, 세국적이 수단을 말하는 불신적인 모양이 이 나라에 걸려난 개야. (중략) 그야말로 이 민족은 아만하여 갈망하던 개같이 이르러 난 모 걸린 노양이. 일제강점기의 대일 불만에 대한 불신적인 것은, 이제 개같이이구나."

맥아더 사령부 포고 제1호(1945. 9. 9)

조선 인민에게 고함

미국 해방당 앞면 폭탄 폭사명단으로서 이에 다음의 같이 포고한다.
일본 제국 정부의 연합국에 대한 무조건 항복은 이제 여러 국가 군대 간에 오래 전에 확고히 확립된 무조건 항복을 끝내게 하였다. 일본 전황의 변천에 의하고 그를 대표하여 일본 제국 정부의 일본 대표장이 주일한 항복문서의 조항에 의하여 조선의 지휘 하에 있는 승리에 달하는 군대는 감일 폭탄 폭사명단과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



제4호 주간의 개인소유물과 이를 보존한다. 무조건 항복의 발효의 발효의 발효를 하기 직전의 발효에 유지한다.

제5호 군용 기간에는 영어를 모든 목적에 사용하는 군용어로 한다. 영어 원문과 조선어 또는 일본어 원문 간에 해석 또는 번역의 정확성이 없거나 같이 있을 때에는 영어 원문을 기본으로 한다.

제6호 이후 공포하게 되는 포고 명령 유령 국어 지시 등 포고는 조선 또는 조선의 안전 하에서 발효될 것이기 수없이 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정지할 것이다.

미국군 해방당 앞면 폭탄 폭사명단

미국 총사령관 맥아더(Dwight MacArthur)

제1호 폭탄 폭사명단과 조선 영토에 대한 통치에 전 권한은 일본군 본편의 권한 하에서 시행한다.

제2호 정부 공판에 및 기타의 영예직함과 고등인 또는 공직사실 증명서등을 포함한 전 공문서등기간에 공시하는 국문 혹은 한글 지령과 고등인 또 기타 제반 중요한 사업에 공시하는 하는 발효의 발효가 있을 때까지 공재의 영실적인 기능과 의무를 수행하고 모든 기록과 재산을 보존 보호하여야 한다.

제3호 주일권 본관 및 본관 권한 하에서 발효된 영령에 국문 복종하여야 한다. 영령에 대한 모든 반항행위 또는 공문서등을 교역하는 행위를 집행하는 하에 대해서는 용서 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다.

조선인민공화국 1945년 9월 6일



이승만 정읍발언

이제 우리는 무기후회한 공위키 재개할 기력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니 세력에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명명여에도 형사정부 혹은 헌법제 같은 것을 조직하여 30 이후에서 소련이 철회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할 것이다. 세력분도 결집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 통일기관 설치에 대하여 지금까지 노력 하였으나 이번에는 우리 민족의 대표적 통일기관을 위대한 후 죽이 설치하게 되었으나 각 지방에서도 중앙의 의지에 순응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여주시기 바란다.
1946년 6월 3일



공동체의 분열

우리는 결코 우익을 포용할수없다
우리는 결코 우익을 포용할수없다
우익 공화 정치는 바로 반민주요고
민주주의 최고 원리는 바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핵심은 바로 국민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보람은 바로 국민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익은 결코 우익을 포용할수없다
우익은 결코 우익을 포용할수없다

서울/제주

"(천안) 도민이 빨갱이라고 해서 삶을 불태우고, 전상교사단의 도발을 격지하면서 삼육 학원을 세운다는 것, 그것은 제주도 사람을 동족으로 건주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충격)

"제가가 정부 속에서는 제주도 30만 도민이 희생된다 한들, 대한민국의 존엄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제2차 세계대전 때의 나치의 말살과 유사한 것으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무엇인가 하는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같은 동족이 하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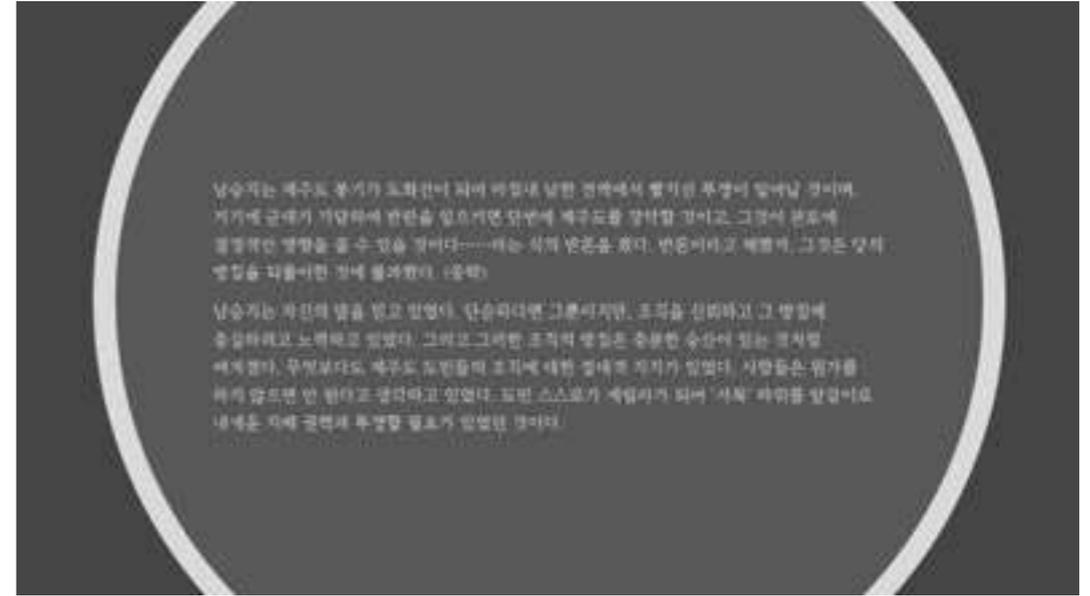
아무리보셔도 제주도에서의 사태 전개가, 재빨리나 공산당 혼돈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도민과 관련이 있다는 것, 앞으로 있게 될, 아마도 불가피한 고향 땅의 참상에 대해 그 나름의 생각이 작용하고 있을 지였다. 이미 눈앞의 현실로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도발전의 결과에 따라 초래될 것은 극악이 아니라, 화를 위해 그 중간은 있을 수 없는 자유이라는 것은 분명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의 자유이 될지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다. 이 무거운 결과를 예상하면서, 여전히 보편권을 향하는 것은, 상황이야 어찌 되었건 제주도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 심의 발발을 도리는 최후 집합자의 말길이에 불거렸다



외부 침입자

미국: 제병함 너머에서 온 외적

서북/북지정찰: 제주도 너머에서 온 같은
조선이라는 외적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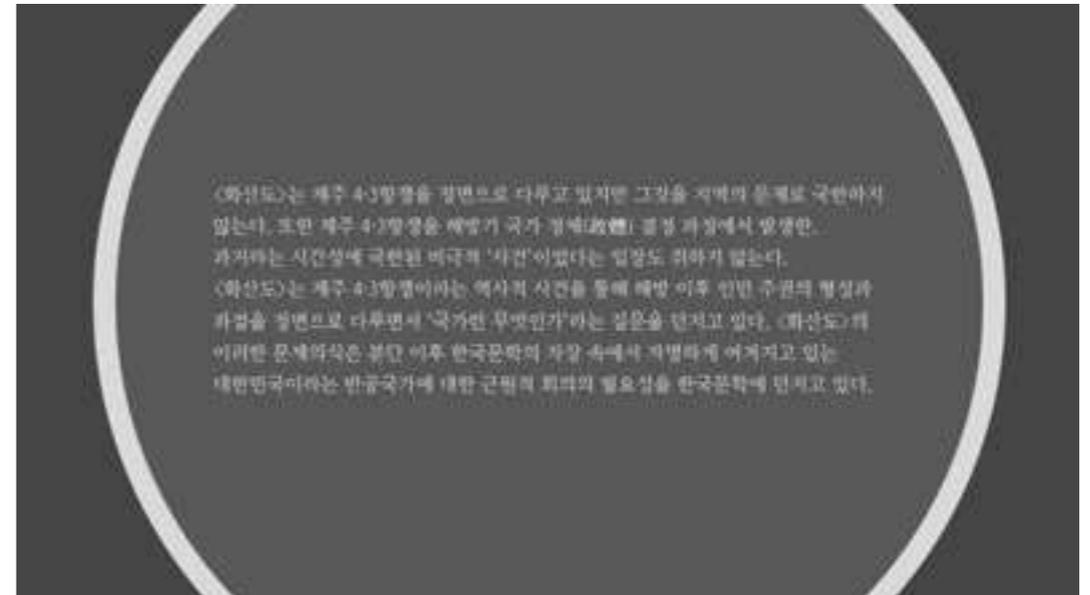


남승지는 제주도 봉기가 조직되어 되어 바닷대 앞한 경계에서 별다른 주장이 없었기
거기에 군대가 격담하여 반란을 일으키면 당번에 제주도를 장악할 것이고, 그곳에 본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식의 논문을 썼다. 반문이라고 하면, 그것은 당시
당국을 다룬이한 것에 불과하다. (중략)

남승지는 자신의 말을 믿고 있었다. 단순하다면, 그뿐이지만, 조직을 신뢰하고 그 방향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조직의 생김은 충분한 승인이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무엇보다도 제주도 도민들의 조직에 대한 별다른 지지가 없었다. 사람들은 믿음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도민 스스로가 제압되기 되어 '서북' 재위를 달성으로
내세운 지에 국면과 투쟁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서울 정권에 맞선 지역의 저항



《화산도》는 제주 4·3항쟁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지만 그것을 지역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는다. 또한 제주 4·3항쟁을 해방기 국가 정세(政勢) 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과정하는 시간성에 국한된 비극적 '사건'이었다는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

《화산도》는 제주 4·3항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해방 이후 있던 주권의 형성과
과정을 정면으로 다루면서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화산도》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분단 이후 한국문학의 자갈 속에서 격렬하게 여겨지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반공국가에 대한 근원적 회의의 필요성을 한국문학에 던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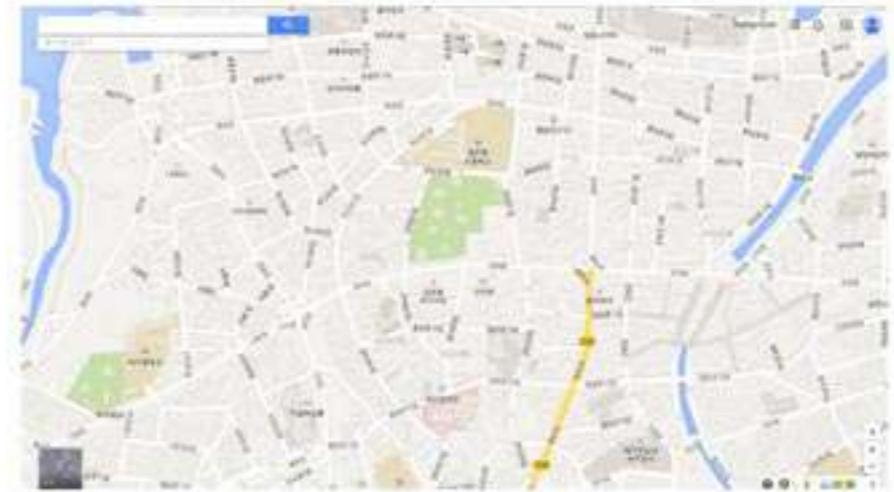
남승지의 길

소설의 중심 무대는 제주도, 그 중에서도 관덕정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각각은 소설 속 인물들의 동선을 통해 제주도 원도심을 상상적으로 재구성
소설 속 많은 인물들이 어방군의 시재를 중심으로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소설이 출판 관덕정과 침성등을 중심으로 한 성내의 거리를
배경으로 진행
소설의 주인공은 남승지와 어방군이 아니라 바로 성내의 거리들

길모퉁이의 어방소를 돌아서서, 갑자기 시야가 희어면서 오른쪽에 넘어진 광상이 펼쳐졌다.
그러나 신각리는 왼쪽에 넘어진 광산을 따라 일직선으로 거북을 향해 향하고 있었다. 오른쪽
모퉁이의 어방소 안쪽에 신각리와 직각으로 교차되는 길 하나 있었다. 오른쪽 모퉁이의
어방소 건너편에 나 있는 고리막길이 남문동이고 오른쪽은 경성을 지나 바다로 통하는
길이었다. 그 길과 신각리 사이에 방금 건너온 미분국을 통하는 길 하나가 있다. 그 길로 한
모퉁이의 어방소는 신각리의 경성과 상황이 같은 길인데 언제 있어서 눈에 잘 띄었다. 길가에
가려면 버스를 내려 신각리를 되돌아가는 게 가장 길이지만, 길상황으로도 갈 수 있다. 양갈
목판의 소나무숲을 배경으로 단절이 몇 차례 거꾸로돌아간 관덕정 건물에 커다란 주저는 초원
하늘에 주저의 동적으로 우뚝 서 있었다. 모두가 한층이거나 기껏해야 3층 건물들이었다. 그
가운데 수백년 역사를 가진 고종스러운 관덕정 건물에 아직도 주저를 뒤집어쳐 단절의 서
있었다

제주 성내로 진입하는 버스 안

버스는 환한 반 바닷길을 돌아갔다. 말죽에 성내 시가지가 보이기 시작한다.
기회적분을 사이에 조가리꽃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다. 바닷에 저풍이 날아가기
않도록 굵은 빗줄로 비둘기처럼 돌아온 조가리꽃들은 성내 인구 언저리에 밀집하여,
갑툭툭 밀어 착 떨어붙어 있었다. 파퓰러를 돌아나기 시작한 사람물 거울의
부드러운 반디가 신각리 오른쪽에 커 작은 나무들이 적당히 잘 서 있는 고갯길
끝까지 번여 있었다. 신각리 왼쪽에는 길과 밭 사이에 울림자갈을 쌓아 만든
물담이 여기저기 이어지고 있었다. 산길의 바위 비온 흙이 바위에 날려 초연(초연)처럼
되어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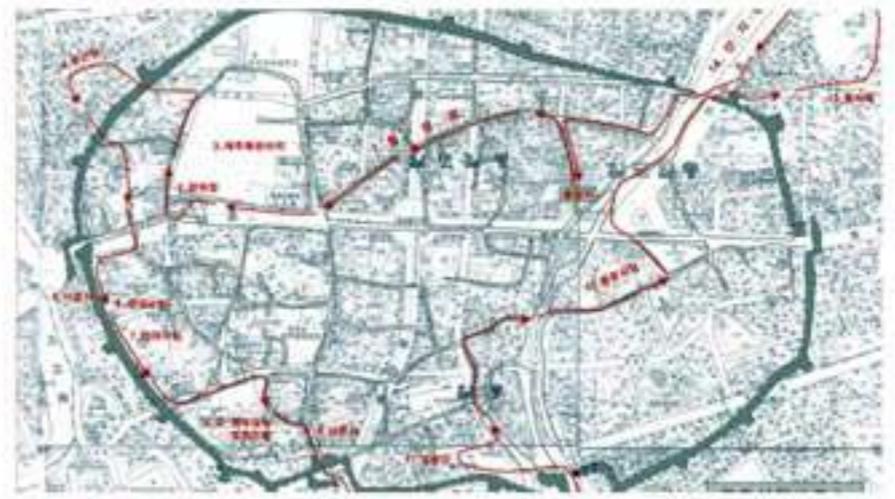




장장 잊은편에는 아까 버스를 내린 정류장 곁의 차고와 재밌은데,
 그리고 식산은행의 초려한 건물에 들어서 있었다. 문득 식산은행의
 1층과 2층 사이에 현수막이 내걸려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김정석과
 푸른색의 페인트로 찍어진 '국제연합 조선위원단을 열렬히
 환영합니다'라는 글자가 바깥에 걸려있고 있었다. 작년(1947년)의
 국제연합 제2차 총회에서 조선문제를 결의한 뒤, 12일부터 계속 내걸려
 있는 '환영' 표어의 하나였다.



1914년 촬영된 관덕정 모습



이방근의 길



이방근과 양준오

곰발 청주를 나란히 마시고 난 두 사람은 북국민학교 앞 거리를 왼쪽으로 구부러져 나와 칠성동 입구로 향한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칠성동 거리의 카바레 '산세기'였다. 최근 개업한 제주도 유일의 호화 카바레에는 최고급 전속에서 유행가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비분강개와 취기가 뒤섞여서일까, 그들은 마침 카바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서정 폐거리들과 식비가 붙는다.

서정의 제주 출현
제2대 도지사 유해진
1947년 11월 2일 서정
제주도지회 공식 출범



제주-일본/조선-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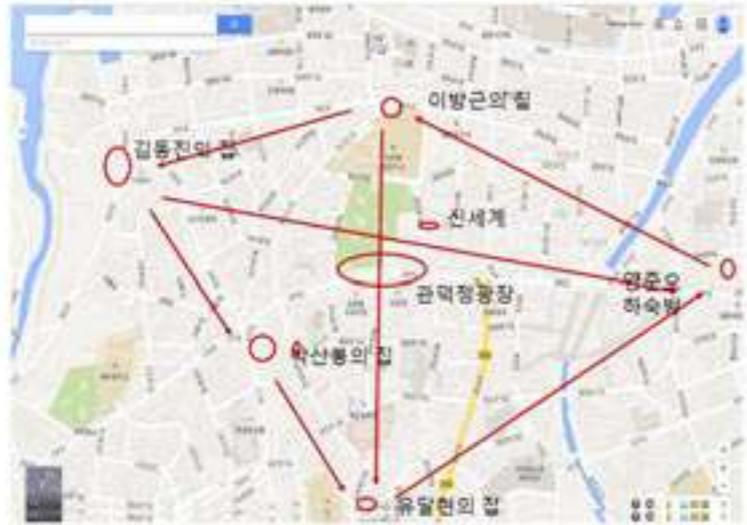
나는 조선을 떠나고 싶어요. 나는 이곳에 친척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해방 덕분에 다른 사람과 똑같이 조국이라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고향"이라는 것 때문에 허리로..... 떨어지면 추상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다면—나는 고향에 아무런 의의도 없고, 여기 있는 것보다 외국에서 사는 편이 낫습니다.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라도 좋지만 미국에는 쉽게 갈 수가 없으니깐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미국에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해방 후 미국이 이 나라에서 한 짓을 보면 결코 미국이라는 나라가 싫어졌어요.

이방인은 냇가로 나오기 마다되는 반대방향인 오른쪽으로 구부러져 철길등으로 통하는 다리를 건너, 이끼 시냇물을 사이에 두고 저다보았던 측후소 건물 앞으로 돌아왔다. 바다쪽으로 기울어진 측후소 앞의 갈매기밭길을 돌아가면 산지교구로 나오게 된다. 동문디리를 건너는 신작로로도 갈 수 있지만 이쪽이 길을잡아였다.(중략)

이방인은 바다쪽을 향해 갔다가 길이 거의 끝나는 저쪽에 서 있는 길 앞에서 발을 멈춘다. 다른 길들은 대문이 없어 안쪽과 도로가 그대로 이어져 있는데, 이 길만은 곡문을 두게 만들어놓은 듯한 작은 대문이였다.

관덕정 광장을 부근으로 한 이방인의 행로는 양준오의 집을 찾아가면서 동문물 쪽으로 이어진다. 이방인은 별이 가득한 밤 하늘 밑을 걸으면 양준오의 저숙집을 향해 걸어간다. 갈짜질이 있는 내거리에서 관덕정 광장으로 통하는 길로 곧장 가지 않고 왼쪽으로 구부러진 이방인은 부두를 따라 흐르는 신지천 냇가로 향한다. 신지천 상류에는 달이 밝게 비치고 있었다. 왼쪽의 부두와 그 너머로 등대 불빛이 환하다. 맞은편 냇가에는 돌계단이 있고 계단 높은 곳에 측후소의 바둑 건물이 눈에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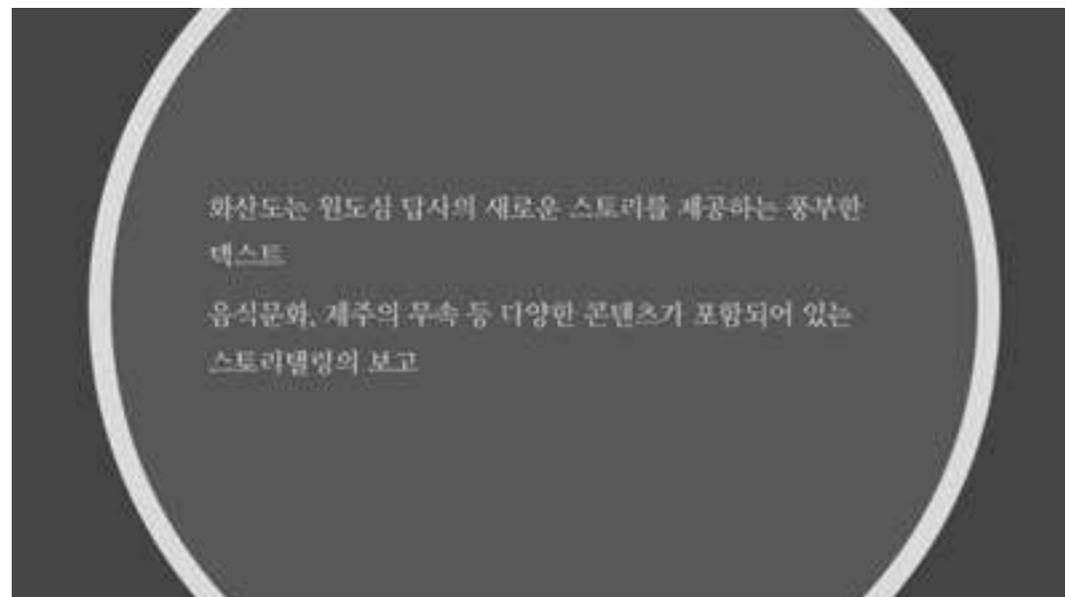
제주문학이란

우리의 기억을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방식으로 말하고자 했던

문학적 실천



사진으로 기록하는 제주의 역사와 문화

강정효

사진작가



시대를 기록하다
- 울산 반구대 암각화와 제주시 외도동 성혈

오늘날 사진이란

- 虎死留皮人死留名(호사유피인사유명)
- 虎死留皮人死留寫眞...



제주를 기록한 그림들
- 탐라순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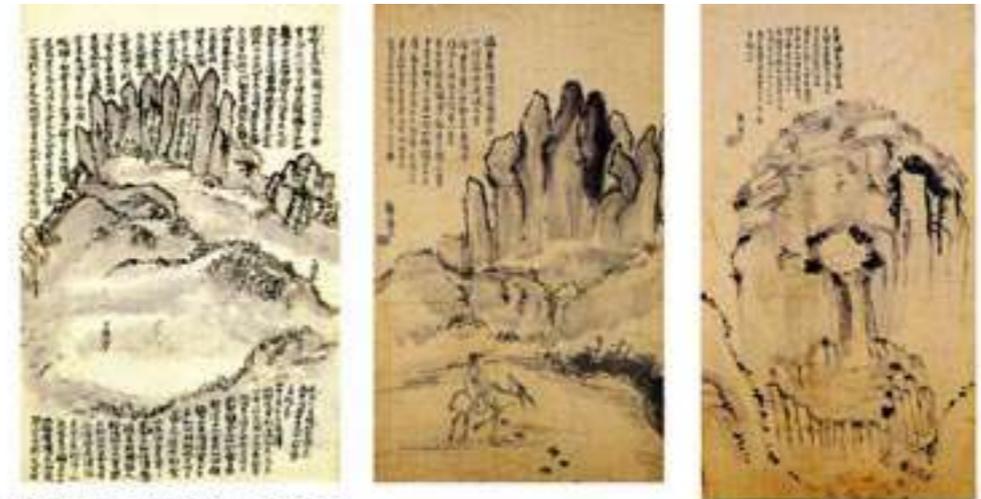
제주를 기록한 그림들
- 내왓당 무신도

제주의 풍경을 그리다

이익태목사 제주십경도(0점)와 지영록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제주십경도 10점
개인 소장 제주12경도 중 4점
일본 고리박물관 소장 영주십경도 중 4점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탐라십경도 중 4점
학산 윤제홍(1764-1845?)
순원 정재민 영주십경도



제주를 기록한 그림들
- 백록담 : 제주십경도 중 백록담, 영곡, 산방



제주를 기록한 그림들
- 학산 윤제홍 한라산도, 백록담, 천제연



제주를 기록한 그림들, 백록선자 부분



사진으로 기록한 제주의 역사
- 신축년 항쟁과 관덕정 앞 오일장



사진으로 기록한 제주의 역사
- 산지항과 관덕정



사진으로 기록한 제주의 역사
- 재현 복원의 사례 : 입춘굿



사진으로 기록한 제주의 역사
- 사라진 거옥대 : 이즈미 세이이치, 이은상의 거옥대

사진으로 기록한 제주의 역사

- 오래된 미래
- 시대의 기록
- 오늘은 다시 어제가 되고...



4.3과 사진
- 한라산 사람들-5.10단선 반대



4.3과 사진
• - 사진의 정치학



4.3과 사진
 • - 한라산 개방비와 평정비

제2차 직설기 한라산 등산대에 참가한 홍준인, 최창이 제주도 4.3사태 평정기(기념비)를 바라보고 있다.



시대의 기록, 오늘은 다시 어제가 되고
 -만농 사진들



시대의 기록, 오늘은 다시 어제가 되고
 -만농 사진들



시대의 기록, 오늘은 다시 어제가 되고
 -국가기록원 사진들



시대의 기록, 오늘은 다시 어제가 되고
-관광 기념품



시대의 기록, 오늘은 다시 어제가 되고
-도청, 시청, 군청의 사진들



시대의 기록, 오늘은 다시 어제가 되고
-관광 기념품/ 국가기록원



시대의 기록, 오늘은 다시 어제가 되고
-도청, 시청, 군청의 사진들



시대의 기록, 오늘은 다시 어제가 되고
-도청, 시청, 군청의 사진들



시대의 기록, 오늘은 다시 어제가 되고
-사진 아카이브 필요성 : 제주산악회 사례



시대의 기록, 오늘은 다시 어제가 되고
-사진 아카이브 필요성 : 제주산악회 사례



시대의 기록, 오늘은 다시 어제가 되고
-사진 아카이브 필요성 : 제주산악회 사례



시대의 기록, 오늘은 다시 어제가 되고
-사진 아카이브 필요성 : 제주산악회 사례



시대의 기록, 오늘은 다시 어제가 되고
-사진 아카이브 필요성 : 역사의 기록



시대의 기록, 오늘은 다시 어제가 되고
-사진 아카이브 필요성 : 제주산악회 사례



시대의 기록, 오늘은 다시 어제가 되고
-사진 아카이브 필요성 : 역사의 기록



시대의 기록, 오늘은 다시 어제가 되고
-사진 아카이브 필요성 : 역사의 기록



시대의 기록, 오늘은 다시 어제가 되고
-사진 아카이브 필요성 : 사라진 나무들



시대의 기록, 오늘은 다시 어제가 되고
-사진 아카이브 필요성 : 역사의 기록



시대의 기록, 오늘은 다시 어제가 되고
-사진 아카이브 필요성 : 역사의 기록



시대의 기록, 오늘은 다시 어제가 되고
-사진 아카이브 필요성 : 역사의 기록



시대의 기록, 오늘은 다시 어제가 되고
-사진 아카이브 필요성 : 역사의 기록



시대의 기록, 오늘은 다시 어제가 되고
-사진 아카이브 필요성 : 역사의 기록



시대의 기록, 오늘은 다시 어제가 되고
-사진 아카이브 필요성 : 역사의 기록



시대의 기록, 오늘은 다시 어제가 되고
-사진 아카이브 필요성 : 역사의 기록



시대의 기록, 오늘은 다시 어제가 되고
-사진 아카이브 필요성 : 역사의 기록



시대의 기록, 오늘은 다시 어제가 되고
-사진 아카이브 필요성 : 역사의 기록



시대의 기록, 오늘은 다시 어제가 되고
-사진 아카이브 필요성 : 역사의 기록



시대의 기록, 오늘은 다시 어제가 되고
-사진 아카이브 필요성 : 역사의 기록



시대의 기록, 오늘은 다시 어제가 되고
-사진 아카이브 필요성 : 역사의 기록



시대의 기록, 오늘은 다시 어제가 되고
-사진 아카이브 필요성 : 역사의 기록



시대의 기록, 오늘은 다시 어제가 되고
-사진 아카이브 필요성 : 역사의 기록



시대의 기록, 오늘은 다시 어제가 되고
-사진 아카이브 필요성 : 역사의 기록



시대의 기록, 오늘은 다시 어제가 되고
-사진 아카이브 필요성 : 역사의 기록



시대의 기록, 오늘은 다시 어제가 되고
-사진 아카이브 필요성 : 역사의 기록



시대의 기록, 오늘은 다시 어제가 되고
-사진 아카이브 필요성 : 사진의 힘

당신의 사진이 맘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충분히 다가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로버트 카파

영상으로 기록하고 소통하는 제주인의 삶

안현미

스토리AHN 대표

기억은 기록으로 역사가 되다, 아카이브(ARCHIVE)

- 영상으로 기록하는 제주인의 기억과 현장 -

안현미 (스토리AHN 대표, 다큐멘터리 작가)

영상 Archive (제주여성생애사)

제주여성이, 제주역사입니다!

영상 Archive (제주여성생애사)

"소녀는 이제 역사가 되었다."

영상 Archive (제주여성생애사)

- 영상 Archive를 하는 이유 -

1. 1900년대 초반에 태어나 일제강점기, 제주 4.3, 민주화 운동, 국제자유 도시, 특별자치도 지정 등 바람 타는 현대사를 온 몸으로 겪어온 어르신들은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의 작은 박물관
2. 삶의 뒷밭에서 묵묵히 인생을 개척해온 그들의 삶을 영상으로 재복합으로써 아래로부터의 역사 기록에 일조

영상 Archive (제주여성생애사)

- 영상 Archive를 하는 이유 -

3. 한 세대가 서서히 저물고 있는 시점, 역사가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영상채록 더욱 더 중요
4. 어르신들의 생생한 욕망과 표정 등을 통해 굵직한 시대의 흐름 뿐만 아니라 감정의 역사 또한 기록할 수 있음
5. 영상기록을 통해 박제된 역사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풍경으로 재현, 기억과 현장이 오롯이 담길 수 있는 날 것 그대로의 아카이브

영상 Archive (제주여성생애사 - 제주여성 허스토리)



제주여성 허스토리·올해의 여성평등문화콘텐츠상 수상

문화관광체육부, 여성신문사, 여성문화네트워크 주최

“2022 올해의 여성평등문화콘텐츠상 수상”

“30년생 김치영·다큐멘터리 감독들” 역대 수상작품

“한 여성의 생애가 역사가 되다”
제주발전을 위해 헌신을 했음에도 그림자로 존재해야만 했던 제주여성들의 삶이 활력을 영상기록으로 남기는 작업

영상 Archive (제주여성생애사 - 제주여성 허스토리)



제주여성 생애사 아카이브 - 제주여성, 허스토리

- 2021년 - 2024년 현재까지, 총 38명

2021년 14명 (제주도내 86세 이상 제주여성)

2022년 10명 (제주도내 86세 이상 제주여성)

2023년 14명 (제주도내 86세 전 후 제주여성)

2024년 10명 (제주도내 86세 전 후 제주여성)

영상 기록을 통해 오랜 세월 제주여성에게 전해져 오는 제주여성의 DNA를 탐구하고 규명하는 작업



영상 Archive (제주여성생애사 - 제주여성 허스토리)

- 김○생 (101세, 남원읍 신흥2리)



“태평양 전쟁 때 일본 사람들이 너무 무정합니다. 조선사람은 병장으로 징용하면 무서운 곳으로만 임장을 채우고... 조선 사람 병장으로 (강제징용) 간 사람들 중 한 사람도 돌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물에서 죽어서 물이 되었는지, 땅에서 죽어서 흙이 되었는지, 부모님대는 병장으로 나간 날로 재사하면서 물면서 남은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밭에 농사를 지어놓으면 일본 사람은 공출이라고 하면서...”



영상 Archive (제주여성생애사 - 제주여성 허스토리)



영상 Archive (제주여성생애사 - 제주여성 허스토리)



영상 Archive (제주여성생애사 - 제주여성 허스토리)



- 고ㅇ화 (토종 농사꾼, 유년기 오사카 폭격 기억)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다보니 도전하 (오사카 시내)에 살 수 없어서 이제 조금 조용한 부락에 가서 살았지. 여기서 살다가 밤 중에 폭탄 떨어져 버리면 우리 죽을 것이라서 우리 어디로 피해야겠다고 해서 조용한 부락으로 피난 갔습니다. 9사 되면 구시오 케오라면서 사이엔 관광을 돌리고 구시오 케오라고 하면서 미국 비행기가 핀민인 폭격을 했습니다."



영상 Archive (제주여성생애사 - 제주여성 허스토리)

- 강ㅇ희 (서귀포 여성 기업 개척자)



"그때에는 모리나 오사 농사지었던 공장을 폐업했습니다. 반야도 할당장이 있었습니까. 그 안에서 일을 내면서 모리나, 함양농을 해주시 모리나, 미정내 집에서나 동양대 집 해서 그것을 대신 내담해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할매 가서 무를 돌다가도 비행기 소리가 나면 잠에 들었습니다. 그 일고할매, 사할오로만 보이게 하려고, 자리를 합쳐려고 다니는 제 하네만 영도 죽어 버렸던 시대이니까, 비행기에서 폭격을 해버립니다. 지금도 비행기 소리 나면 그때가 떠올라 가슴이 무섭게 울렁울렁 합니다. 그때 기억이 가슴에 남아 있어서, (조용하고, '학살 때 피니까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그 다음엔 모리나, 시선이 딱히 바뀌지...")

영상 Archive (제주여성생애사- 제주여성 허스토리)



영상 Archive (제주여성생애사- 제주여성 허스토리)

1. 역사(歷史)에 대한 기억과 현장

(1) 일제강점기

- 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
- : 서당에서 어깨너머로 공부
- : 일본어 교육, 창씨 개명 등

영상 Archive (제주여성생애사- 제주여성 허스토리)

1. 역사(歷史)에 대한 기억과 현장

(1) 일제강점기

- 강제징용에 대한 기억
- 공출에 대한 기억
- : 보리, 고구마 짚간, 낫그릇, 씨앗, 찬디(태역) 공출 등
- 공습과 폭격에 대한 기억
- 배고픔에 대한 기억

영상 Archive (제주여성 생애사- 제주여성 허스토리)

- 현ㅇ생 (4.3유족, 파독 간호사)



"1976년도에 아이들 아빠가 독일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가려고 일시 귀국을 했어요. 머권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우리 어머니 신원조회를 하니 4.3 행방불명자의 부인이라고 되어 있어서 못 모시고 가게 되었어요."



"4.3때 행방불명되신 아버지는 남원읍 한남리에서 농사짓던 분이세요. 23세에 마을에 포벌대가 들어닥치면서 행방불명이 되었고, 재 밑에 있던 한 살 난 동생들도 난리를 피해 아채밭에 몸을 숨겼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영상 Archive (제주여성생애사 - 제주여성 허스토리)



영상 Archive (제주여성생애사 - 제주여성 허스토리)



영상 Archive (제주여성생애사 - 제주여성 허스토리)

- 고○순 (북촌 4·3 생존자)



“당시 저는 아홉살이었습다. 매일 마을로 탄압이 와신디 하루는 군인차, 하루는 순경차오면 (어머니가) 관여야 완순아, 영택이 우리 오늘 다 죽었어라고 하면서 집에 들어옵니다...”
 “창으로 장호지를 푼 찌르면서 운동장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기관총을 배들더니 앞줄에 있던 동네 심준을 다닥 쓰더라고요. 기관총이 다다다 하면서 총소리가 나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완순아, 완여아, 대가리 땅에 박으라, 박으라...”



영상 Archive (제주여성생애사 - 제주여성 허스토리)

- 김○열 (잃어버린 마을 윤남비 출신)



“윤남비는 4·3으로 잃어버린 마을이 되어 버려서다. 원래 소와 말만 키웠던 마을이우다. 거기서 여덟살때까지 살아수다. 4·3 때 토벌대가 마을에 불을 붙이면서 폭도 심어간다고 빨리 내려가야 한다고 해서 소개를 갖추마침. 그때 우리 집에도 불을 붙여 버려서 아버지와 어머니 가족들은 상가리 마을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상 Archive (제주여성생애사 - 제주여성 허스토리)

1. 역사(歷史)에 대한 기억과 편향

(2) 제주 4·3사건

- 부모님과 가족희생에 대한 수난사 기억
- 마을공동체 파괴와 소개에 대한 기억
- 성당 쌓고 보초 서기에 대한 기억
- 잃어버린 마을에 대한 기억
- 윤남비, 곤돌동, 삼발구석 등

영상 Archive (제주여성생애사 - 제주여성 허스토리)

- 김옥 (제주시 삼도동, 무근성 터줏대감)



"<필>일이 일요일이었는데,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제 (밭직공
작) 기숙사에 밥 먹으러 갈까 하고 있는데, 기숙사 선생님이 피신
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갖지 말고 뚝만 나오세요. 나오세요 하더라고.
삼발선이 터졌구나 부르릉 부르릉 울소리 나니까 그래서 이제 <년> 번
것을 다 썼어. 나 혼자만 갈 수 없어서 같은 공장에 있던 귀덕, 국지,
금성 사람들이랑 피난을 가기 시작했지.
일단 대구로 가서 배를 타고 제주로 가면 되겠지 했는데, 그게 나중에
원래할까지가게 된 것이라...>

영상 Archive (제주여성생애사 - 제주여성 허스토리)

- 고옥 (6.25 당시 제주여성해병대)



"그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이 남다는 얘기는 없었지만 돌발이요.
어느날인가 학교(제주여성)에서 모이려고 해서 다 모였는데, 학생들 중
에서 내가 키 커서 제일 먼저 선발된다고. 그게 신재현사모였어. 그 일
이 있고난 후 <일단> 신문에 여성해병대 합격자 왔단 말이...>

"남자 <전쟁은> 멀리 부모에게 가 있고, 여자 <전쟁은> 제일 나중에 있는
대 배가 죽 거는데 그때는 눈물이 나더라고...>

"남녀가 똑 같이 훈련받았어. 일제 총도 쏘고 구보도 하고, 키가 작은 여자들의 경우
총 빼고 걷는 것이 아니라 총을 끌면서 구보했지...>

영상 Archive (제주여성 생애사 - 제주여성 허스토리)



영상 Archive (제주여성생애사 - 제주여성 허스토리)



- 김ㅇ자 (4.3 유족, 월남 파병 가족)

"남편은 4.3으로 부모님도 희생되고 밭도 없어서 돈을 벌러 월남전에 간 거라 마썸. 자원에서 백마부대로 참전하신다 부모님이 4.3으로 돌아가시자 남편은 공부도 못해 글을 잘 몰라부난 월남전 끝난 후에 부산에 틀러 한달간 요양을 하라고 했는데, 글을 못 읽어서 그냥 제주로 온 거라 마썸. 한 평생 용이영 머리영 기럽고 부스럼 나고 문드러져서 일도 하지 못했수다. 경허다보니 내가 발일이영 농의 집 일이영 다 담당할 수 밖에 없었던거라 마썸..."



영상 Archive (제주여성생애사 - 제주여성 허스토리)



- 김ㅇ자 (우도 해녀, 송남, 일본까지 바깥돌림)

"좁은 집에서 살려고 허니가 당혹하게 살지 않으면 안되어서, 우도 해녀들은 갈수록 짭짭 짭 짭 악적같이 해나가는 것이 허신게 없애..."

"일본 남편 댁내 시형들과 어울림 송남하고 부산, 저 멀리 일본 대만 오사카 까지 돌림 다녀왔수. 그걸로 아이들 공부 시킬 수 있었던 거라..."



"무모 잘못 만나서 딸이 울림하다 돌아오지 못해서... 그대 나이가 열여섯이었는데, 중학교 때인 다음 고등학교 들어가기엔, 년을 나 따라 다니림 돌림해서, 돌림을 잘 허니가 안심할 있어야신디, 못 허니. 그 후 몇년 건은 허당에 돌아갈 수가 없었수..."

영상 Archive (제주여성생애사 - 제주여성 허스토리)

1. 역사(歷史)에 대한 기억과 편향

(3) 6.25 한국전쟁

- 피난(避難)과 가족희생으로 인한 수난사

(4) 월남전 파병

- 배우자의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수난사

영상 Archive (제주여성 생애사 - 제주여성 허스토리)



영상 Archive (제주여성생애사 - 제주여성 허스토리)

1. 경제활동(經濟活動)에 대한 기억과 현장

(1) 해안마을

- 해안 마을 대부분 반농반어의 형태
- 10대 초, 중반부터 대를 이어 물질 하는 해녀
- 물질 팔팜이 발농사와 생김이 공장(무말랭이공장) 또는 절간공장
- 돈벌이 위해 육지로 바깥물질
- : 바깥물질 통해 삶의 지평 넓히고, 왕성한 경제활동

영상 Archive (제주여성생애사 - 제주여성 허스토리)



영상 Archive (제주여성생애사 - 제주여성 허스토리)

- 김o심 (4·3 유족, 남성마을 터줏대감)



"재봉틀해서 받으면 다리고 삼지 풀이고 그것이 끝나면 뒤집어서 그 옷을 말끔히 멋쟁이가 입는 옷처럼 만들어 놔..."



"시다(보조)월급이 보통에 3만원, 한 달이면 4만원, 당시 시중 공무원 월급이 3만5천원인데, 양장 보조월급이 좋았지. 월급을 타니까 해안 고무신을 5켤레를 샀어. 4·3 때 어머니와 큰 언니 시신 수습해주는 삼촌을 공갈으려고 갖다 드렸는데..."

영상 Archive (제주여성생애사 - 제주여성 허스토리)

1. 경제활동(經濟活動)에 대한 기억과 현장

(2) 중산간마을

- 중산간마을 대부분 발농사 (조, 보리, 콩, 고구마, 메밀 등)와 축산
- 부모님의 발일을 도와주는 형태
- 본격적인 돈벌이 위해 육지로 상경
- : 방직공장, 기술연마 (양장, 한복), 가사 도우미, 시장 일꾼 등

영상 Archive (제주여성생애사- 제주여성 허스토리)

- 황○선 (유아교육 전문인)



"교원생활을 하다 그만뒀서 제주시로 왔기 때문에 재가 다시 어린이들과 함께 했던 생활이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아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같이 뛰노는 그런 유아교육을 지을 수 있을까 생각한 나머지 저의 노력으로 는 유치원을 경영하는 게 가장 좋겠다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그때에 머물러다 뭐어소가 있었습니다. 그 학예소를 어린이집으로 승격시키면서 나라에서 전문 지원을 해줬어요. 교사 인건비려곤가, 운영비려곤가, 그런데 사립유치원에는 없으로 정해져 있지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가든지 유치원을 가든지 모두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안통어야 하겠다..."

영상 Archive (제주여성생애사- 제주여성 허스토리)

1. 경제활동(經濟活動)에 대한 기억과 현장

(3) 그 밖의 경제활동

- 여자경찰 공무원, 군수업체 사무직원, 양장점 운영
- 중개상인, 상점 (만물상) 운영, 파독간호사, 오일장 장사
- 고무잠수복 제작, 명굴재배, 유아교육자, 건설현장 여성일꾼 등

영상 Archive (제주여성생애사- 제주여성 허스토리)



영상 Archive (제주여성생애사- 제주여성 허스토리)



영상 Archive (제주여성생애사 - 제주여성 허스토리)

3. 삶에 대한 기억과 현장

(1) 시대를 잘못 만난 탓

- 격동의 인생유전, 시대 잘 못 만난 탓이라 기억
- 험난한 시대 거쳐왔기에 지금의 삶은 '임금님 삶'이라 평가

(2) 배움에 대한 아쉬움

- 여성이라는 이유로 배움의 혜택에서 제외
- 늦은 나이에도 배우려는 열정 대단 (안학 의지)

영상 Archive (제주여성 생애사 - 제주여성 허스토리)



영상 Archive (제주여성생애사 - 제주여성 허스토리)

3. 삶에 대한 기억과 현장

(3) 주체적인 경제활동과 그에 따른 당당함

- 주체적인 경제활동 왕성히, 가정경제를 이끄는 견인차
- '부지런함' 우기로 다진 가정경제 초석

(4) 자녀 교육에 대한 강력한 의지

- 배움에 대한 아쉬움 없었던 만큼 자녀교육에 더욱 더 열심히
- 자녀 교육에 힘썼다는 뿌듯함, 본인에 대한 자부심으로 연결

영상 Archive (제주여성생애사 - 제주여성 허스토리)

3. 삶에 대한 기억과 현장

(5) 자신의 길 묵묵히

- 토종을 지키는 뚝심 (식품명인, 명장, 토종 농사꾼 등)

(6) 스스로 나침반이 되어 길 개척

- 여성진출의 영역확장 (유아교육, 명글재배 등)

(7) 정직한 노동, 부지런함, 공 같은 마음, 초남 정신 등

영상 Archive (제주여성생애사 -제주여성 허스토리)



영상으로 기록하는 제주여성생애사

“무엇을 마음에 담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영상으로 기록하는 제주여성생애사

“당신의 이야기, 그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영상으로 기록하는 제주여성생애사

- 인터뷰 사전 준비와 주의사항 -

-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정확히 기록하고 안내
- 책자형태, 온라인 제공, 전사물만 사용할 것인지, 음성도 사용할 것인지 등
- 영상 촬영일 경우 좀더 구체적으로 동의서 필수

영상으로 기록하는 제주여성생애사

- 인터뷰 사전 준비와 주의사항 -

- 음성 녹음 및 문자기록 자료 활용 동의서, 사진 자료 사용 동의서 등 (조사 집필 및 지적재산권 양도 동의서)
- 영상물인 경우, 촬영 동의서 (초상권 사전 활용서 등)
: 고령인 경우, 보호자 동의 필수

영상으로 기록하는 제주여성생애사

- 인터뷰 사전 준비와 주의사항 -

- 사전 인터뷰 후, 본격적인 인터뷰를 위한 질문지 작성
- 영상 촬영일 경우, 촬영 구성안 작성
- EX: 제주여성 허스토리 현계생님, 고순덕님 편 참고

영상으로 기록하는 제주여성생애사

- 인터뷰 사전 준비와 주의사항 -

- 인터뷰 일지, 질문지, 녹음기 등
- 영상촬영일 경우, 카메라와 마이크 등 장비 일체
- 사례비·출연료 영수증 (통장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등)
: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영상으로 기록하는 제주여성생애사

- 인터뷰 과정의 소통 -

- 1. 라포(rapport) 형성이 중요하다.

<라포 (rapport)란?>

- 일반적으로는 두 사람의 인간 사이에 마음이 통하고,
- 따뜻한 **공감**이 있으며 **갈등** 교류가 잘 되는 것
- 상담이나 교육을 위한 전제로 신뢰와 친근감으로 이루어진 인간관계

영상으로 기록하는 제주여성생애사

- 인터뷰 과정의 소통 -

- 상담, 치료, 교육 등은 특성상 상호협조가 중요
라포는 이를 증폭시켜주는 동인(動因)
-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감정, 사고,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노력
- 효과적인 장애 학생 교육이나 부모 상담을 위해서는
라포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

영상으로 기록하는 제주여성생애사

- 인터뷰 과정의 소통 -

- 구술자의 신뢰감을 얻기 위해서는 인터뷰가 시작되기 전
구술자에게 구술채록의 중요성과 수집된 구술자료의
용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주고 확신을 주어야 함.
- 하루 아침에 라포 형성 불가능
- 여러 차례 방문을 통해 신뢰 주는 것이 중요

영상으로 기록하는 제주여성생애사

- 인터뷰 과정의 소통 -

- 인류학적 현지조사에서 라포는 현지조사의 성패를 좌우
- 라포 형성되지 않으면 자신이 원하는 정보와 자료를 얻을 수 없는 가능성 큼
- 어떻게 해서 라포가 생기는지는 정확히 말하기 어려움
(상황과 여건에 따라, 구술자와 면담자와의 공감영역에 따라 상이)
- 구술자가 자신의 감정까지도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 중요

영상으로 기록하는 제주여성생애사

“당신의 라포(rapport) 지수는?”

영상으로 기록하는 제주여성생애사
- 인터뷰 과정의 소통 -

1. **답을 미리 정해놓지 않는다!**
 - 인터뷰 구술자가 자신의 속내를 얘기할 수 있도록
질문 후, 답을 유도하지 않은 것이 중요
3. **인터뷰 구술자가 가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친숙한 장소 선정**
 - 단, 경로당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 지양

영상으로 기록하는 제주여성생애사
- 인터뷰 과정의 소통 -

6. **구술자와의 소통 일지 작성**
 - 구술자와 소통한 이야기 내용 요약 정리
 - 날짜, 시간, 장소까지 명기 (사진까지 첨부하면 GOOD)

영상으로 기록하는 제주여성생애사
- 인터뷰 과정의 소통 -

4. **구술자가 표준어를 사용하면 표준어로,
제주어를 사용하면 제주어로 소통**
5. **인터뷰 구술자의 구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당시의 시대적 상황, 생활 문화사를 사전에 숙지하면,
훨씬 더 깊이 있는 소통 가능**

영상으로 기록하는 제주여성생애사
- 인터뷰 과정의 소통 -

- **여성생애사 아카이브를 위한 몇 가지 비밀**
- 1. **공감과 진심이 우선이다!**
 - 아카이브 작업 전에 인물에 대한 공감이 우선! (그랬구나예—)
- 2. **라포 형성이 KEY POINT**
 - 스킨십(방문, 안부인사, 구술자 당사자 또는 가족과의 연대)

영상으로 기록하는 제주여성생애사
- 인터뷰 과정의 소통 -

· 여성생애사 아카이브를 위한 몇 가지 비밀

3.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얻는다!
- 면담시 생애에 대한 충분한 이해 후 질문작성
4. 질문은 짧게, 답변을 길게
- 구술자의 답변을 유도할 수 있는 짧은 질문 중요

영상으로 기록하는 제주여성생애사
- 인터뷰 과정의 소통 -

· 여성생애사 아카이브를 위한 몇 가지 비밀

7. 역사적인 사건과 배경에 대한 자료 검증 반드시 필요!
- 자료와 연구를 통해 구술자의 구술내용 검증
8. 특정 인물 언급 자제, 사진 게재 반드시 허락 필요
- 본인의 구술이라도 특정 인물 언급 신중
- 사진 속 인물들 모함 반드시 허락 필요

영상으로 기록하는 제주여성생애사
- 인터뷰 과정의 소통 -

· 여성생애사 아카이브를 위한 몇 가지 비밀

5. 면담시, 충분한 답변을 위해, 여유롭게 시간 준비하라!
- 시간에 쫓기듯 면담 진행 절대 NO
6. 미화, 선입견에 대한 경계를 끊임없이 하라!
- 인물 미화의 글쓰기 경계
- 프레임 띄우고 바라보기 NO

영상으로 기록하는 제주여성생애사
- 인터뷰 과정의 소통 -

· 여성생애사 아카이브를 위한 몇 가지 비밀

9. 오래된 것, 사소한 것,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에 향해라!
- 작가는 남들이 주목하지 않은 것에 꽃을 다는 일
10. 영상 아카이브 작업이 만들어 내는 삶(역사)의 진실
- 살아온 내공 만큼 생애사를 담을 수 있다!

영상으로 기록하는 제주여성생애사

한 여자가 한 세상이다.
거기 꽃 피고 새 울고 천둥치고 바람 부니
머지않아 열매 맺을 것이다.

- 김서영 -

영상 Archive (제주여성생애사)

한 사람의 시간(時間)은
기록(記錄)으로 역사(歷史)가 된다.

영상으로 기록하는 제주여성생애사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 스페를라나 알렉시예비치 -

**마을 발굴·번역·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제주역사 다시 읽고 쓰기**

흥기표

전 제주역사문화진흥원장

제주 역사 연구의 첫걸음

<제주 관련 고문헌, 고문서 탐색>

- 일시: 2025.06.10(화) 19:00-21:00
- 장소: 제주학연구센터 강의실(2층)
- 강사: 홍기표(전 제주역사문화진흥원장)

제주학연구센터

목 차

1. 머리말
2. 제주의 고문헌
3. 제주의 고문서
4. 맺음말

- 부록: 서귀포시 대포동 월평 마을 고문서

1. 머리말

● 제주 역사 문화의 길잡이: 고문헌

- 제주의 역사문화를 알기 위해 우리가 읽어야 할 옛 문헌으로 무엇이 있을까?
- 박물관, 도서관에 소장된 옛 문헌들은 어떤 종류와 내용을 담고 있을까?
- 옛 문헌들은 모두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읽기 힘들는데 혹시 한글로 번역되어 나온 책은 없을까?
- 최근 들어 제주의 역사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고문헌이 자주 발굴되고 소개되며, 역주서 또한 해가 다르게 출간되고 있는데 어떤 책부터 먼저 읽어야 하는가?

2. 제주의 고문헌: 종류1

● 고문헌의 종류(대표적: 약 50여 편)

- 개인문집(21권)
조선시대 관료 학자들이 펴낸 제주관련 시문, 기행문, 일기체 저술 등
- 역사지리지(약 13편 이상)
탐라의 건치 연혁 & 풍속 토산 명승 고적 인물 등 상세 기술
- 장계·서계첩(5편)
제주목사 및 어사가 제주의 주요 사항을 중앙(국왕)에 보고한 문서
- 군사전적류(5편)
군사편제(속오군), 군사통신시설(봉수/연대), 방어시설(9전성) 등 기록
- 방목류(4편)
조선시대 소과 및 문무과에 급제한 제주인들의 명단 시대순 수록
- 기타(1편)
효일록: 제주의 충효열 관련 인물 행적

2. 제주의 고문헌: 종류2

● 고문헌의 종류(대표적: 약 50여 편)

- 개인문집(21권)
『제주풍토록』(송암 김정), 『남명소승』(백호 임제), 『남사록』(정음 김상헌)
- 역사지리지(약 13편 이상)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탐라지』 / 『제주·대정·정의군읍지』 / 『탐라기년』(김석익)/ 『증보탐라지』(담수계)
- 장계·서계첩(5편)
『탐라장계초』 / 『탐라계록』
- 군사전적류(5편)
『제주축오군군적부』 / 『제주병계봉수연대총록』
- 방목류(4편)
『급계선쟁안』 / 『용방록』 / 『연방록』 / 『탐라번흥록』
- 기타(1편): 『효열록』

2. 제주의 고문헌: 개인 문집(21권)

연번	서명	저자	시기	소장처
1	노촌선생실기	이약동	1473년(성종 4)	제주교육박물관
2	(금남)표해록	최부	1488년(성종 19)	국립중앙도서관
3	제주풍토록	김정(송암)	1521년(중종 16)	대전시립박물관
4	영해창수록	조사수, 박충민	1540년(중종 35)	서울대규장각
5	남명소승	임제	1578년(선조 11)	성균관대도서관
6	남사록	김상헌	1602년(선조 35)	서울대규장각
7	제주풍토기	이전	1635년(인조 13)	서울대규장각
8	남사일록	이중	1680년(숙종 6)	개인 소장
9	지명록	이약태	1696년(숙종 22)	국립제주박물관
10	남한박물	이형상	1703년(숙종 29)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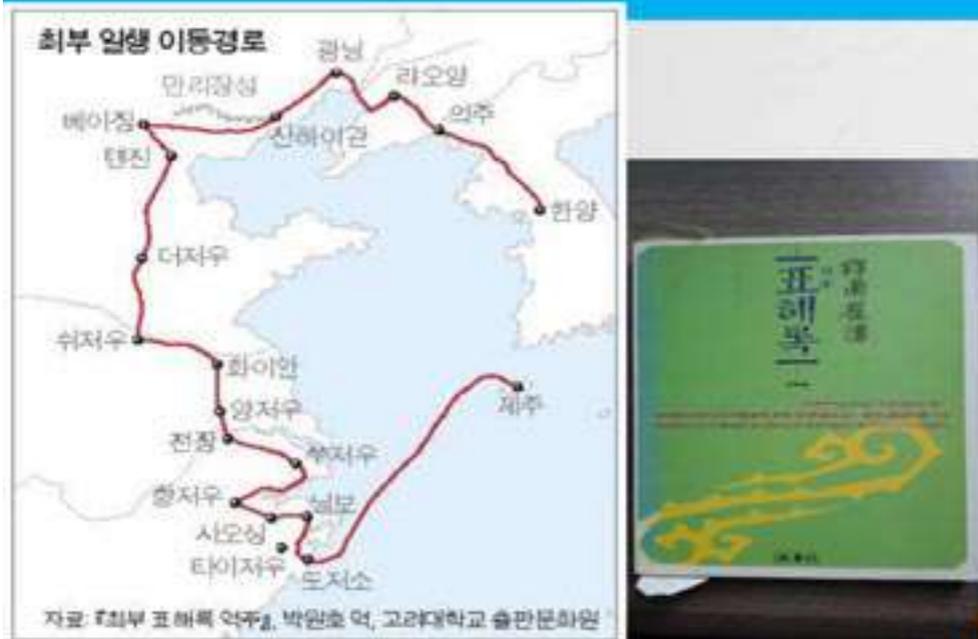
제주학개론(제주학연구센터, 2017)



2. 제주의 고문헌: 개인 문집(21권)

연번	서명	저자	시기	소장처
11	해외문견록	송정규	1705년(숙종 31)	일본 천리대도서관
12	우암선생문집	남구명	1715년(숙종 41)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
13	탐라문견록	정운경	1735년(영조 11)	서강대·단국대 도서관
14	노봉선생문집	김정(송암)	1737년(영조 13)	고려대도서관
15	복헌집	김손택	1760년(영조 36)	서울대규장각·국립중앙도서관
16	탐라록	신광수	1764년(영조 40)	고려대·성균관대도서관
17	표해록	장한철	1771년(영조 47)	국립제주박물관
18	절현영해저감록	조정철	1824년(순조 24)	서울대규장각·국립중앙도서관
19	탐라록	이원조	1843년(헌종 9)	한국국학진흥원
20	탐라적방설	이강희	19C 중엽(추정)	일본 교토대 가와이[河合]문고
21	속음성사	김윤식	1901년(고종 38)	국사편찬위원회

최부 표해 이동 경로



제주풍토록(김정), 남명소승(임제),
제주풍토기(이건), 탐라록(신광수)



2. 제주의 고문헌: 개인 문집(21권)

- 16C 문집: 3권
- 『제주풍토록』 (김정)
 - 1519년(중종 14)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이듬해 제주에 유배 왔다 1년 만에 사사된 김정이 그의 생질에게 제주의 풍토&물산에 대해 써 보냈던 편지들을 모은 글.
 - 내용: 제주의 기후, 가옥구조, 풍속, 신앙, 민경, 토산 및 그의 유배 생활 기록.
 - 가치: 개인이 펴낸 제주 최초의 풍토지로서 이후 역사지지서의 모델.
- 『영해장수록』 (조사수·박충원)
 - 제주목사 조사수(1540.11<중종35>~1541.3)와 친구인 영월군수 박충원이 주고받은 한시집(132수).
 - 박충원의 5대손으로 제주목사로 부임했던 박성석이 1702년(숙종 28) 개임 중 제주영에서 목판본으로 발간.
 - 제주의 풍속, 생활, 지역방어 등의 내용을 한시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음.
- 『남명소승』 (임제)
 - 조선의 천재시인 백호 임제의 제주도 기행문.
 - 임제는 과거에 급제한 1577년(선조 10)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제주목사로 있던 부친 임진을 뵈러 제주 방문. 그 기간 동안 그는 제주를 일주하며 경승을 두루 구경하고 한라산 정상까지 등반(현전 最古 등반기)하여 일기체 형식의 글을 남김.

충암김선생적려유허비(오현단)



충암김선생적려유허비(오현단)



남사록 역주(상/하) 제주문화원(2008~2009)



2. 제주의 고문헌: 개인 문집(21권)

● 17C 문집: 4권

- 「남사록」(김상헌)
 - 1601년(선조 34)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약 6개월간 안무어사로 제주에 파견된 김상헌의 일기체 기행문.
 - 한라산 산신제 거행(한라산 등반), 문무과 시행 및 방어 시설 점검(제주 일주), 과원 및 공물의 자세한 실경 등 기록.
 - 제주의 역사, 풍속, 토산, 문화유적 등을 언급할 때마다 이전의 모든 제주 관련 자료를 인용하며 기술→17세기 이전까지 제주 실경 종합 기술, 당대 최고의 제주 해설서.
- 「제주풍토기」 / 「규창집」(이건)
 - 1628년(인조 6)~1635년(인조 13) 약 8년간 왕족 이건의 제주 유배기.
 - 제주의 풍속, 생업활동, 신앙, 동식물 등에 대한 내용과 자신의 느낌 등 기록.

2. 제주의 고문헌: 개인 문집(21권)

● 17C 문집: 4권

- 「남사일록」(이증)
 - 1679년(숙종 5) 제주에 안핵겸순무어사로 파견된 이증의 일기체 기록.
 - 제주의 군기와 방어시설 점검, 삼읍 수령의 민정, 과거 및 한라산신제 시행 등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며 보고 들은 바를 기록.
- 「지영록」(이익태)
 - 1694년(숙종 20) 7월~1696년 9월 제주목사 역임 이익태 문집.
 - 목사로서의 공무 시행과 행적(제주도 순력과 명승지 여행), 제주 역사 및 외국인 표류(효종-숙종대) 등이 기록.
 - 특히 제주도의 명승 열 곳을 꼽은 「탐라십경도서」 수록.

영주십경<탐라십경/탐라팔경/영주십이경>

- 탐라십경: 이익태, 지영록(1694년경).
 - 조천관, 별방소, 성산, 서귀포, 백록담, 영곡, 천지연, 산방, 명월소, 취병담.
- 탐라팔경: 이형상, 탐라록(1703년경).
 - 권교(한라산), 화북, 김녕, 평대, 어등포, 우도, 조천, 세화.
- 영주십경: 이원조, 탐라록(1842년).
 - 영구상화, 정방관쪽, 굴림상과, 녹담실경, 성산출일, 사봉낙조, 대수목마, 산포조어, 산방굴사, 영실기암.
- 영주십경: 이한우<이한진>, 매계선생문집(1850~60년대).
 - 성산출일, 사봉낙조, 영구춘화, 정방하폭, 굴림추색, 녹담만설, 영실기암, 산방굴사, 산포조어, 고수목마.
- 영주십이경: 담수계, 증보탐라지(1953년).
 - 영주십경(이한진) + 서진노성, 용연야범.

남사일록(이중), 지영록(이익태)



2. 제주의 고문헌: 개인 문집(21권)

- 18C 문집: 8권
 - 『병와집』 (이형상)
 - 1702년(숙종 28)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제주목사 역임 이형상 문집.
 - 이형상은 『탐라순력도』 및 『남관박물』 등의 편찬을 남겼으며, 『병와집』에도 「탐라순력도서」, 「제주민막장」 외에 다수의 제주 관련 시문 수록.
 -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최근 『이형상 간찰집(총3권)』, 『탐라록』, 『탐라장계초』 등 소장 문집을 역주하여 출간.
 - 『해외문전록』 (송정규)
 - 1704년(숙종 30) 10월~1706년(숙종 32) 9월 제주목사 역임 송정규 글.
 - 17세기 약 100년 간 제주 표류 외국인 및 타국 표류 제주인에 대한 종합보고서.
 - 표류사건 9건, 최부 「표해록」 요약 1건, 제주의 사건과 인물 6건 등 총 16건 기록.
 - 『우암선생문집』 (남구명)
 - 1712년(숙종 38) 10월~1715년 5월 제주판관 역임 남구명 문집.
 - 내용: 제주의 산천과 형승, 풍속과 신앙, 기후와 풍토, 육지와의 교통로 등 소개.

우암선생문집(남구명), 노봉문집(김정), 북헌집(김춘택)



2. 제주의 고문헌: 개인 문집(21권)

● 18C 문집: 8권

- 「탈라문견록」(경운경)
 - 1731년(영조 7) 9월 제주목사 부임의 부친 정필녕을 따라 들어온 경운경 문집.
 - 내용: 제주에서 일본, 대만, 베트남 등지로 표류하였다가 돌아온 14명의 제주인들을 만나 그들의 경험담 기록.
- 「노봉선생문집」(김정)
 - 1735년(영조 11) 4월 도입, 2년 6개월간 재임한 제주목사 노봉 김정 문집.
 - 그는 삼천서당을 건립하고 화북포 축항공사를 마쳤을 뿐 아니라 과거 탐라국의 명소를 복원하는 등 선정을 베풀었던 인물.
 - 80여 수의 시, 39편의 문과 삼천서당 주변의 명소 제명(송장병·용린병·호빈병·지주암 등) 등 상당수의 제주 관련 시문 수록.
- 「북헌집」(김춘택)
 - 1706년(숙종 32) 제주로 유배 와 이후 6년을 지낸 유배인 김춘택 문집.
 - 「소년록」과 「수해록」은 제주 유배 기간에 쓴 시문집으로 제주의 풍물과 고통스런 유배생활 묘사.



노봉 김정 흥학비 (오현단)

노봉 김정 흥학비 비음(후면)

先生諱倣, 英廟乙卯莅州, 有清德以興學爲己任. 創三泉齋, 凡水石品題, 皆手澤也. 嗚呼, 先生丁巳九月三日卒于禾北館. 追享永惠祠, 辛未撤祀. 後癸巳爰豎短碣, 以寓追慕. 距乙卯一百五十九年十月日也

노봉 김정 흥학비 비음 해석

선생의 휘는 倣이다. 1735년(영조 11)에 제주에 부임하여 맑은 덕이 있고 학문을 일으키는 것을 자기의 소임으로 삼았다. 三泉齋를 창건하고 훌륭한 경치에 글을 지은 것은 모두 그의 손에서 나왔다. 안타깝게도 선생은 1737년(영조 13) 9월 3일 화북관에서 돌아가셨다. 永惠祠에 신위를 모셔 제를 지내왔는데, 1871년(고종 8)에 철거되었다. 그 후 1893년(고종 30)에 작은 비석을 세워 추모하였는데, 제주에 부임한 1735년으로부터 159년이 흐른 10월 일이다.

노봉 김공정봉공비(화북포구)



목사 김공정봉공비(화북포구)



노봉 김정 봉공비 석실 각자

- 비각 전면 오른쪽 : 건륭무오창건(乾隆戊午勗建)
→ 1738년(영조 14)에 비와 비각이 처음 세움
- 비각 전면 왼쪽 : 함풍정사개각(咸豐丁巳改閣)
→ 1857년(철종 8)에 비각만 고쳐 세움

2. 제주의 고문헌: 개인 문집(21권)

- 18C 문집: 8권
- 『탐라록』(신광수)
 - 1764년(영조 40) 1월 제주에 왔던 의금부도사 석봉 신광수의 한시집(95수).
 - 40여 일 체류하며, 화북·조천 등지에서 동행한 이익 등과 화상
 - 대표작: 「한라산가」, 「잠녀가」 등.
- 『표해록』(장한철)
 - 1771년(영조 47) 제주인 장한철이 지은 표해 기행문.
 - 장한철은 서울에서 치르는 대과에 응시하기 위해 1770년 12월 25일 서울로 올라가는 29명 일행의 장삿배를 뒀다가 표류, 유구열도에 표착.
 - 1771년 5월 초 귀향하기까지 약 6개월간의 표류 일정 기록.

2. 제주의 고문헌: 개인 문집(21권)

- 19C 문집: 3권(20C 문집:1권)
- 「정현영해치감록」(조정철)
 - 1777년(경조 1) 제주에 유배되어 약 20여 년을 지낸 정현 조정철 시집(635수).
 - 내용: 불우한 신세 한탄, 흥령/부종안 등 제주인과의 관계 한시/ 제주 특유 풍속 & 경승 등. 「망한라산」(33수)/ 「탐라잡영」
- 「탐라록」(이원조)
 - 1841년(헌종 7) 1월~1843년 7월 제주목사 응와 이원조의 시문집(일기체).
 - 제주순력, 문무시계, 한라산신계 및 풍우뇌우계 시행 등 기록.
- 「탐라지방실」(이강희)
 - 정약용의 제자인 이강희 저술(2권).
 - 1권: 제주도의 산천, 산물, 인구, 농업, 군사 등 지방통치 관련 인문지리 기술.
 - 2권: 「상천계시말」이라는 양계해 옥사(1813) 사건의 진실 기록.
- 「속음청사」(김윤식)
 - 1921년 간행된 제주 유배인 김윤식의 문집.
 - 1887년~1921년(약 35년간) 일기. 이 중 1898년~1901년(9~10권) 제주유배 기록.

정현영해치감록(조정철), 탐라록(이원조), 속음청사(김윤식)



2. 제주의 고문헌: 제주인 문집(4권)

- 제주인 개인 문집(4권)
- 『매계선생문집』(이한진), 『난곡시집』(김양수), 『해은문집』(김희경), 『부해문집』(안병택).
- 대부분 후손들에 의해 보존되어 오던 유고시문집 등을 후세에 편철.
- 문집 자체는 조선시대 고문헌이 아니나, 그들의 활동시기가 19세기 후반 무렵이고 남긴 시문 역시 당대의 산물.
- 제주인의 시각으로 당시의 제주 실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료.

2. 제주의 고문헌: 제주인 문집(4권)

시명	저자	생몰년	수독 내용
매계선생문집	이한진	1823~1881	「영주십경」 등 한시 264수
난곡시집	김양수	1828~1887	한시 275수, 잡저 6편
해은문집	김희경	1844~1925	한시 430수, 문 29편
부해문집	안병택	1861~1936	한시 389수, 건찰 258편, 기·시·설 등 151편

2. 제주의 고문헌: 제주인 문집(4권)

- 『매계선생문집』 (이한진)
 - 조선 신촌리 출신 매계 이한진 문집.
 - 이한진은 주사 **김경희 사사**, 당시 제주목사 **목인배**가 '남도의 태두'로 평가.
 - **삼원서당**에서 훈학에 힘썼으며, 문하생으로 안달삼, 김희정, 이계정 등.
 - 시 264수 수록, 이 중 제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경 10곳을 선정하여 '영주 십경'이라 이름 붙이고 시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한 저각이 유명.
- 『난곡시집』 (김양수)
 - 조천리 출신 난곡 김양수 시집.
 - 영주십경 및 한라산의 정취 등을 담은 한시 총 275수, 「제주향교중수기」를 포함한 잡저 6편 등 수록.
 - 김양수는 제주목관아에 있는 「**영상이공최용영세불망비**」의 비음을 지은 인물로, 금석문으로도 그의 글을 확인할 수 있음.

난곡선생문집(김양수), 해은문집(김희정), 부해문집(안병택)



2. 제주의 고문헌: 제주인 문집(4권)

- 『해은문집』 (김희정)
 - 조선 출신 해은 김희정의 유고시문집(시 430여 수, 문 29편).
 - 「한라산기」는 **현전하는 제주인 최초의 한라산등경기**.
 - 「도해록」은 구한말 일본의 제주어장 침탈상황을 알 수 있는 중요 사료.
 - 김희정은 매계 이한진의 문하생이며, 면암 최익현을 사사. 1868년(고종 5)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글림서원이 해탈되자, 오현을 다시 추모하기 위해 1892년(고종 29) 그가 발의하여 오현의 조두석을 세워 **현재의 오현단을 조성한 인물**.
- 『부해문집』 (안병택)
 - 조선 선릉리 출신 부해 안병택의 유고 문집.
 - 안병택은 부친(안달삼)의 가르침을 받다가, 25세 되던 해 **전라남도 장성군으로 옮긴 후 노사기정전 및 송사기우만에게 성리학을 익힌 유학자**.
 - 그의 문인: 의병장 고사훈, 김만석 및 유학자 김석익, 이응호 등.
 - 시 389수, 간찰 258편, 기·서·설 등의 문 151편 수록.

제주 목관아 (정문, 전해루)



하마비(제주목관아vs서울성균관)



하마비(下馬碑) 연원과 해설

- 개념
 - 조선시대 종묘, 문묘 및 궐문 앞에 세워놓은 석비(石碑).
- 의미
 - 말을 타고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말에서 내려야 한다.
 - 왕이나 장군·고관·성현들의 출생지나 무덤 앞에 세워, 존경심을 표시.
- 기원
 - 1413년(태종 13) 2월, 예조 건의, 처음 표목(標木) 건립, 후일 석비로 교체.
- 비문
 - 대소관리과차자개하마(大小官吏過此者皆下馬)
 - 대소 관리로 이곳을 지나가는 자는 모두 말에서 내리라.
- 하마 지점
 - 궐문에서 1품 이하 10보, 3품 이하 20보, 7품 이하 30보 거리.
 - 1보 = 주척(周尺) 6척(주척 1척 = 20.66cm) / 124cm

제주목관아 하마비 해설

- 최초 건립 연대 : 미상
- 현 비석 건립 연대
 - 1834년(순조 34) 한응호(韓應浩) 목사
- 하마비의 의미
 - 제주목관아의 정문인 포정사문(布政司門) 앞에 세워져 당시 정3품 당상 관인 제주목사를 제외한 관리나 백성들은 모두 말에서 내려 동헌으로 걸어가야만 했다.

오현단(제주시 이도1동)



오현단(제주시 이도1동)



증주벽립(제주시 오현단)



증주벽립(제주시 오현단)



증주벽립

(서울 종로구 덕문동 성균관 인근,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 57호)



2. 제주의 고문헌: 역사지지서(13권)

● 제주의 역사지지서(총 13권)

- 중앙정부 편찬 문헌 3권, 지방(정부) 편찬 문헌 10권.
- 제주의 역사, 풍속, 토산물, 방어시설, 고건물, 명환, 인물, 제영 등 소개.
- 제주의 역사문화에 대해 백과사전 역할.
- 조선시대 제주의 실정 전반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
- 제주사 & 제주학 연구 학자 및 일반인에 의해 널리 읽혀졌던 문헌.

2. 제주의 고문헌: 역사지지서(13권)

서명	간행연대	편저자	내용(주제 항목)
탈라지초본	1843(헌종 9)	이원조	건치연혁, 읍포고중, 산현, 도서, 물산, 토속, 관직, 서속, 방비, 호구, 도로, 교당, 성지, 단묘, 학교, 공해, 누각, 진보, 봉수, 옥장, 관원, 공헌, 천황, 대동, 봉용, 요역, 조역, 장교, 군역, 노비, 공장, 인물, 과학, 형승, 제영, 고적 (38항목)
제주군읍지	1899(광무 3)	고종	건치연혁, 진관, 관원, 읍명, 성씨, 풍속, 형승, 산현, 방포소, 수전소, 교당, 토산, 전경, 성곽, 궁실, 누정, 창고, 학교, 향약, 사묘, 장관, 관원, 옥장, 피막, 공헌, 고적, 명환, 인물, 호자, 열녀, 불우, 시음지(경행리수, 본주소묘, 도서, 결룡, 조룡, 공헌, 천물, 사환, 마당, 장화세종, 공해, 단묘, 진보) (44항목)
대정군읍지	1899(광무 3)	고종	건치연혁, 진관, 관원, 읍명, 성씨, 풍속, 형승, 산현, 방포소, 수전소, 교당, 토산, 전경, 성곽, 궁실, 누정, 창고, 학교, 향약, 사묘, 장관, 관원, 옥장, 피막, 공헌, 고적, 명환, 인물, 호자, 열녀, 불우, 시음지(경행리수, 본주소묘, 도서, 결룡, 조룡, 공헌, 천물, 사환, 마당, 장화세종, 공해, 단묘, 진보) (44항목)
정리군읍지	1899(광무 3)	고종	건치연혁, 진관, 관원, 읍명, 성씨, 풍속, 형승, 산현, 방포소, 수전소, 교당, 토산, 전경, 성곽, 궁실, 누정, 창고, 학교, 향약, 사묘, 장관, 관원, 옥장, 피막, 공헌, 고적, 명환, 인물, 호자, 열녀, 불우, 시음지(경행리수, 본주소묘, 도서, 결룡, 조룡, 공헌, 천물, 사환, 마당, 장화세종, 공해, 단묘, 진보) (44항목)
탈라지년	1818	김석익	서, 의례, 탈라위초연혁도, 의세(탈라국), 편지(고려), 권2~4(조선), 부록(1808-1855)
중보탈라지	1954	김수계	지리(산천, 천자, 사수, 도로, 도서), 명소고적(명승, 고적, 관아, 누정, 창고, 성곽, 봉수, 사묘, 학교, 사찰, 관원, 옥장, 목장), 연혁(통사, 기관현실, 제영, 구례), 기상, 풍속, 구획, 관공서, 교통, 통신, 교육, 종교, 산업, 연문기관, 사회단체, 산업기관, 금융기관, 인물(과학, 천사, 문학, 자유, 열녀, 호자, 의사, 조부, 열녀, 열부, 피나, 중비, 미술, 천문, 지리, 부호, 물계, 승려, 기타), 관용어 (55항목)

2. 제주의 고문헌: 역사지지서(13권)

서명	간행연대	편저자	내용(주제 항목)
고려사 지리지	1481(문종 1)	정인지 등	건치연혁, 해로 (2항목)
세종실록 지리지	1454(단종 2)		건치연혁, 한라산, 호수, 토산, 성곽, 봉수, 화산활동, 해로 (3항목)
신증 동국여지승람	1530(중종 25)	이행량	건치연혁, 성씨, 풍속, 형승, 산현, 토산, 성곽, 관방, 봉수, 궁실, 누정, 학교, 교당, 불우, 사묘, 고적, 명환, 인물, 제영 (19항목)
탈라지	1653(효종 4)	이원진	건치연혁, 진관, 관원, 읍명, 성씨, 풍속, 형승, 산현, 교당, 토산, 전경, 성곽, 방포소, 수전소, 봉수, 궁실, 누정, 창고, 학교, 향약, 사묘, 불우, 장관, 군병, 공장, 노비, 과학, 옥장, 피막, 공헌, 고적, 명환, 인물, 호자, 열녀, 제영 (36항목)
남한약물	1704(숙종 30)	이형상	음요, 노정, 해, 도, 기후, 지리, 경승, 사적, 성씨, 인물, 풍속, 문예, 부역, 전담, 토산, 금, 수, 조목, 과학, 마우, 물고기, 약재, 동물, 부역, 사당, 관방, 봉수, 창고, 공해, 병제, 공방, 노비, 관직, 행정, 고적, 명환 (36항목)
중보탈라지	1785(영조 41)	윤시중	건치연혁, 진관, 관원, 읍명, 성씨, 지형, 형승, 산현, 도서, 교당, 풍속, 토산, 연촌, 호구, 전경, 성곽, 방포소, 수전소, 봉수연대, 관우, 누정, 창고, 학교, 향약, 사묘, 불우, 장관, 군병, 공장, 노비, 과학, 옥장, 피막, 공헌, 고적, 명환, 인물, 호자, 통신, 열녀, 제영 (41항목)
제주읍지	1781(영조 5)	정호	건치연혁, 군명, 관직, 방비, 도로, 성지, 산현, 성씨, 풍속, 학교, 서원, 단묘, 공해, 진보, 봉수, 교당, 옥장, 누정, 형승, 도서, 물산, 천공, 실남, 호구, 전공, 전세, 대동, 봉용, 요역, 창고, 조역, 군기, 군역, 노비, 선생안, 인물, 과학, 고적, 해탄 (29항목)
제주대정지의 읍지	1793(영조 17)	정호	건치연혁, 군명, 관직, 방비, 도로, 성지, 산현, 성씨, 풍속, 학교, 서원, 단묘, 공해, 진보, 봉수, 교당, 옥장, 누정, 형승, 도서, 물산, 천공, 실남, 호구, 전공, 전세, 대동, 봉용, 요역, 창고, 조역, 군기, 군역, 노비, 선생안, 인물, 과학, 고적, 해탄 (29항목)

2. 제주의 고문헌: 역사지지서(13권)

● 중앙정부 편찬 문헌 3권(조선전기 편찬)

- 『고려사(지리지)』 (권57, 담라현)
 - 정인지 등이 1451년(문종 1)에 편찬.
 - 제주의 건치연혁과 육지와 제주를 연결하는 해로 등 소개.
- 『세종실록지리지』 (권151, 제주목·정의현·대정현)
 - 1454년(단종 2)에 편찬한 문헌, 1432년(세종 14) 신찬팔도지리지 내용 보강 수록.
 - 제주의 건치연혁과 한라산, 호수, 토산, 성곽, 봉수, 화산활동, 해로 등 소개.
- 이상 두 문헌은 제주에 관한 내용이 처음 소개되었지만 내용 빈약.
-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 제주목·정의현·대정현)
 - 제주의 건치연혁, 풍속, 토산 등 총 19항목 주제별로 제주 실정 자세히 소개.
 - 내용도 풍부하여 사실상 제주 역사문화 백과사전의 출발점인 중요 문헌.
 - 노사신 등이 1481년(성종 12) 『동국여지승람』을 편찬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50년 후 이행량이 이를 증보하여 1530년(중종 25) 『신증동국여지승람』을 편찬.

2. 제주의 고문헌: 역사지지서(13권)

- 제주(목) 편찬 역사지지서 총 10편
- 제주목사 명 역사지지서 4편
 - 『탐라지』(이원진), 『남원박물』(이형상), 『증보탐라지』(윤시동), 『탐라지초본』(이원조).
- (삼읍)읍지류 5편
 - 정조 때 편찬 『제주읍지』, 『제주대정경의읍지』 & 고종 때 편찬 『제주군읍지』, 『대정군읍지』, 『정의군읍지』.
 - 조선전기 『신증동국여지승람』의 19항목 보다 최소 2배 넘는 36항목에서 44항목까지 소개, 내용 방대 분량(제주 역사문화 이해하기 위한 필독서).
- 1765년(영조 41) 윤시동 목사 『증보탐라지』
 - 조선전기 『신증동국여지승람』 보다 주제가 항목별로 세분화.
 - 편방→방호소&수전소, 봉수→봉수&연대, 인물→효지&열녀로 소개.
 - 부세 수취 관련 내용 새롭게 추가(전결, 군병, 공장, 노비, 과원, 목양, 공현 등).
 - 제주의 사회경제상을 이해할 수 있는 항목 증가.

2. 제주의 고문헌: 역사지지서(13권)

- 김석익, 『탐라기년』(영주서관)
 - 편년체 제주통사로 1918년 출간.
 - 바깥 조선시대 고문헌은 아니지만 제주인이 제주역사를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 까지 편년체로 상세히 기술하였다는 점에 의의.
 - 예전의 『탐라지』 류에서 확인되는 '건치연혁'의 내용 보다 훨씬 방대한 분량.
 -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 우리나라 정통 사서 두루 섭렵, 인용.
- 담수계, 『증보탐라지』
 - 조선시대 고문헌은 아니고 1954년에 출간.
 - 사실상 위의 역사지지서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최종본 성격.
- 이들 역사지지서에 대한 역주 사업도 2000년대 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져 지금은 한글로 번역되어 주석까지 보충하여 제공.
- 제주문화원,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등에서 주도.
- 학계 뿐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제주의 역사문화를 접할 수 있는 토대 마련.

탐라지(이원진), 탐라지초본(이원조)



증보탐라지(담수계), 탐라기년(김석익)



2. 제주의 고문헌: 제주목 장계/서계첩(5편)

● 장계(계문)

- 제주 수령(목사·현감)이 제주지역의 중요한 일을 국왕에게 보고하거나 청원하는 글.

● 서계

- 어사가 왕에게 보고하는 글.

● 총 5편

- 『탐라장계초』 (1702/이형상), 『서계집록』 (1777~1794/정조대),
- 『탐라계록』 (1841~1843/이원조), 『탐라목관첩』 (1845~1854/목사6인),
- 『제주계록(탐영계록·탐영별계록·제주목별계록)』 (1846~1884)

2. 제주의 고문헌: 제주목 장계/서계첩(5편)

서명	시기	소장처
탐라장계초	1702(숙종 28)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유형문화재 제34-2호)
서계집록(제4책)	1781(정조 5)	서울대 규장각
탐라계록	1841(헌종 7)~1843(헌종 9)	제주교육박물관
탐라목관첩	1845(헌종 11)~1854(철종 5)	서울대 규장각
제주계록(탐영계록· 탐영별계록·제주목별계록)	1846(헌종 12)~1884(고종 21)	서울대 규장각

2. 제주의 고문헌: 제주목 장계/서계첩(5편)

● 『탐라장계초』

- 1702년(숙종 28) 이형상 목사 재임 중 조정에 올린 장계만을 모아 책으로 정리.
- 장계의 내용에 따라 19개 항목으로 정리 편철.
- 공물, 포작, 잡너, 부세, 계후, 시사, 제례, 마경, 농사 등.
- 18세기 초 당시 제주의 현안 및 사회경제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료.

● 『서계집록』

- 조선후기 정조 때 어사들의 서계를 모은 책(총 9책의 필사본).
- 1777년(정조 1)~1794의 서계, 이 중 제4책이 제주순무어사 박천형 서계.

● 『탐라계록』

- 1841년(헌종 7)~1843년(헌종 9) 이원조 목사 재임 중 조정에 보고, 청원한 장계(105건)
- 내용: 이양선 출현, 조난사고, 굴의 작황 및 진상, 중죄인 심리 내용, 말의 진상 등.

2. 제주의 고문헌: 제주목 장계/서계첩(5편)

● 『탐라목관첩』

- 1845년(헌종 11)~1854년(철종 5) 10년간 재임한 제주목사 6인(권직, 이익식, 장인식, 이현공, 백희수, 옥인배)이 조정에 올린 장계(99건) 정리 책.
- 내용: 이양선 및 표류민, 굴나무 현황, 환곡 및 군역의 폐단, 우도와 기파도의 개간과 입주 등 기록.

● 『제주계록(탐영계록·탐영별계록·제주목별계록)』

- 1846년(헌종 12)~1884년(고종 21) 제주목에서 조정에 보고했던 계문을 편철한 책.
- 1986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각사등록』(19)·전라도편(2)에 영인 수록하여 간행(총 5책 필사본).
- 내용: 표류민, 해상사고, 제주삼읍의 농사 현황, 굴의 종류와 진상 등 총 498건의 계문 수록.

2. 제주의 고문헌: 군사 전적류(5편)

- 조선시대 **제주의 군사제도와 편제** 등을 알 수 있는 문헌.
- 총 5편:
 - 「**제주속오군군적부**」(숙종대),
 - 「**탐라방영총람**」(영조대),
 - 「**보초등록**」(정조대),
 - 「**대정군 군병도안**」(고종대),
 - 「**제주병제봉대총록**」(미상).
- 물론 이 문헌 외에도 각종 역사지리지서의 '성략', '봉수', '군역' 등의 항목 해설에서 제주의 군사제도와 편제 등 확인 가능.

2. 제주의 고문헌: 군사 전적류(5편)

서명	시기	소장처	비고
제주속오군군적부	1703년(숙종 29) 이전	제주국립박물관	제주도문화재자료 제5호 (2002.04.17.)
탐라방영총람	1760년대 추정	개인 소장	.
보초등록	1795년(정조 19)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도유형문화재 제30호 (2009.07.24.)
대정군 군병도안	1870년(고종 7)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도유형문화재 제29호 (2009.07.24)
제주병제봉대총록	미상	서울대 규장각	.

2. 제주의 고문헌: 군사 전적류(5편)

- 「**제주속오군군적부**」
 - 이형상 목사가 1703년(숙종 29) 『탐라순력도』를 제작할 당시 **베지(靑紙)**로 사용했던 낱장에 기록된 내용들을 정리. 2000년 『탐라순력도』 보수하기 위한 해체 작업 중 발견.
 - 조선 숙종 때 정군이 아닌 **속오군(예비군)**에 대한 군적부.
 - 직역, 이름, 나이, 부친명, 소속 고을, 거주지, 얼굴 모습, 수업 상태, 용터, 기예 등이 상세히 기록.
 - 당시 제주의 방어체계와 사회제도 참고 사료.
- 「**탐라방영총람**」
 - 조선 후기 영조 때인 **1760년대** 간행된 것으로 추정.
 - 제주의 군경, 제주목관이 배치도, 주요 인적 구성 등 소개.
 - 당시 **삼읍 군병의 총수**를 15,290명으로 기록, 특히 봉수와 연대를 구분하여 소개해 봉수 24개소, 연대 37개소 설치 기록.
- 「**보초등록**」
 - 1795년(정조 19) 작성 추정.
 - 정조 때 **진상미**의 내역을 기록하여 전라도 감영에 보고했던 내용 엮음.
 - 동원된 **땃사공** 이름, **배의 길이와 크기, 배에 실은 말의 성격과 숫자** 등 기록.

2. 제주의 고문헌: 군사 전적류(5편)

- 「**대정군 군병도안**」
 - 1870년(고종 7) 대정군에 소속된 각종 군병들의 도안.
 - 도안은 정기적으로 각종 군병들을 조사하여 그 소속이나 성명, 나이, 주소 등을 기록한 명부.
 - 성경군, 최우마대, 속오군, 군수 수졸, 차귀진·모습진의 방군과 피수, 봉수·연대의 각종 군병, 교직생 등으로 편성.
 - 총 수족 인원은 **1,843명**이며, 당시 지방의 군사행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
- 「**제주병제봉대총록**」
 - 제주의 방제와 **봉수연대**에 관한 기록으로 편자, 편년 미상.
 - 제주 삼읍의 군계, 봉수연대, 장졸총록의 세 항목으로 구성.

2. 제주의 고문헌: 방목류(4편)

- 조선시대 제주 사람들의 과거 합격자 명단을 알 수 있는 문헌.
- 총 4편: 「급제선생안」, 「탐라빈흥록」, 「용방록」, 「연방록」.
- 물론 이 문헌 외에도 「탐라지초본」(이원조) 및 「증보탐라지」(담수계) 등 역사지리지서의 '과환' 항목에 제주인들의 과거 합격자 명단 소개. 하지만 탈락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고 정확한 명단을 확인하려면 이들 문헌을 참고.

2. 제주의 고문헌: 방목류(4편)

- 「급제선생안」
 - 1720년(숙종 46) 작성. 이후 계속 추가.
 - 1558년(명종 13)~1815년(순조 15) 총 338명의 무과급제자 명단 수록.
- 「탐라빈흥록」
 - 1794년(정조 18년) 제주도에서 시행한 문무과의 시행경위와 급제자 명단, 과문 등을 한데 모아 규장각에서 간행.
 - 내용: 율음, 장계, 회유문, 방목, 과문 등의 순서로 편성.
- 「용방록」
 - 조선시대 문과에 급제한 제주도 사람들의 이름을 연대순으로 기록한 인명록.
 - 표제는 용방록이라 하였으나, 안 표제는 「진신선생안」이라 되어 있음.
- 「연방록」
 - 조선시대 소과(사마시)인 생원과, 전사과의 향시(1차)와 회시(2차)에 합격한 제주도 사람들의 이름을 연대순으로 기록한 인명록.
 - 표제는 연방록이라 하였으나, 내제는 「사마선생안」이라 되어 있음.

2. 제주의 고문헌: 방목류(4편)

서명	시기	소장처	비고
급제선생안	1720년(숙종 46)	고양부삼성사재단	제주도유형문화재 제12호 (1991.06.04.)
탐라빈흥록	1794년(정조 18)	서울대 규장각	.
용방록 (진신선생안)	1863년(철종 14)	제주향교	제주도유형문화재 제10호 (1991.06.04)
연방록 (사마선생안)	1891년(고종 28)	제주향교	제주도유형문화재 제11호 (1991.06.04)

탐라빈흥록(제주교육박물관)



2. 제주의 고문헌: 기타/ 효열록(1편)

- 제주의 충효열과 관련된 인물들의 행적을 모아 엮은 「효열록」.
- 1834년(순조 34) 당시 한응호 제주목사의 명으로 김영탁 작성.
- 효자, 효부, 열녀, 의사의 순서로 총 62인의 효행, 열행 수록.
-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28호(2009.07.24.)로 지정, 현재 제주교육 박물관 소장.

3. 제주의 고문서: 고문서의 종류

- 고문서 종류
 - 광의: 문집이나 일기와 같은 저술류, 장부류 및 등록류, 관찬사서 등.
 - 통상: 위의 고문헌류를 제외한 글들을 지칭.
 - 발급자
 - ✓ 국가(왕실, 조정): 공문서, 관문서, 외교문서 등
 - ✓ 사인: 화회문기, 매대문기, 혼서, 간찰 등.
- 고문서 소장
 - 현존하는 고문서의 총량은 정확히 파악 불가능.
 - 국가 공공기관 및 도서관·박물관 등은 목록화하여 공개하지만 사찰서원, 종가 및 개인 가문, 개인수집가 등은 비공개로 소장하는 경우 상당수.
 - 2010년 기준 공공기관의 고문서 소장 실태
 - ✓ 서울대학교 규장각 7만 여권,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6만 여권,
 - ✓ 국사편찬위원회 5만 여권, 토지주택박물관 4만 여권,
 - ✓ 국립중앙도서관 16,000여권, 연대 15,000여권, 고대 6,000여권 등.

3. 제주의 고문서: 고문서의 개념 & 범주

- 고문서 개념&범주
 - 발급자(갑)와 수취자(을) 간에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고 받은 글로써 1910년 이전까지의 문서.
 - 1894년 갑오개혁 이후 공용서식 등장, 문서가 신식으로 바뀌었고 국한문을 혼용하였으며 간지연대가 아닌 개국기원연대 등을 사용하여 예전의 문서와는 다른 차별화 출현.
 - 하지만 고문서의 하한을 일제강점기 이전인 1910년으로 보는 이유는 상소, 자자, 각종 매대문기 등 옛 문서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

3. 제주의 고문서: 고문서의 가치

- 고문서 가치
 - 당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내용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사료로서 신빙성이 높은 자료.
 - 물론 고문서라고 모두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는 다른 문헌자료에서 찾을 수 없는 귀중한 사료가 있다.
 - 개인문집, 관찬사서, 등록류 등의 고문헌은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이해관계 및 주관 등으로 인해 사실의 취사선택 및 왜곡 가능.
 - 이에 비해 고문서는 사실 그 자체를 밝히는 문서류→객관성을 담보로 함.
 - 문헌사료의 왜곡과 오류를 바로 잡으며, 역사연구에 생동감과 실득력을 높일 수 있음.

3. 제주의 고문서: 고문서의 분류

● 고문서 분류

- 1994년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고문서정리법』에서 『한국고문서분류표』 제시.
-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고문서 수집, 발간 자료인 『고문서집성』의 편집기준 참고.
- 10분류: 총류, 교령류, 소처계장류, 첩관통보류, 증빙류, 명문문기류, 서간통교류, 치부기록류, 시문류, 외교문서류 등.
- 일반적인 고문서의 분류 기준
 - 문서 효력 범위: 국내문서와 국외문서(외교문서).
 - 문서 내용: 공적인가 사적인가에 따라 공문서, 사문서 분류.
 - 문서 발급자 기준: 국내문서의 경우 국왕(왕실)문서, 관부문서, 사인문서, 결사문서, 종교문서 등으로 구분.
- 제주의 고문서
 - 위의 일반적 고문서 분류별 구분을 따르기보다는 제주도에 다수 소장 기관별로 구분하여 고문서 종류 소개.

3. 제주의 고문서: 기관 소장 고문서

● 제주의 고문서 다수 소장 기관

- 제주의 기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목관아.
- 제주 이외 기관: 서울대 규장각.
- 서울대 규장각 소장 제주 고문서: 제주 관아에서 왕실 및 중앙관아에 보고하는 형식의 성책류, 형명부가 주류.
- 제주의 세 기관 소장 고문서: 내용&형식 다양, 크게 공문서&사문서 분류.
 - 공문서: 임명장류, 관아문서, 청원문서, 호구문서 4주제 분류
 - 사문서: 기록문서, 대대문서, 증빙문서, 축원(의례)문서 4주제 분류

3. 제주의 고문서: 기관 소장 고문서

● 공문서1(임명장류)

교지(칙명), 홍패, 백패, 교첩, 판교첩, 망기 등.

- 교지: 국왕이 신하에게 판직·판각·시호·토지·노비 등을 내려주는 문서 (대한제국 때 칙명)
- 고신: 관료에게 내리는 교지
- 홍패: 문과 급제자에게 내리는 교지
- 백패: 생원·진사시 합격자에게 내리는 교지
- 교첩: 5품 이하 관원 임명장
- 판교첩: 7품 이하 관원 임명장
- 망기: 인물을 천거할 때 3인의 인물명인 삼망(三望)을 기록한 문서

3. 제주의 고문서: 기관 소장 고문서

● 공문서2(관아문서)

첩, 첩지, 첩경, 서록, 전령(훈령), 고목, 원문, 입안, 진상단지 등.

- 첩: 관아에서 7품 이하 관원 또는 향리 임명, 유생을 제관으로 임명할 때의 임명장
- 첩지: 관아에서 이속을 임명할 때 쓰는 임명장
- 첩경: 하급 관청에서 상급 관청에 보고할 때의 문서
- 서록: 첩정에 첨부하는 문서
- 전령: 상급관원이 하급관원 또는 백성에게 발급하는 문서인데, 갑오개혁 이후 훈령으로 바뀌었다.
- 고목: 관청에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올리는 간단한 보고문서
- 원문: 관에서 사실 확인 또는 권리특전 인정을 위해 발급하는 확인서 또는 인정서
- 입안: 개인 청원에 따라 관청에서 사실 확인 또는 증명을 위해 발급하는 공증문서
- 진상단지: 제주의 말을 왕실 및 각 관청에 올리는 과정에서 말의 수요·종류 및 인출 인원 등을 기록한 문서

3. 제주의 고문서: 기관 소장 고문서

● 공문서3(청원문서)

상소, 차자, 소지, 등장, 단자 등.

- **상소:** 신하가 왕에게 글로써 자신의 뜻을 전하는 문서
- **차자:** 상소문의 서식을 간략히 한 문서
- **소차:** 통상 문집에서는 상소와 차자를 합해 소차라고 함.
- **소자:** 시대부 이하 백성 개인이 관청에 올리는 청원서 또는 진경서, **발람(白話)**이라고도 함.
- **등장:** 여러 사람이 연명하여 관청에 올리는 문서
- **단자:** 시대부들이 직접 관청에 탄원·청원할 때 사용하는 문서

3. 제주의 고문서: 기관 소장 고문서

● 공문서4(호구문서)

준호구, 호구단자, 호적중초, 호적표 등.

- **준호구:** 관청에서 호적대장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 발급한 문서로 오늘날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것.
- **호구단자:** 호주가 자신 호의 호구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여 관청에 제출하는 문서. 현재의 가족 외에 호주와 처의 4대조를 모두 기록하게 되어 있음.
- **호적중초:** 호적대장을 작성하는 초본. 동리에서 각 호로부터 제출받은 호구단자의 내용을 이전 호적대장과 대조한 뒤 변동사항을 기록하여 만든 것이 호적초인데, 이를 관청에서 다시 최종 확인하여 만든 것이 호적중초.
- **호적표:** 대한제국 때 작성된 호적.

3. 제주의 고문서: 기관 소장 고문서

● 사문서1(기록문서)

간찰, 일기, 가장 등.

- **간찰:** 상호간 주고받은 편지글
- **일기:** 자신의 일과 경험을 일자별로 자유롭게 기술한 것
- **가장:** 집안 조상과 형제의 행적에 관한 기록
- 제주의 고문서로 간찰은 주로 제주에서 관직을 역임했던 인물과 유배인들이 육지의 지인들과 주고받은 것이 대부분.

● 사문서2(매매문서)

명문 등.

- **명문:** 권리에 대한 증명서 또는 증서. 토지매매문서가 대표적인 명문.

3. 제주의 고문서: 기관 소장 고문서

● 사문서3(증빙문서)

혼서(예장), 택일기, 분계기(화회문기, 분급문기), 대차기, 출거기 등

- **혼서:** 혼인 때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예단과 함께 보내는 서간, **예장**이라고도 함.
- **택일기:** 택일지라고도 하며, 상장례를 치를 때 택일, 장지 방위 및 장례의식의 절차, 금기사항 등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
- **분계기:** 재산 상속 및 분배에 관한 문서. 제주 사후 형제자매의 모임에서 재산 분급의 문서 작성은 **화회문기**, 제주 생존시 자녀들에게 재산 분급 명시는 **분급문기**.
- **대차기:** 주로 금전을 차용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 문서.
- **출거기:** 물건을 내준 내역을 기록한 문서.

● 사문서4(축원/의례문서)

축문, 계문, 고사, 발원문, 기고문 등

- **축문:** 계례나 상례 때 신에게 축원을 드리는 글.
- **계문:** 천지신명이나 죽은 사람을 제사 지낼 때 쓰는 글.
- **축문**은 죽은 사람이나 조상 또는 토지신에게 제수를 드리니 받으라는 내용의 간단한 글, **계문**은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내용을 담은 글이기 때문에 축문 보다는 길다.
- **고사:** 어떤 사실을 신에게 고하는 글.
- **발원문:** 불교에서 시주의 원을 적은 글.
- **기고문:** 기우제, 기형제 등을 지낼 때 고하는 글.

3. 제주의 고문서: 기관 소장 고문서

● 서울대 규장각 소장 제주 고문서(총 35권)

- 제주학연구센터 아카이브 탑재.
- 제주 관아에서 왕실 및 중앙관아에 보고하는 **성책류와 형명부** 주류.
- **철종-순종** 때 제주목&전라감영에서 제주 관련 각종 사항을 기록한 문서.
- 주 내용: 외국인 또는 제주인 표류 관련 사실, 제주에서 올리는 각종 진상 품이나 세공마 기록, 제주삼읍의 각종 회계 기록, 제주의 방곡령 기록, 제주의 공유지 실태 기록, 제주목재관소에서 관리하는 형명부 등의 문서.
- **조선후기, 구한말 제주의 사회경제를 이해**하는 중요한 사료.

3. 제주의 고문서: 기관 소장 고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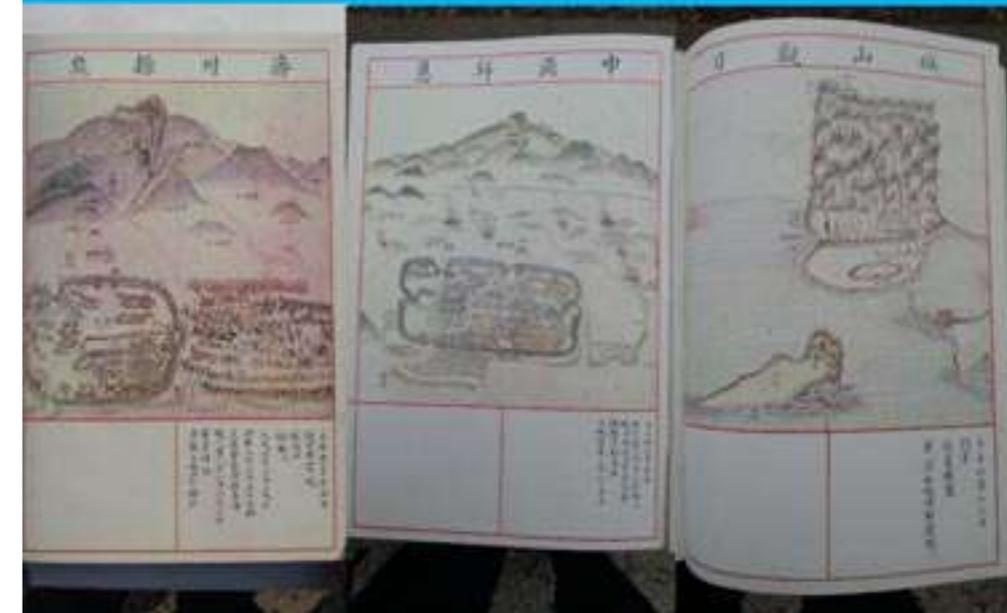
문서명	시기	소장처	비고
탐라순력도	1703년 (숙종28)	제주국립박물관	보물 제652-6호 (1979.02.08.)
목장산정결목	1794년 (정조18)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문화재자료 제11호 (2013.10.17.)
안민고결목	1758년 (영조34)	.	제주도문화재자료 제12호 (2013.10.17.)
도영철차· 피인연향연희각파기철차	미상	제주목권어	.

3. 제주의 고문서: 기관 소장 고문서

● 제주목 작성 고문서 중 국가 및 지방 문화재 지정 자료 『탐라순력도』, 『목장산정결목』, 『안민고결목』.

- 『탐라순력도』
 - 1702년(숙종 28) 제주목사 이형상이 한 해 동안 제주 각 고을을 순시하며 거행했던 여러 행사 장면을 기록한 채색 화첩.
 - 화공 김남길이 총 41쪽의 그림을 그렸으며, 각각의 쪽 하단에 간략한 설명 기록.
 - 목사가 시문 지은 일자 1703년 음력 5월 13일, 순력 다음 해 화첩으로 제작.
 - '순력도'라는 이름의 기록화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
 - 18세기 초 제주도의 판아 건물, 군사 시설, 지형, 풍물 등이 자세하게 기록.
 - 제주도 역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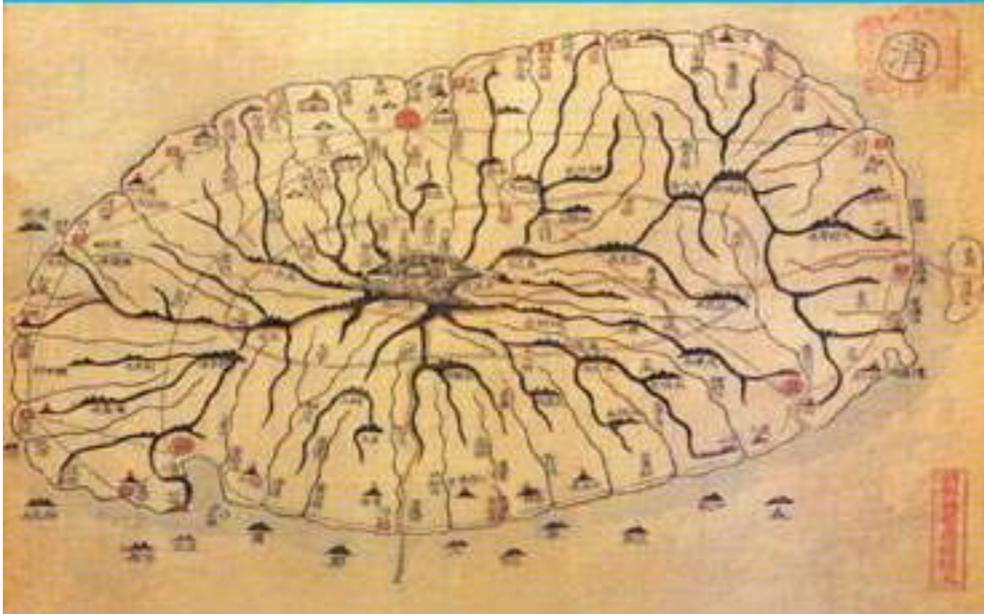
탐라순력도(제주조점/전포배은/성산관일)



3. 제주의 고문서: 기관 소장 고문서

- 『목장신청결목』**
 - 1794년(경조 18) 제주목사 심낙수가 산마장(청장, 상장, 녹산장)의 경작자들로부터 받아 오던 세금의 배당을 시정하기 위해 제정한 시행령.
 - 조선시대 제주의 국영목장인 10소장과 별도로 운영되던 산마장의 운영실태 및 위치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역사자료.
- 『안민고결목』**
 - 1758년(영조 34) 정의현감 윤선홍이 정의현의 재정 부족분 충당과 고역 종사자에 대한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만든 안민고의 운영 세칙을 기록한 시행령.
 - 피곡 천 석 확보, 그 이자로 운영. 당시 제주에서 운영되던 민고의 실제 증명자료.
- 『도영결차』와 『피인연향연회각과기결차』**
 - 문화재로 지정은 안됐지만 제주목사의 부임결차를 알려주는 중요한 판문. 작성연대 미상.
 - 제주목사가 배에서 내릴 때부터 관덕정에 이르러 제주관관, 정의현감, 대정현감의 군례를 받고 다시 연회각에서 연회를 마치고까지의 절차를 적어 놓은 기록.
 - 깃발, 관악기, 타악기 및 총포 등의 용도와 복명복장하는 절차가 세밀히 묘사.
 - 향후 목사의 도영결차를 복원하는데 중요한 자료.

대동여지도 중 제주지도(서울대 규장각)



3. 제주의 고문서: 제주마을(종친회 포함)고문서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2009년부터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과 더불어 현지조사와 공동학술대회 등으로 2015년까지 제주시 애월읍 세 지역(수산리, 중업리, 하가리)에서 보관해 오던 고문서류 116점과 9개 성씨 가문에서 소장해 오던 고문서류 총 1,534점을 정리한 영인 자료집 3권 발간.
 - 『고문서집성 108』(2014.04.30), 『고문서집성 110』(2014.11.28), 『고문서집성 114』(2015.09.10).
- 제주문화원(통합 이전의 북제주문화원)**
 - 2007년 애월읍 하가리 소장 서책류·결목류 31점 영인, 『하가리 소장 고문서』.
- 제주 각 동리 권래, 보관 고문서**
 - 18세기 말 이후 생산된 호적자료(호적중초, 민적부, 호적부 등)를 비롯, 대부분은 제주의 부세운영 관련 제규정 수록 문서 및 동리 운영 관련 문서.
 - 고신·처첩·전령: 중앙과 지방, 특히 제주 지역에서 임명된 관직 이력 고찰 가능.
 - 침경·서목·전령: 제주 지역에서 어떠한 명령이 전달되었는지 확인 가능.
 - 호구단자·준호구: 각 가문의 호구 파악 가능.
 - 명문·분계기: 조선시대 제주 지역 사람들의 경제활동 규명 가능.

3. 제주의 고문서: 제주마을(종친회 포함)고문서

- 『고문서집성 108』 (총 116점)**
 - 제주시 애월읍 소재수산리(24점), 중업리(57점), 하가리(35점) 보관 문서 소개.
- 『고문서집성 110』 (총 697점)**
 - 조선시대 제주도에 입도하여 세거해 온 애월읍 어도리의 진주강씨 강수항(姜受瓚) 및 강봉지(姜鳳祉) 후손가, 조천읍 김해김씨 김희정(金義正) 후손가, 구좌읍 동래정씨 정석목(鄭錫穆) 후손가의 고문서류 수록.
 - 이를 통해 각 가문의 역사와 제주 지역의 제도·사회문화·경제생활 등을 살펴볼 수 있음.
- 『고문서집성 114』 (총 837점)**
 - 애월읍 어도리 진주강씨 강익진(姜益鎭) 후손가, 안덕면 사계리 진주강씨, 조천읍 곡산강씨 강만식(康萬植) 후손가, 곡산강씨 강리진(康麗鎭) 후손가, 애월읍 남음리 김해김씨 김용강(金龍強) 후손가, 김해김씨 김희주(金熙周) 후손가, 경주김씨문중회, 제주고씨종친회, 동래정씨 정희현(鄭希賢) 후손가 등 총 9개 가문 고문서 수록.

3. 제주의 고문서: 제주마을(종친회 포함)고문서

●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소장 고문서

- 2010년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3호 기록사당마을'로 지정.
- 2011년 12월 서귀포문화원 출간 『우리고장의 기록문화유산』
→ 안성리 소장 고문서 및 고서 소개 및 해제
- 2017년 5월 현재 마을 주민들이 수집한 자료 총 31종 394점
 - ✓ 고문서: 교지, 직명, 공명첩, 혼서 등 20종 172점.
 - ✓ 고서적: 호적중초, 민적부 등 11종 222권.

4. 맺음말

● 제주의 고문헌과 고문서

- 고문헌(약 50편)
 - 개인문집(총 21권), 역사지리지(총 13편), 제주목 장계·서계첩(5편), 군사전적류(5편), 방목류(4편), 효열록 1권 등.
- 고문서
 - 공문서: 교지, 홍패, 칙(경), 서목, 원문, 소지, 준호구, 호구단지 등.
 - 사문서: 간찰, 명문, 분계기, 혼서, 축문 등.
 - ✓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목판아 등 세 기관: 수백 점.
 - ✓ 서울대 규장각(성책류, 형명부 등): 35점.
 - ✓ 마을(에월읍/대정읍): 500점 이상(116점/394점).
 - ✓ 종친회(9성씨): 1,534점.

4. 맺음말

● 제주의 고문헌

- 제주의 역사문화 전반을 알고 이해하는데 더없이 중요한 자료

● 제주의 역사문화를 고문헌으로 처음 접할 때 필독서 두 권 권장

- 『탈라기년』(김석익): 제주의 편년 역사
- 『중보탈라지』(담수계): 제주의 각 분야별 실정(중속, 토산, 방어시설, 명승, 고적, 인물 등)

● 시대를 초월해 선인의 발자취 감상

- 『남명소승』(임제)/『남사록』(김상헌): 당대(16C말~17C초) 제주의 상황 뿐 아니라 해안선을 따라 제주를 일주하고 한라산을 등반했던 그들의 발자취 추적.
- 『표해록』(최부, 장한일)/『해외문견록』(송정규), 『탈라문견록』(정운경): 제주인과 외래인의 표류 관련 사실과 여정 & 해안을 통한 상호 교류의 과정 탐방.

4. 맺음말

● 제주 관련 고문헌 연구의 전제조건

- 무엇보다도 중요한 작업은 번역.
- 한문 원문의 역주(한글 번역&참고 해설): 일반 대중의 고문헌, 고문서 접근 용이.
- 불과 이삼십년 전만해도 번역서, 역주서 등이 없어서 제주의 역사문화에 깊이 연구하려면 한자를 알아야 했고, 따라서 한문에 소양 깊은 일부 향토 사학자 등의 연구자만 고문헌과 고문서류를 접할 수 있었음.
- 2000년 전후: 제주의 역사지리지 및 개인문집 등을 번역&해설 곁들인 역주서 출간.
- 최근 10여 년간: 제주문화원과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세 기관 중심으로 제주의 고문헌과 고문서에 대해 다양한 역주서 출간
→ 일반인의 제주 역사문화에 대한 관심을 한 차원 끌어올림.

5. 부록: 서귀포시 대포동 월평 마을 고문서

1. 과업명: 서귀포시 월평마을 고문서 발초/번역/해제.
2. 연구내용: 고문서 63권 목록화, 발초/번역 디지털화, 해제 작업.
3. 과업기간: 2020. 02.27~08.26(6개월, 182일)
4. 연구진 구성: 총 5명(김00 외 4명)
 - 1) 발초, 번역: 강00, 문00, 이00(3명), 2) 해제, 감수: 김00, 홍00(2명).
5. 연구진 역할 분담
 - 1) 감수: 김00(향토사학자,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 2) 해제: 홍00(문학박사,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 3) 발초/번역: 강00(00 대표), 문00(국편위 사료조사위원), 이00(고전번역가).
6. 과업 과정
 - 1) 3월~4월: 사진자료 출력 및 분류
 - 2) 5월~7월: 발초 및 번역
 - 3) 7월~8월: 해제 및 감수

5. 부록: 서귀포시 대포동 월평 마을 고문서

7. 과업 내용
 - 1) 개요
 - (1) 월평리 재생센터에서 이양 받은 고문서 사진자료는 총 1,326장임.
 - (2) 1,300여 장의 고문서를 전량 A3 컬러 프린트로 출력한 뒤 본격적인 분류작업.
 - 2) 문서 분류
 - (1) 절록 및 명문 등의 고문서, 회의록 포함 권철된 강부류 등 총 55종으로 내용상 분류.
 - (2) 문서의 분류 기준: 문서명, 작성연대, 문서종류, 문서등급, 해당 사진자료.
 - (3) 작성연대: 1866년~1999년.
 - (1) 일제강점기 이전 고문서(1866년~1909년) 14건.
 - (2) 일제강점기 문서(1910년~1945년) 13건
 - (3) 해방 후 문서(1946년~현재) 28건

5. 부록: 서귀포시 대포동 월평 마을 고문서

- 4) 문서종류: 총 18종.

절록, 명문, 입안, 표문, 건기, 분증기, 전장기(인수인계서), 대장(묘지, 경각지), 명부(자세, 토지소유, 기부금 등), 공문첩, 보고서, 회의록, 증서, 사업계획서, 규약, 진정서, 축문, 마을지(초안) 등.
- 5) 문서등급: 3등급.
 - (1) 상(사료적 가치 및 보존 필요성이 높고 자료집화 필수): 26건
 - (2) 중(보존 필요성이 높고 자료집화 취사선택): 25건
 - (3) 하(자료집화 필요성이 없는 일상적인 관행): 4건
- 6) 해당 사진자료

해당 사진자료 0010~1326 번호를 시대순으로 재정리함.

5. 부록: 서귀포시 대포동 월평 마을 고문서

8. 과업 결과
 - 1) 서귀포시 월평마을 고문서 총 55종 1,300여 장(사진출력분)의 (고)문서에 대해 발초 및 번역, 해제 및 감수.
 - (1) 한문 표기 문서: 발초 및 정자화, 번역, 전문 소개, 해제.
 - (2) 한글 표기 문서: 전문 또는 요약 소개, 해제.
 - 2) 한문과 한글 표기 문서에 따라 차등 작업.
 - (1) 한문 표기 문서: 발초 및 정자화, 번역, 전문 소개, 해제.
 - (2) 한글 표기 문서: 전문 또는 요약 소개, 해제.
 - 3) 작업 결과
 - (1) 발초 및 정자화: 27건, (2) 번역: 27건, (3) 전문 소개: 34건, (4) 요약 소개: 15건.
 - (5) 전문 및 요약 미소개: 8건, (6) 해제: 55건

5. 부록: 서귀포시 대포동 일평 마을 고문서

9. 향후 과제

1) 편집팀 구성 및 편집지침 마련

- (1) 1910년 이전 구한말 또는 일제강점기 문서는 사료적 가치가 높, 자료집화 필요.
- (2) 해방 이후 문서는 내용상 민감한 개인정보가 수록된 경우가 많아서 자료집화 하는데 주의 필요.
- (3) 학계 및 일반을 대상으로 한 자료집인지, 마을(주민) 및 기관 배포용의 자료집인지 성격 규정 논의 필요.

2) 출판사 선정 및 교정(3차)

- (1) 사진자료와 해당 탈초 및 번역, 해제 등의 내용이 일치하는 지를 점검.
- (2) 최소한 2차 이상의 교정 작업(재교 이상)이 필요.

3) 인쇄 및 출간

5. 부록: 서귀포시 대포동 일평 마을 고문서

● 일평마을 고문서 분류표(양식)

문서 일련번호	월필리 001	문서 등급	상 중 하	
문서 분류	문서명			
	문서 종류		작성 연대	년()
서지 사항	제권		표기 방식	
	총면수	면	규격(가로×세로, cm)	×
해제	내용			
	특이 사항			
	사료 가치			
기타				

5. 부록: 서귀포시 대포동 일평 마을 고문서

● 일평마을 고문서 목록표(양식)

연번	문서명	작성 연대	문서 종류	문서 등급
1	보민정록	1866	정록	상
2	이병구씨 명문(대도인·강우택)	1890	명문	상
3	강의국씨 명문(대도인·조정택)	1890	명문	상
4	대성현입안	1890	입안	상
5	동중전 표본	1895	표본	상
6	본동기(호별 2동급)	1897	본동기	상
7	[정유3월초3일] 화단장막 신조소입성책	1897	건기	상
8	가정매입금건기	1897	건기	상
9	강의국씨 명문(대도인·송장준)	1898	명문	상
10	[기해12월일] 보민헌 회계기	1899	회계기	상



<사진: 제주관광공사>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록 아이템 선정과 디지털 기반 현장 기록화 방법

조정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기록 아이템 선정과 디지털 기반 현장 기록화 방법



가사리 모체 초본

원형이 사라지면,
'내가 만든'
기록이 원본이 된다!

조정현
제주학연구소 연구위원

2025. 6. 26.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기록 아이템 선정과 디지털 기반 현장 기록화 방법

목적

1. 나에게 맞는 기록 주제 선정 및 구축 방법
2. 지역 아카이브는 무엇을 어떻게 기록하는가?
3.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현장을 기록할 것인가?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기록 아이템 선정과 디지털 기반 현장 기록화 방법

1. 나에게 맞는 기록 주제 선정 및 구축 방법



여월읍 상귀리 향다리제당 마을제(2025)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기록 아이템 선정과 디지털 기반 현장 기록화 방법

지역학 아카이브 시민 기록자의 기록대상 선정 기준

- **고유성**: 지역의 역사 문화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유무형 대상에 대한 조사와 기록화
- **전파론**: 본래의 원형 전승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원형이 남게 되는 문화현상
→ 대표적인 사례: 제주말, 포제 등
- **독립발생설**: 지역의 토착적 환경 속에서 생성된 지역 고유의 개성적 역사와 문화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기록 아이템 선정과 다지릴 가만 현상 기록화 방법

기억과 구술에서 기록으로!

구술되거나 글로 기록될 때 비로소 그것은 역사와 관계를 맺게 된다. 역사가들은 이것을 '사료'라고 부른다. 기억은 이렇게 '기록'됨으로써 **역사적 가치를 획득**하지만, 그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 특히 제주는 **구술사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억의 기록화는 주체에 따라서 바로 기록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구술과 타인의 기록으로 생산된다.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기록 아이템 선정과 다지릴 가만 현상 기록화 방법

글이나 말로 표현되는 단계에서 본의건 본의 아니건 **축소, 변질, 왜곡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억과 기록은 동일하지 않다**.

기억의 불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역사가는 다시 **자기의 관점에 따라 기록을 해석**하고 또 **선별**하면서 역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 피에르 노라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기록 아이템 선정과 다지릴 가만 현상 기록화 방법

기억은 과거보다는 오히려 **현재 지향적**인 것이다. 그것은 언제나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서 출발하며, 과거의 현상이 아니라 현재의 현상이다.

다시 말해 기억은 과거의 경험이 밀랍판의 압인(押印)처럼 고정된 형태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점에서 재구성되는 것**이다.

→ 안병직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기록 아이템 선정과 다지릴 가만 현상 기록화 방법

제주 도민만이 제대로 기록하고 전승할 수 있는 제주의 고유문화 - 문전제



문전제 유래

- 제주 무속의 문전신과 문전본풀이
- 제주 가정신앙의 한 형태가 확장된 것
- 제사에 따라온 잡귀잡신을 위한 것
- 제사에 찾아온 옷대 조상신들을 위한 것
- 기타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기록 아카이브 선별과 다지컬 기반 현상 기록화 방법

제주 도민만이 기록할 수 있는 제주의 고유문화-본향당 굿문화



“본향당이란 제주사람들, 특히 제주 여인네들 영혼의 동사무소, 요즘 말로 하자면 주민센터예요. 제주 여인네들은 자기 삶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본향당에 와서 신고한답니다. ‘아기를 낳았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사고가 났다, 돈을 벌었다, 농사를 망쳤다, 육지에 갔다 왔다, 자동차를 샀다, 우리 애 이번에 수능시험을 본다, 우리 남편 바람난 것 같다.’ 이런 모든 것을 신고하고 고해바칩니다. 제주인의 중요한 특징은 신과 독대 한다는 점입니다. 제주의 신을 할망(할머니)이라고 해요. 할머니에게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자애로움이 있잖아요. 여성은 소문 내지 않고 자기 이야기와 고민을 들어줄 사람을 필요로 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답을 몰라서가 아니죠. 그런 하소연을 함으로써 마음의 용어리를 푸는 겁니다. **심신의 카운슬링 상대로 할망을 모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순이 시인의 대답)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기록 아카이브 선별과 다지컬 기반 현상 기록화 방법

사진으로 만나는 제주의 고유문화-해녀문화



성산읍 신영리 해녀의 물길

해녀 관련 생애사, 공동체문화, 물질문화 및 생활사적 접근 필요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의 실제와 기록 주제 선정

사진으로 만나는 제주의 고유문화-포제(리사제)



제주의 마을공동체 제의에서 당굿의 쇠퇴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반면, 유교식 포제는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는 여러 행정기관의 지원과 남성 중심의 마을 운영이 강화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보다 구체적인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남성 중심으로 거행되는 포제이지만,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등 마을공동체의 주체들이 다함께 준비하는 마을공동체 제의이기에 사실상 토박이들을 중심으로 한 마을의 결속과 후속세대의 양성 등 긍정적 기능이 발휘되고 있어 그 전승력이 갈수록 강해지고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기록 아카이브 선별과 다지컬 기반 현상 기록화 방법

사진으로 만나는 제주의 고유문화-마을문서



마을에 보존(지동계)되고 있는 다양한 옛 문헌들

- 호적중초(호구기록), 마을공유자원, 마을제(포제, 당제), 풍안 및 동집례, 목축계 등
- 성담, 마을 재건, 수도, 전기 등 도입 관련 문서, 새마을운동 문서, 마을지 기초자료 등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기록 아이템 선정과 다지컬 기반 현상 기록화 방법

사진으로 만나는 제주의 고유문화-갯일(양태장)



제주도 여성의 현금 마련 창구이자 물질의 반대편 노동으로서 갯일(양태, 송모 등)의 중요성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기록 아이템 선정과 다지컬 기반 현상 기록화 방법

사진으로 만나는 제주의 고유문화

-제주 돌문화(미륵불, 돌하르방, 산담, 발담, 원담 등)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기록 아이템 선정과 다지컬 기반 현상 기록화 방법

사진으로 만나는 제주의 고유문화-제주 일노래(민요)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아카이브- <https://jst.ro.kr/iha/main.do>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기록 아이템 선정과 다지컬 기반 현상 기록화 방법

제주의 일상적 생활문화를 주목할 필요 있음!

의식주 문화

- 제주 갈옷, 정동벌립, 가죽옷, 나막신, 장옷 등 의생활의 특성
- 빙떡과 상웨떡, 지름떡(별떡), 돌레떡, 고소리술 등 일상 음식과 의례 음식
- 제주 돌집과 거주관행의 특성(안거리 빗거리)

생업과 경제생활

- 찾아보기 쉽지 않은 논농사와 밭농사 중심의 농업
- 제주도형 어업의 특성(자리돔, 열후리기, 태우문화 등)과 해양문화
- 중산간 지역의 반농반축(半農半畜), 해안 지역의 반농반어(半農半漁)
- 제주도 민속오일장과 읍면 오일장

공동체적 생활 방식과 세시

- 마을회의 발달과 제주형 자치관행(읍면의 '리'에서도 설립하는 마을회)
- 당굿과 표제, 경포잔치(도일주 여행), 체육대회, 주석노래자랑 등의 지역공동체 세시
- 마을과 읍면동을 넘나드는 갑장계 모임, 연합청년회 등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기록 아이템 선정과 디지털 기반 현상 기록화 방법

시민 아키비스트의 기록 대상 선정 키워드



- 배은희 선생님의 2023년 기초과정 강의 자료 참조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기록 아이템 선정과 디지털 기반 현상 기록화 방법

시민 아키비스트 등 기록자가 아카이빙 시 고려할 사항

1. 내가 해당 대상을 왜 기록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
2. 이 기록을 **내가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인지 고려
3. 객관성을 추구하지만 **어떤 입장에서** 기록에 임할 것인지 고민
4. 내가 기록 대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성찰
5. 내가 기록하는 방식이나 내용이 주관적 **선별**이나 **배제**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성찰
6. 통상적 조사 및 연구 윤리, 저작권 등 마을이나 개인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
7. 지역학 아카이브의 자료가 될 수 있는 **공적 기록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성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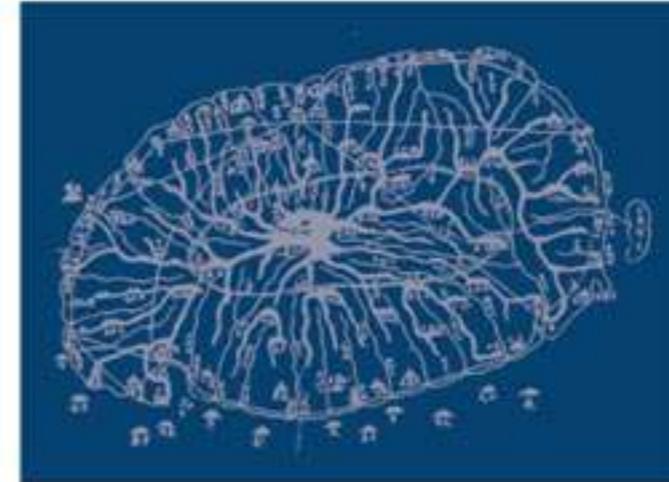
- 배은희 선생님의 2023년 기초과정 강의 자료 참조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기록 아이템 선정과 디지털 기반 현상 기록화 방법

2. 지역 아카이브는 무엇을 어떻게 기록하는가?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기록 아이템 선정과 디지털 기반 현상 기록화 방법

기록물이란 무엇인가?

- 사적인 기록과 공적인 기록
- 종이(지류), 사진, 전자파일 등 망라
- **Records**: 현용 기록물(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산, 보관, 이용하는 기록)
- **Archives**: 보존 기록, 비현용 기록물(현재는 활용되지 않으나 영구 보관, 보존 대상이 되는 기록)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기록 아카이브 선정과 디지털 기반 현상 기록화 방법

아카이브의 정치와 제주의 기억투쟁

“아카이브는 권력이 시작되는 곳이다. 기억의 통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카이브의 통제 없이 정치권력은 없다... 효과적인 민주화는 아카이브의 구성, 아카이브에 대한 해석에의 참여와 접근에 의해 측정된다.”

- 자크 데리다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기록 아카이브 선정과 디지털 기반 현상 기록화 방법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기록 아카이브 선정과 디지털 기반 현상 기록화 방법

기록물 생산 및 관리의 원칙

- **진본성**: 생산 주체 및 명시 시점에 생산되었는지 증명 가능
- **신뢰성**: 내용이 사실을 증명하고 이후에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 확보
- **무결성**: 기록의 형식과 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온전히 유지
- **이용가능성**: 물리적·논리적 위치를 찾을 수 있고, 재현·해석이 가능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기록 아카이브 선정과 디지털 기반 현상 기록화 방법

시민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 비전

- 학자 등 전문가의 시각이 아닌 현지적 시점에서 기록하는 지역 아카이브
- 누구나 쉽게 기록하고 업로드 할 수 있는 생활형 아카이브
- 일방적 업로드가 아닌 쌍방향 의견 제시와 수정이 이루어지는 살아 있는 아카이브
- 세대와 세대를 이어줄 수 있는 '전승'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지역 문화유산 아카이브
-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애郷심을 고취할 수 있는 '향토' 아카이브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기록 아이템 선정과 디지털 기반 현상 기록화 방법

✓ 집단기억의 기록매체로서 '지역(마을) 아카이브'

- 누구나 말하듯이 기록할 수 있는 아카이브 설계와 구축
- 매체와 디지털 환경, 멀티미디어의 적극적 활용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기록 아이템 선정과 디지털 기반 현상 기록화 방법

- 제주학연구센터 오픈 아카이브
- 자료 등록 양식에 따라 누구나 사진, 영상, 음원 등을 업로드
- 업로드한 자료에 대한 상세한 설명 작성(인용 표시 분명히!)
- 등록된 자료 감수(전문가 선정) → 수정보완 → 완료
- 지역(마을)과 일반에게 서비스 제공
 - 누구나 자료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과 주민을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역사문화 자료로 활용
 - 지역정체성 확립 및 지역(마을) 박물관(전시관) 유물자료로 활용
 - 다양한 작품과 축제, 관광 등을 위한 창작소재로 활용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기록 아이템 선정과 디지털 기반 현상 기록화 방법

“진정성(고유성)” Authenticity
구심적 전승

VS

“무대화된 고유성” Staged Authenticity
원심적 전승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기록 아이템 선정과 디지털 기반 현상 기록화 방법

탐라 제주의 고유성을 가꾸는 제주학 아카이브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기록 아이템 선정과 디지털 기반 현장 기록화 방법

3.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현장을 기록할 것인가?



한국문화재단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기록 아이템 선정과 디지털 기반 현장 기록화 방법

디지털 시대의 현장 기록화 – 녹취와 사진, 영상, 그리고 노트!



현장기록화 원칙

- "그날의 기록은 그날에 정리한다!"
- 매체(기록도구)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대한 '시각'과 '관점'이 더욱 중요!
- 이를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함(답사 전 문헌 검토, 질문지 등)
- 현장의 흐름(flow)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기록매체 활용(기본은 노트!)
- 현장에 맞는 기록매체 선정 필요(대형 카메라나 VCR, 스마트폰 카메라 등)

한국문화재단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기록 아이템 선정과 디지털 기반 현장 기록화 방법

기록화 이전의 전제 – '라포(rapport)'를 형성하라!



현장기록화 방법

- "아는 만큼 보이고 라포(친화관계)를 형성한 만큼 제보를 얻을 수 있다!"
- 현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최상의 기록을 만들어내는 지혜가 필요!
- "현장에서의 존재감을 낮추고 '보이지 않는 기록자'가 되도록 노력!"
- "있는 그대로"를 담아낼 수 있는 매체 활용 및 다중 구조의 기록 생산
- 풀샷 담은 비디오 거치+근접촬영(카메라나 폰)+녹취+노트 필기

한국문화재단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기록 아이템 선정과 디지털 기반 현장 기록화 방법

현장의 특성에 따른 기록화 방식의 차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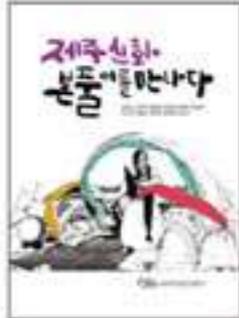
- 생애사, 구술사, 민요 등 개인의 '구술'과 '노래'에 대한 기록화
 - 제보자의 표정과 몸짓을 담아낼 수 있는 비디오 촬영 + 고품질리티 녹음 장비(폰 설정) + 적절한 질문! + 사진 + 노트!
- 특정 주제나 대상에 대한 제보자 인터뷰
 - 녹음 장비 + 사진 + 꼼꼼한 노트 필기!
- 굿, 제의, 민속예술 등의 연행이나 움직임이 많은 분야 기록화
 - 풀샷 비디오 녹화 + 풀타임 고정 녹취 + 근접 사진 + 노트!
- 마을 문서, 도구, 음식, 돌담 등 움직임이 없는 대상 기록화
 - 휴대용 배경(천, 종이 등) + 광범위 각도 삼각대 + 사진(왜곡 최소화) + 제보 녹취 + 사전에 준비된 조사항목 담은 기록지!

한국문화재단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기록 아이템 선정과 디지털 기반 현장 기록화 방법

- 집단적 기억의 매체로서 이야기(설화-신화, 전설, 민담) 문화
- 제주의 풍부한 신화와 전설-살아있는 신화와 제의(굿)
- 기억을 '튼내어' 구술하고, 이를 기록하는 작업이 아카이빙
- 이야기를 통해 지역의 집단기억을 끊임없이 재생산→기록화



- 제주 신화 본풀이는 심방에 의해서만 전승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단골과 도민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새롭게 '이야기' 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임.
- 기록이 축적되고 원활하게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면 '의미화'가 강화되고 마침내 지역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

제주도립도서관



기록 아이템 선정과 디지털 기반 현장 기록화 방법

- 원형이 사라지면, '내가 만든' 기록이 원본이 된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 아카이브

감사합니다!

제주도립도서관



**제5기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기초과정**

탐라의 역사·문화·삶을 기록할
'시민 아키비스트'
기초과정 교재

발행인 김완병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63281 제주시 임항로 275
www.jst.re.kr
발행일 2025년 5월 27일
제작 한그루 onetreebook.com